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THE THIRD YOUNG-DO CHURCH IN PUSAN**

written by

**WOO JIN CHU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Moon Sang Kwon

---

Young Shin Kim

---

Seyoon Kim

March 10, 2004

**A STRATEGAY FOR REVITALIZATION OF THE THIRD  
YOUNG-DO CHURCH IN PUSAN**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WOO JIN CHUNG**

MARCH 2004

### 제 3 영도교회의 정체성과 활성화 전략

이 논문을 풀려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문상 교수

정 우 진

2004년 3월

## ABSTRACT

A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The Third Young-Do Church in Pusan

Woo Jin Chung

Doctor of Ministry

200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t seems that the church growth is not only the greatest concern of God but also the greatest longing of Jesus Christ, the very purpose for which the Holy Spirit came,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reasons the church exists. Until the early 1990s, the Korean churches having 120 years of mission history had been experiencing a rapid growth, which was unprecedented in the world church history. However, since the early 1990s the Korean churches has been going through stagnation. The Third Young-Do Church in which the present writer have ministered for 10 years seems to be in quite a similar situation. Thus in this dissertation we aim to develop a strategy to enliven The Third Young-Do Church and enable it to grow again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In Chapter 2 we shall deal with the theories for the church growth. In Chapter 3 we shall survey the growth level of the churches which are neighboring to The Third Young-Do Church. And then shall pay a special attention to The Third Young-Do Church itself. In Chapter 4 we shall survey its history (period of growth; period of trials; period of recovery) and describe its current situation-the ongoing stagnation. In Chapter 5 we shall attempt to figure out the reasons of the stagnation of The Third Young-Do Church from th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For this we shall take a full consideration of the detailed diagnoses which have been given by NCD Korea, Discipleship Making Ministry International and Institute for Church Growth respectively. In Chapter 6, based on the in depth analyse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Third Young-Do

Church, shall discuss how to enliven the church again. The strategies for the church growth shall include small group ministry, Evangelism Explosion, evangelism team ministry, counseling for healing, prayer meetings, English worship service for children and youths, The Purpose Driven Campaign of 40 Days, and worship renewals.

It is God who makes his Church grow. But the pastors and the local churches can be the instruments of God with which he brings out the church growth. Therefore, pastors in particular should exercise leadership in developing the strategies for the church growth and putting them into action. Calvin claimed that "a church can grow as much as a pastor can." If a pastor is ready to pay the price for his own growth and the church where he is ministering, it seems quite certain that the church will be able to get out of a swamp of stagnation and keep growing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D.

Young Shin Kim, Ph.D.

Seyoon Kim, Ph.D.

## 감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저에게 그 동안의 사역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논문을 쓰게 하셨음을 깨닫고 영광과 감사를 돌려 드립니다. 풀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시고 배려하여 주사 제3영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신학적 토대와 안목을 키워주신 김세운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논문을 지도해 주신 권문상 박사님, 그리고 격려해 주신 김태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제3영도교회를 섬겨오는 아내 안형숙과 요한이와 주혜, 그리고 미국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삼촌, 국내 외 형제들과 사촌들과 함께 이 작은 열매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2004년 5월

정 우 진

## 목 차

|                               |    |
|-------------------------------|----|
| ABSTRACT .....                | ii |
| 감사의 말씀 .....                  | iv |
| <br>                          |    |
| 제 1 장 서 론 .....               | 1  |
|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        | 1  |
| 제 2 절 연구 방법 과 범위 .....        | 3  |
| <br>                          |    |
| 제 2 장 교회성장 .....              | 5  |
| 제 1 절 교회성장의 정의 .....          | 5  |
| 1. 맥가브란의 견해 .....             | 5  |
| 2. 피터 와그너의 견해 .....           | 6  |
| 3. 교회 성장의 분류 .....            | 7  |
| 4. 건강한 교회 .....               | 8  |
| 5. 교회 성장의 원리 .....            | 12 |
| 제 2 절 교회성장의 근거 .....          | 13 |
| 1. 질적인 성장 .....               | 13 |
| 2. 양적인 성장 .....               | 13 |
| 3. 확장 성장 .....                | 14 |
| 제 3 절 교회성장의 요소 .....          | 15 |
| 1. 올바른 진리 선포와 실천 .....        | 15 |
| 2. 성령으로 주도되는 복음 전파 .....      | 15 |
| 3.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 .....          | 16 |
| 4. 예배와 선교 .....               | 19 |
| 5. 교회 성장을 위한 평신도의 역할 .....    | 21 |
| 제 4 절 제3영도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성장 ..... | 24 |

|                                 |    |
|---------------------------------|----|
| 제 3 장 영도지역과 주변교회 .....          | 26 |
| 제 1 절 영도 주변문화와 종교 .....         | 26 |
| 1. 영도의 해양문화와 종교 .....           | 26 |
| 2. 영도의 종교 .....                 | 28 |
| 제 2 절 제3영도교회 주변교회의 일반적 현황 ..... | 32 |
| 1. 교단과 교회 현황 .....              | 32 |
| 2. 영도지역 교회의 정체 현황 .....         | 34 |
| <br>                            |    |
| 제 4 장 제3영도교회의 현황 .....          | 36 |
| 제 1 절 제3영도교회의 역사 .....          | 36 |
| 1. 교회설립 동기와 배경 .....            | 36 |
| 2. 제3영도교회의 성장기 .....            | 37 |
| 3. 제3영도교회의 시련기 .....            | 43 |
| 4. 제3영도교회의 회복기 .....            | 45 |
| 5. 제3영도교회의 현재의 모습 .....         | 47 |
| 6. 요약 .....                     | 48 |
| <br>                            |    |
| 제 5 장 제3영도교회의 정체성 .....         | 50 |
| 제 1 절 제3영도교회의 현주소 .....         | 50 |
| 1. 연도별 교회 성장 .....              | 51 |
| 2. 표에서 나타난 정체성 .....            | 51 |
| 제 2 절 제3영도교회의 정체원인 .....        | 52 |
| 1. 내적 원인 .....                  | 52 |
| 2. 외적 원인 .....                  | 61 |
| 제 3 절 제3영도교회의 진단과 결과 .....      | 68 |
| 1. 교회성장연구소의 교회 진단과 결과 .....     | 68 |
| 2. NCD 교회진단과 결과 .....           | 77 |
| 3. 국제 제자 훈련원의 진단과 결과 .....      | 85 |



|   |     |
|---|-----|
| 제 6 장 제3영도교회의 정체성 극복을 위한 전략 .....       | 88  |
| 제 1 절 제3영도교회 성장 비전과 목표 .....            | 89  |
| 1. 교회성장 비전 .....                        | 90  |
| 2. 성장 목표 .....                          | 91  |
| 제 2 절 제3영도교회 성장 전략 .....                | 95  |
| 1. 소그룹을 통한 정체성 극복 .....                 | 95  |
| 2. 소그룹 운영의 실제 .....                     | 99  |
| 3. 전도운동을 통한 정체성 극복 .....                | 102 |
| 4. 신축된 교육관을 통한 대민봉사 프로그램으로 정체성 극복 ..... | 114 |
| 5. 전인가족 치유상담 학교를 통한 정체성 극복 .....        | 118 |
| 6. 기도운동을 통한 정체성 극복 .....                | 123 |
| 7. 영어 성경 주일학교를 통한 성장 계획 .....           | 128 |
| 8.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통한 성장 계획 .....      | 132 |
| 9. 교회부설 산돌어린이 학교를 통한 성장계획 .....         | 135 |
| 10. 설교의 활성화 .....                       | 137 |
| 11. 차별화된 예배 .....                       | 139 |
| 제 3 절 목사의 리더십 함양 .....                  | 140 |
| 1. 한국 리더십 센터 도움 받기 .....                | 140 |
| 2. 발간된 책을 통하여 스스로 리더십함양 .....           | 141 |
| 제 4 절 교회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 전략 .....        | 142 |
| 1. 당회 .....                             | 142 |
| 2. 제직회 .....                            | 143 |
| 3. 자치기관 .....                           | 143 |
| 4. 교육기관 .....                           | 144 |
| 5. 심방과 구역조직 .....                       | 144 |
| 제 7 장 결  론 .....                        | 146 |

|             |     |
|-------------|-----|
| 부록 .....    | 151 |
| 참고문헌 .....  | 155 |
| VIT A ..... | 163 |

## 표 목 차

|  |     |
|--|-----|
| <표 1> 종교단체 현황 .....                          | 29  |
| <표 2> 숫자로 본 년도별 교인 수 .....                   | 51  |
| <표 3> 영도인구의 이동현황 .....                       | 62  |
| <표 4> 영도 내 교육기관 현황 .....                     | 62  |
| <표 5> 영도지역의 기업체 현황 .....                     | 63  |
| <표 6> 1993년 연말 과 94년 년 초 출석자료 통계 .....       | 68  |
| <표 7> 7개 분야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 .....               | 75  |
| <표 8> 교회건축 필요성에 대한 교인들의 견해 .....             | 76  |
| <표 9> 40대 이후 교회 신축 찬성 성도들의 신축시기에 관한 질문 ..... | 76  |
| <표 10> NCD 교회 평가서 .....                      | 78  |
| <표 11> 지난 10년 태신자 전도운동 대상자 및 결신자 현황 .....    | 107 |
| <표 12> 년도별 성장 목표 .....                       | 108 |
| <표 13> 전도폭발 훈련생 수료현황 .....                   | 109 |
| <표 14> 년도별 전도폭발 전도를 통한 새 가족 등록 현황 .....      | 110 |
| <표 15> 년도별 전도폭발 훈련생 배출 계획 .....              | 111 |
| <표 16> 여호수아 전도대 만남 목표 및 결신 목표 .....          | 113 |
| <표 17> 2010까지 성장목표 및 최대치 .....               | 147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목회자 리더십 자가 진단 설문 통계 .....          | 69 |
| <그림 2> 교회조직을 위한 진단 설문 통계 .....            | 70 |
| <그림 3> 목회 환경을 위한 자가 진단 설문 통계 .....        | 71 |
| <그림 4> 교회재정을 위한 진단 설문 통계 .....            | 71 |
| <그림 5> 사역자를 위한 자가 진단 설문 통계 .....          | 72 |
| <그림 6> 프로그램을 위한 진단 설문 통계 .....            | 73 |
| <그림 7> 전도 및 새 신자 목회를 위한 자가 진단 설문 통계 ..... | 74 |
| <그림 8> 교회질병 측정을 위한 진단 설문 통계 .....         | 75 |
| <그림 9> 국제제자훈련원 진단 .....                   | 85 |
| <그림 10> 국제 제자훈련원 교회평가 .....               | 86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현재의 한국교회는 몇 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하다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각 교단이나 한기총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고 있고, 또 대안도 있지만 개 교회마다 상황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 교회가 교회성장 마인드와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게 만들고, 부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주 5일 근무제는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겪는 문화이기에 당분간 교회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견된다.

과거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눈부신 것이었고, 선교사상 전례가 없는 빠른 성장이었다는 격찬이 식기도 전에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예견한대로 한국교회는 IMF를 통해서 순간적이지만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영도교회는 1994년 본 연구자가 취임할 때의 장년예배 출석 숫자와 2003년의 연평균 출석 숫자를 비교할 때 9년 동안 증가한 숫자는 불과 100명 미만이다. 물론 감소하지 아니한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가장 많이 모였던 1993년에는 1300명이 회집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담임 목사의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임 교역자를 따라 간 교인과 시험에 들어서 출석치 아니하는 자들과 가까운 교회로 이동한 교인들이 450여명에 이르렀고, 남은 교인은 850여명 가량이었다. 9년이 지난 지금은 936명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목사의 분발과 위기의식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강렬한 욕구가 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가 목회도 진단하고, 분명한 트렌드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였다. 특별히 IMF가 오기 전 해양수산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선사업의 불황과 수리조선사업과 어선들의 감소와 어장을 상실한 여파로 슬한 부도 도미노 현상을 가져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경제상황이 되었고 거기다가 IMF까지 겹치는 형편이었다.

어려우면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찾는다고 하지만 부산 지역의 복음화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특히 부산지역에서도 영도는 최하위권에 속한다. 해양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각종 수상 섬김과 수산업의 문화가 용왕신에게 무사안일과 단시간에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해달라고 제사 지내고 굿을 하며, 음력 6월은 '손'이 끼여 있기에 이사를 하지 아니하는 토속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여건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도지역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척박한 토양이지만 이 지역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해야하는 교회의 사명감을 깨닫지만 안타깝게도 영도지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교회의 성장도 둔화되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영도 인구 90퍼센트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영도지역 교회는 더욱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제3영도교회의 정체성을 조사하고 진단하여서 성장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고 정체된 교회의 원인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교회성장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 성장 저해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체된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비록 부산 영도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고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에서는 한국교회가 공감대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제3영도교회의 정체성 원인 규명과 진단과 치유방법으로 제시한 성장전략은 개 교회에서 얼마든지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범위는 제3영도교회란 개체교회에 국한되며 교회의 정체성 원인을 먼저 다루고자 교회가 안고 있는 주변 상황과 역사적 정체요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 정체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7장으로 조직하고, 1장 서론에 이어 2장은 교회성장에 관한 것을, 3장은 영도지역의 특성과 지역교회 정체성을 조사하고, 4장에서는 제3영도교회의 역사를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5장에서는 제3영도교회의 정체원인을 내적 원인과 외적원인으로 살펴볼 것이다. 내적 원인에는 목사와의 심한 갈등을 소상하게 살피고, 목사의 비윤리적 사건이 교회 성장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고, 그 영향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당시 목사를 이동하도록 주동한 교인들의 믿음의 질과 성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외적요인 중에는 교회당 이전이 무산됨으로 교인 간에 불신과 심한 후유증이 정체요인으로 작용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해양수산업의 몰락과 조선 선박과 수리 조선업의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로 인한 교회 정체성과의 관계와 지역 토속문화와의 충돌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명성훈의 한국교회 성장연구소의 교회질병 진단과 NCD교회 진단과 국제제자훈련의 교회진단을 통해서 교회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본 교회에서도 진단을 하였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6장에서 정체성 전략을 세웠다.

6장에서는 5장에서 살펴본 원인과 결과를 신중하게 살펴 치료하고 극복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전략으로 9가지 전략을 세웠다. 교인치유 프로그램으로 사단법인 전인가족 치유상담 연구소와 협력하여 전인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목사와 관계를 개선하고, 교인끼리 상처를 치유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교육관을 지역봉사 차원 복지관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이 있는 영어주일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교회를 홍보하고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의 활성화를 꾀할 것이다. 기존 남녀전도회와 제직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며, 구역조직도 개편하여 구역정체성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40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인의 의식과 분위기를 쇄신하고 막혔던 교인들 간

의 교제의 담을 열고,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자로 바뀌며 재생산과 섬김이 일어나도록 하여 명실공히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한다. 기존 가지고 있는 전도폭발과 전도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 결론에서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교회 성장 수치를 계획하고 '교회성장연구소'와 'NCD'의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건설하도록 하면서 제3영도교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제3영도교회의 정체성 원인을 규명하고, 그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끊임없이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자기 성장을 위하여 몸부림칠 때 분명히 제3영도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며 균형 잡힌 교회로 우뚝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구원선이 될 줄 믿는다.



## 제 2 장

### 교회 성장

#### 제 1 절 교회성장의 정의

교회 성장이란 무엇인가? 목회를 통한 교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 성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의 교회 성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 1.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견해

‘교회 성장’이란 말은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1930년대 초기에 그가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 교회 성장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런 필요에 따라, 그는 본격적으로 교회성장 연구에 몰입했고, 1954년 아프리카 7개국을 방문하여 그곳의 20개 선교단체에 의하여 수립된 교회들을 연구한 것을 아프리카에 실험해보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나님의 다리 (The Bridge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ic of Missions)라는 책을 발간함으로써 본격적인 교회성장학이 논의되기 시작했다.<sup>1)</sup>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은 영적부흥을 의미”<sup>2)</sup>한다고 정의한다. 교회성장과 관련한 영적 부흥이란 교회의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포함한 말이다. 아울러 그는 교회성장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정의한다. 사람은 충성심이 없이는 어떠한 봉사

1) Donald McGavran and George G. Hunter III, 교회 성장학, 박은유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9.

2) Donald A. McGavran, 교회 성장학, 고원용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89), 99.

나 노력이나 수고도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충성심이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며 이러한 충성심을 보이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성장이 따른다는 것이다. 즉, 그에게 있어서, 교회성장이란 “잃은 양을 찾아내어 우리 안에서 잘 목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고 또한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생활을 하므로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행위”<sup>3)</sup>를 뜻한다.

## 2.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의 견해

피터 와그너는 교회성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해주며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데 관련된 모든 사항”<sup>4)</sup>으로 정의하였다. 와그너의 교회성장 이론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교회성장의 성경적 근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눅 19:10) 오신 것,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선한 목자의 마음(눅 15:4-6),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sup>5)</sup>

그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는 교회이며, 동시에 반드시 살아 있는 표적을 가지고 있다”<sup>6)</sup>고 주장한다. 그는 특별히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표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sup>7)</sup> 적극적인 사교방식을 가진 목사와 평신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 줄 아는 목사, 전도를 위해 규모가 넉넉한 교회, 축제적인 예배 및 모임, 모임의 동질화, 효과적인 전도, 우선순위 결정 등이 그것이다. 피터 와그너의 교회 성장 원리와 이론은 많은 교회의 추종 원리가 되어 왔다.

3)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 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2), 289.

4) C. Peter Wagner, 교회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10.

5) Ibid., 258-259.

6) Ibid., 33.

7) Ibid., 252.

### 3. 교회 성장의 분류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회 성장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교회 성장은 질적 성장, 양적 성장 그리고 이 둘의 조합으로 보는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질적 성장으로 보는 견해

교회 성장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찾으시고 부르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많아지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인격적 성장을 교회성장으로 보는 견해이다.<sup>8)</sup>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 속에서 영광스럽게 완성되기 위하여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엡 5:26-27).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견해이다(엡 4:13).

#### 나. 양적 성장으로 보는 견해

둘째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 들게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피터 와그너는 교회 성장이란 옳은 것일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맥가브란 역시 이런 의미의 교회 성장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20)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 성장을 이해할 때 바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교회성장의 양적 극대화 활동이 가져다 준 효과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질적 성장을 수반하지 못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을 도출할 우려가 있다.

8) Peter Wagner,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5.

#### 다. 종합적인 견해

따라서 교회 성장을 의미할 때,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분리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개념을 통합해서 적용해야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마 13:1-33) 등은 수의 급격한 증가들을 나타내어 주는 내용들이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양적 증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른 한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 받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각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지는 질적 성숙을 경험해야 한다(고전 12장; 엡 1:23).

결국, 교회의 성장은 성도수의 증가와 더불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영적인 성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양적으로 성장 하였다 하더라도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니지 못하였다면 미숙한 교회가 될 것이며, 영적으로는 성숙한 반면에 교회가 극소수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역시 영향력 있는 교회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모두를 포함하는 교회 성장 개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건강한 교회

본 연구자는 교회 성장의 당위성을 찾아보기 전에 교회 성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건강한 교회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건강한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이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성장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성장이다. 한국의 교회성장은 실재적으로 이미 1980년대 후반기부터 둔화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1세기를 맞으면서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것은 릭 워렌(Rick Warren)이 말한 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성장이 아니라 교회건강”<sup>9)</sup>이라고 역설한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는

열매를 맺으며, 건강한 교회는 지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서의 교회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도와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의 양적인 확장과 교회 안의 다양한 사역을 통한 섬김과 교제와 예배 등의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숙이 나타나야 한다. 21세기는 다변화의 시대이다. 변화의 속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교회 또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되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 또한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성장의 원리와 함께 변화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교회 성장의 원리에 관하여 맥킨토시(McKintosh)는 올바른 문화, 적절한 장소, 적당한 시간, 적응할 줄 아는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10)</sup> 또한 이들은 변화를 좋아하며 변화는 비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sup>11)</sup> 현대의 성장하는 교회를 살펴보면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들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릭 워렌의 견해

릭 워렌은 교회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그의 책 새들백 교회 이야기에서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교회의 성장이 아닌 교회의 건강이라고 믿는다”<sup>12)</sup>고 분명히 지적하였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참된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건강에 달려 있다. 즉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건강하면 성장

9)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25.

10) Elmer L. Towns,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김홍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163.

11) Ibid., 168.

12)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25.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는 건강한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100대 교회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교회를 다음과 같이 7가지 종류로 구분한다.<sup>13)</sup>

첫째,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면서 변화보다는 과거의 것을 되풀이하는 교회를 가리킨다. 둘째, 인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지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면서 지도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만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셋째, 재정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모든 관심과 이슈가 재정이나 예산 등에 있다. 넷째,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모든 에너지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사용된다. 다섯째, 건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건물을 사고 유지하는 일, 시설 보수 등 건물에 모든 관심이 있다. 여섯째, 행사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항상 행사로 바쁜 교회이다. 일곱째, 구도자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불신자나 전도에 관심이 많은 교회이다. 그리고 기존의 이와 같은 유형의 교회들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건강한 교회, 곧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를 제안한다.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목적을 성경에서 찾고 그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말한다.

워렌은 교회의 존재목적은 5가지로 말한다.<sup>14)</sup> 첫째, 목적 1.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예배). 둘째, 목적 2.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사역). 셋째, 목적 3. 가서 제자를 삼으라(전도). 넷째, 목적 4. 세례를 주라(교제). 다섯째, 목적 5. 지키도록 가르치라(훈련).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인 목적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예배하고, 준비시키고, 전도하기 위해 존재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도로서 결실의 삶을 살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그들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는 21세기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모든 변화 속에서 사역하기에 가장 잘 구비된 교회이다.<sup>15)</sup>

13) Ibid., 93-98.

14) Ibid., 122-124.

15) Ibid., 127.

#### 나. 켄 험필(Ken Hemphill)의 견해

켄 험필은 그의 책 안디옥 이펙트 (The Antioch Effect)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방법이나 모델, 프로그램이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 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맺게 되는 초자연적 열매이며 교회의 건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을 제시한다.<sup>16)</sup>

첫째, 영적 능력으로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달려 있다. 초자연적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둘째, 역동적인 예배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예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예배가 항상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 셋째, 기도로 한국교회의 중요한 성장 요소는 기도이다. 넷째, 목회지도력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에게 비전과 지도력이 있어야 하고 준비된 평신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족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속감을 심어주며, 의미 있는 교제를 갖게 해주는 교회다. 여섯째, 비전이 분명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는 비전이 뚜렷하다. 안디옥 교회의 비전은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었다(행 13:2). 일곱째, 전도의 열정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는 지역 사회와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이다. 여덟째, 평신도를 훈련하는 교회로 교회가 훈련사역을 성취하면 두 가지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지고, 둘째로는 교회 안에서 재생산이 일어나게 된다.

#### 다. 진 겐츠(Gene A. Getz)의 견해

전 달라스신학교의 교수이자 텍사스 주의 플레이노시에서 펠로우쉽 교회를 담임하는 겐츠는 그의 책 당신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The Measure of Spiritual Maturity)라는 책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다음과 같은 12가지 원리를 제시한다.<sup>17)</sup>

16) Ken Hemphill, 안디옥이펙트, 이명희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22.

17) Gene A. Getz, 당신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88), 37-364 요약.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기록해야 하고, 믿음 사랑 소망이 표현되어야 하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영생의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여야 하고, 말씀과 기도예 헌신된 교회여야 하며, 교제와 예배에 헌신된 교회여야 하고, 베푸는 헌신된 교회여야 하고, 전도에 헌신된 교회여야 하며, 가정에 헌신된 교회여야 하고, 개인적 신앙성숙에 헌신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 5. 교회 성장의 원리

그러면 교회 성장의 원리는 무엇인가? 교회성장 원리의 첫째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그 저변에는 반드시 기도와 성령 충만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좋은 프로그램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성장하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기도가 그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예배와 설교의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예배를 통하여 충족시켜야 하며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설교를 통하여 구원과 치유, 회복,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성장하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축제적인 다양한 예배가 드러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목회자와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를 통한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성장한다. 성장하는 교회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회자를 통하여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교회의 다양한 역할들을 분담하여 사역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확보하고 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지속적인 제자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는 리더십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목회 구조와 조직을 가져야 한다. 현대와 미래사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사회이다. 이제 더 이상 목회자 한 사람만으로는 교회가 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와 전문성을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목회의 구조와 조직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 절 교회성장의 근거

교회성장의 성경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초대 교회의 성장 모델로 간주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장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질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 42-44절이다. 이 내용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기도, 설교, 물질적 공유와 상통, 예배를 목적으로 성전에 모임, 집에서 모여서 함께 음식 먹음과, 이웃에게 모범을 보여 칭송 받은 것을 말한다. 나아가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다.(행 4:13-21) 그리고 교회 안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다(행 5:1-11).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었으며 믿음이 더 굳어졌다(행 11:23; 16:5).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다.

### 2. 양적인 성장

초대교회는 또한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 교인의 수는 단순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 곧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양적인 성장을 말할 때에는 꼭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다(행 6:1). 초대교회는 다락방에 모인 120명으로 시작되었다(행 1:5). 오순절에 원래의 120명의 모임에 3천명이 더하여졌다(행 2:41). 주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효를 더하였다(행 2:27).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며 남자들의 수효가 5천 명 가량이었다(행 4:4). 만일 여자들과 아이들의 수까지 합한다면 이제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는 “남녀의 무리들”이라고 기록된 많은 신자들이 계속해서 더하여졌다(행 5:14).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제자들의 수효는 계속해서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였다”(행 6:17).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양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 3. 확장 성장

초대교회는 밖으로도 성장하는 교회였고, 지리적으로도 널리 확장되었다. 그 결과로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주님의 약속은 성취 되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행 8:1, 4).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행 8:12). 그는 또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다(행 8:26-42). 이것은 복음이 아프리카에서도 전파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사도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행 9:19-20)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걸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대하게 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 9:31).

계속해서 복음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전파되었다(행 11:19-26).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에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다. 또 복음은 이고니온의 도시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로 퍼져 나갔고, 그 곳에 교회가 세어졌다(행 14:21, 23).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행 16:5)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교인들의 수만 날마다 증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수효도 증가하였다. 계속해서 빌립보(행 16장), 베히아(행 17:12), 아덴(행 17:34), 고린도(행 18:8), 에베소(행 19:9) 그리고 로마(행 28:30-31)에까지 복음은 전해졌고 교회는 세워졌다.<sup>18)</sup> 초대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계속 성숙되고 성장되며

18) 오성택, 교회성장 10가지 원리를 잡아라 (서울: 엘멘, 1999), 44-47

확장되어 나갔다. 이 모든 면에서의 성장은 동시에 이루어졌다. 사실 이 세 측면은 나눌 없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지속적인 과정이었다는 점과 모든 신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성장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성경적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제 3 절 교회 성장의 요소

그러면 교회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교회의 구조 안에서 목회 리더십 행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교회 성장의 요소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올바른 진리 선포와 실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말미암는다. 신자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의 변화와 주변의 유혹에도 동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올바른 말씀과 그것에 따른 경건한 삶을 통해 양육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신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성경공부체계를 갖추어 교회의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중심의 가치관을 정립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 성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각 지체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이다.

#### 2. 성령으로 주도되는 복음 전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할 수 없다. 교회의 성도 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증가하므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 이교도들의 포교활동과 같이 성령의 능력 없이 자신의 인격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는 있겠지만 열매를 맺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으며 더 나아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행 1:4-5). 이와 같이 복음전파는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는 신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보다는 신자가 얼마만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은 초대교회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보거나 오순절 교회 같은 일부만의 활동으로 치부해 버렸으나 성령의 오신 목적은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오셨고(요 16:7-11). 그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권세에게로 옮기고 한 죄인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이다.<sup>19)</sup>

오늘날의 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증거를 위하여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자신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가 외부적으로는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증거로 나타난다(갈 2:20). 그러므로 신자가 복음을 증거 하는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 3.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

교회 성장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교회성장에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성장에서 리더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까지를 포함한다. 교회성장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목회자의 기능과 역할이다.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엘머 타운스(Elmer L. Towns)는 교회를 성장으로 이끈 박력 있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큰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지적하고 성경적인 지도력을 가진 목회자들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sup>20)</sup> 맥스웰은 교회를 변화로 이끄는 목

19) Peter Wagner, 성령의 능력과 교회성장, 이재범 역 (인천: 임마누엘, 1992), 38.

회자의 능력이 성공을 가능하는 가장 훌륭한 예언자라고 믿는다. 그는 목회자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에 개방적이 되어야한다고 말한다.<sup>21)</sup> 교회성장에 있어서 목회자의 사고와 능력, 교회에 대한 확고한 지도력, 설교의 중요성 등의 요인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바람직한 교회는 목회자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목회자는 모든 교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은사를 교회 내의 사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 목회자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그의 지도력과 관계가 된다.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사람들과 업무를 자신이 직접 조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목회자가 교회를 조종하려 할수록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지도력은 영향력이자 조종이 아니다.<sup>22)</sup>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 지도력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비전을 갖는 것이다. 지도력은 비전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도자는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의 소망을 성공적으로 심어주어야 한다. 지도자는 인격과 성실, 풍부한 수완과 열정, 바른 판단력, 사람을 다루는 미덕과 기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사람들은 신뢰하는 지도자에게 결정할 자유와 감독, 권리 권한을 부여한다.<sup>23)</sup>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성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목회자, 비전이나 교회의 성장 기회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자이다.

둘째, 겸손해야 한다. 지도자가 교인들과 비전을 나눌 때는 언제나 약속을 하고 교인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지도력을 행하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책임감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행해야 한다. 겸허한 종의 자세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의 특징이며, 겸손은 오히려 지도자의 권

20) Elmer L. Towns,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220-221.

21) Ibid., 35.

22) Ibid., 221-223.

23) Lawrence Khong, 신사도적 셀 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1), 175.

위를 강화시킨다.<sup>24)</sup>

셋째, 친화력을 지녀야 한다. 우리의 전통적 지도력은 통제력을 지칭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통제력이 아니라 친화력으로 이해된다.<sup>25)</sup> 지금까지의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지도력을 갖추었다는 이미지보다는 권위적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또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교회성장을 이루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지도력은 권위적이고 통제적이라기보다는 화합적이고 협동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sup>26)</sup> 훌륭한 목회 지도력은 독재가 아니다. 목회자가 평신도 각각의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회 지도력을 형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목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와 전도와 사람들을 돌보는 데 그의 지도력을 따르는가에 있다.<sup>27)</sup>

넷째, 목회자 자신의 영성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성장하는 교회는 강력하고 창조적인 지도력을 갈망한다. 좋은 지도력이 영적인 건강과 의미 있는 예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활기찬 사역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준다.<sup>28)</sup>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 기능은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권위와 인간미를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목회자의 지도력이다.<sup>29)</sup>

다섯째, 위임할 줄 아는 능력이다. 정제된 교회들의 목회 지도자들은 주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중요성이 약화되거나 혹은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위임하는 것을 종종 거부한다.<sup>30)</sup> 그러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 지도력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위임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지는 것인데, 목회 지도자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또는 그 일에 대한 결정 내릴 때, 타인에게 그 일의 수행과 결정의 책임과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자이어야 한다. 자신이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24) Ibid., 181.

25)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160.

26) Ibid., 244.

27) Elmer L. Towns,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15.

28)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248.

29) Ibid., 244.

30) George Barna, 교인에게 친숙한 교회, 최대형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155.

타인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고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지도력은 조직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유지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기능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조직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나아가게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교회는 좋은 지도자를 원하고 지도자는 강력한 지도력을 원한다. 목회자의 지도력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교회의 모양을 만들어간다. 교회가 영적으로 고갈되며 사회에 대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때는 지도력이 상실된 때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지도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sup>31)</sup>

#### 4. 예배와 설교

폴 워커(Paul Walker)는 예배를 경배와 찬양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전적인 표현으로 정의한다. 그는 심지어 주일 예배에 따라 교회의 흥망이 결정된다고까지 말한다.<sup>32)</sup> 헤이포드는 교회가 예배의 세 가지 형태를 추구할 때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첫째,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둘째, 예배자에게는 그의 의무들과 정결함을 포함하는 제사적인 사역, 셋째, 예배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3)</sup> 현재의 미국인들이 교회를 택하는 기준은 다양한 예배 형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곧, 예배의 형태가 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경향과 기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예배 형태, 즉 편안함을 느끼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는 그 예배 형태에 있어 일반적으로 설교 중심의 예배이다. 또 은사 경험을 중심으로 한 예배이다. 미래 사회에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의, 형식에 얽매이고, 설교 중심적이며, 은사 중심적인 예배를 벗어나 유연성 있는 형식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교인들을 예배의 관람자에서 예배의 참여자로 전환시키는 예배로 갱신하고 다양화된 예배를 통해 예배자의 문화와 지역과 세대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예배 이외에도 성장하는 교회의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설교이다. 성령에 의해서

31)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248.

32) Elmer L. Towns,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174.

33) Ibid., 67.

설교자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우리 개신교는 설교를 빼면 무너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례전을 둘러싼 예배의식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만큼 루터와 칼빈 이래로 설교가 중요시되었다.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깊이 이해하도록, 설교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sup>34)</sup>

설교는 지역교회의 제자훈련 과정에서 첫째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설교가 없다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가장 큰 도구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설교 강단에서의 사역은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감명을 주고, 활동하게 만들며, 실제적인 적용의 길을 열어준다.<sup>35)</sup> 이렇게 설교는 교회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설교의 갱신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전심으로 말씀을 높이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배이도록 결단을 촉구해야 설교 속에 뜨거운 감정과 호소력이 있게 된다. 또한 설교의 결과로 모든 회중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sup>36)</sup> 설교자는 목적에 맞춰 설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하여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설교의 내용과 형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는 약간 웅변적이면서도 유머가 있고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에 대한 확실한 선포가 강하게 느껴지는 메시지를 선포하여야 한다. 둘째,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설교이어야 한다. 심방과 상담을 통해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다.<sup>37)</sup> 셋째, 능력 있는 설교이어야 한다. 능력 있는 설교는 곧 확신에 찬 설교이다. 능력 있는 설교를 하려면 쉽고, 짧게 해야 한다. 능력 있는 설교는 책망하는 설교보다 위로의 설교를 해야 한다.<sup>38)</sup> 곧 설교를 통하여 청중들의 삶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34) 신성종 외, 이런 목회자가 교회를 변화시킨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5), 418.

35) Bill Hu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박영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51.

36) 신성종 외, 이런 목회자가 교회를 변화시킨다, 124-127.

37) 명성훈, 장년출석 300명 돌파의 원리와 전략 II 실제편, (서울: 국민일보, 1998), 24.

38) 한국교회장기목회연구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12.



넷째, 설교는 결단을 촉구하여 순종의 반응을 일으키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sup>39)</sup> 다섯째, 설교는 현 사회의 상황과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목회자는 항상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다녀야 한다”라고 한 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섯째, 길고 지루한 교리적 설교가 아니라, 청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감적 설교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원하는 설교는 딱딱한 명제들로 구성된 설교보다 쉬운 이야기를 원한다.<sup>40)</sup>

#### 5. 교회성장을 위한 평신도의 역할

그러면 교회 성장을 위한 평신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리더십을 공유하고 교회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평신도들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성경 진리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진 평신도들 역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지만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진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평신도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분주한 일들을 보면서 자신은 반(半)실업자라고 느끼고 있는 반면, 목회자들은 혼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한다고 느끼고 있다.<sup>41)</sup> 정체된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교회 리더십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리더십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의 역할을 증시 여기며, 함께 교회의 리더십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평신도들 또한 각자의 태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과중한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평신

39) James E. Means,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서울: 나침반, 1997), 23.

40)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210.

41) R.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12.

도들은 받기만 원하고 스스로 목회자의 사역 대상이 되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역의 주체라는 주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평신도의 역할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교회 제도가 평신도들이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으로 몰려나 있게 만들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평신도 사역(엡 4:11-12)을 소홀히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sup>42)</sup>

결론적으로 다시 요약하자면, 교회성장에 있어서 목회자의 기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기능 발휘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 기능은 바로 평신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평신도 없는 교회성장을 시킬 수 없다. 평신도에게는 비상한 잠재력이 있다. 목회자는 평신도에게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기동화시키는 일을 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sup>43)</sup>

모든 평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들이 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갖지 못한 다양한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리더십을 공유하는 한 방법으로는 함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비전이란 바라는 바 미래의 상태,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마음의 그림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키며 또 신뢰를 사람들 가운데 새롭게 심는 리더십의 핵심이다. 비전은 또한 도덕성과 의지를 겸비한 품성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에 방향성과 초점을 주며 생산적이 되게 한다.<sup>44)</sup>

한 단체의 생동력에 대한 시금석은 지도자들을 생산해 내고 훈련해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 최고의 지도자들은 조직체의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교회는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지도자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는 불충분한 인간의 지도에 교회를 유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당신의 은사들을 나눠주고 계신다.<sup>45)</sup> 교회성장을 위한 평신도의 참여는 교회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성장하는 교회는 다양한 기능을 요구한다. 목회자는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평신도가 가진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42) Ibid., 14.

43) 정석현, 교회성장과 평신도의 역할, 12.

44) Howard Hendricks, 리더십이 자라는 창의력 혁명, 335.

45) Ibid., 355.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고찰할 때 한국 교회의 급성장 비결 중 하나가 '네비우스 정책'에 의한 평신도 활용에 있었다. 특히 평신도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소단위 집단들을 지도할 수 있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그들의 수효 부족과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신도들을 지도하는 데 손이 부족함을 느끼고 각 지방에서 평신도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흩어져서 다시 회중을 지도하였던 것이다.<sup>46)</sup>

실제적인 예로, 켈로우웨이는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을 강조한다. 평신도 목회의 세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훈련과정에 있는 평신도 목회자들이고, 2단계는 훈련받은 평신도 목회자들이고, 3단계는 5명의 평신도 목회자들을 감독하는 평신도 목회자 리더이다. 이 교회는 일 년에 세 차례 '슈퍼볼'(미국 프로 미식축구의 왕좌 결정전), 즉 평신도 목회자 훈련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평신도 목회자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 사역을 해야 한다.<sup>47)</sup> 현재 교회 내에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당회를 비롯하여, 제직회, 성가대, 주일학교, 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등 많은 조직 및 기관들이 있고, 그 안에 리더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잘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요청되고 있다.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지도자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sup>48)</sup> 첫째, 영적·자연적 은사들에 따라 지도자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와 멘토링<sup>49)</sup> 그리고 코치 등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지도자 훈련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도록 조직화해야 한다. 넷째, 사람들이 자기가 사역의 어떤 측면을 맡아 섬기든 간에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역의 리더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을 알게 하고 더불어 어떤 때는 사람들을 관리하지 않는 법도 알게 해야 한다. 여섯째, 단체는 감추고 신도 모두가 섬기는 주님만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46) 정석현, 교회성장과 평신도의 역할, 224.

47) Elmer L. Towns,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90.

48) Howard Hendricks, 리더십이 자라는 창의력 혁명, 334.

49) 멘토링이란 개인의 삶에 대한 조언자, 격려자, 점검자 겸 리더가 되어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 훈련에는 두 가지 영역이 포함된다. 내용과 방법론이다. 창의적인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목록에는 기본적인 성경 지식과 사역의 교리적 확산에 대한 개인적 이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맡겨진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들도 그들이 배울 수 있게 전수되어야 한다.<sup>50)</sup> 이와 같이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훈련시켜야 하며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교인은 잘 훈련된 군사와 같다. 신앙으로 잘 훈련받아서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어 있어야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 따라서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교회에서의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습관화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일체 된 삶을 살게 하는 과정이다.<sup>51)</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제 4 절 제3영도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성장

교회 성장과 관련한 이상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요약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교회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피터 와그너를 따르고자 한다. 특히 와그너의 내적 성장은 교회성장의 기초요, 밑거름이 되며 다른 교회성장 유형이 내적 성장 없이는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에 와그너의 내적 성장의 도움을 받아서 좀더 발전된 내용으로 제3영도교회의 성장 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일 때 제3영도교회는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드리고, 예수님의 소원과 성령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영도의 복음화에 앞장서면서 영도 인구의 10퍼센트를 출석교인으로 만들하고자 하는 수적목표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사도행전 2장 42절-47절을 모델로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길 소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목사의 가르침으로 적용하여서 배우고, 교제하

50) Howard Hendricks, 리더십이 자라는 창의력 혁명, 333.

51)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278.

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까지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힘쓸 때 그것이 참된 교회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잘못 배우고, 잘못된 교제와 친교, 그리고 신비주의적 기도 등은 교회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터 와그너의 내적 성장론을 본받아 다음과 같은 성장이 되도록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이끌도록 하겠다.

첫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도록(일심동체), 둘째, 성전에 모이길 힘쓰도록(성경적 모임), 셋째, 집에서 떡을 떼도록(거룩한 친교), 넷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도록(먹고 마심의 성경적 모형), 다섯째, 하나님을 찬미하도록(찬양), 여섯째,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도록(이웃에게 인정받는 삶) 훈련하려고 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생활하게 될 때 건강한 교회로 반드시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교회 성장의 열매). 이러한 결과가 있도록 교회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도하도록 하겠다.

## 제 3 장

### 영도 지역과 주변 교회

교회의 부흥은 결코 그 지역의 변화와 동떨어져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는 반드시 지역의 변화와 지역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형세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제3영도 교회의 성장과 정체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영도 지역의 특수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 제 1 절 영도 주변 문화와 종교

영도는 해양을 낀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종교 역시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는 영도의 해양 문화와 종교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1. 영도의 해양문화와 종교

###### 가. 영도의 해양문화

영도는 그 지리적 특성이 해양이므로 해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속한 영도지역은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이 일찍부터 여러 곳에서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시기적으로도 가장 이른 단계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의 장구한 문화내용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영도는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의 발상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오랜 시대로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유서 깊은 지역이다.

신석기시대 문화유적인 동삼동패총<sup>52)</sup>은 영도의 부속 섬인 아치섬 맞은편 갯가인

국립 한국해양대학교로 건너가는 다릿목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sup>53)</sup> 동삼동패총이 신석기시대의 전시기의 유물이 층위적(層位的)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면 영선동패총은 전기에 해당하는 단일 시기의 유적으로 유명하다.<sup>54)</sup>

이렇게 장구한 역사의 문화내용이 서로 인근에서 확인되고 있는 곳은 타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영도구가 일찍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에 아주 적합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골과 철기가 발견되어 철기시대로 알려지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사묘조에 절영도 신사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가뭄이 닥치면 태종대에서 비 내리기를 빌었는데 동래 지방에 가뭄이 닥치면 동래부사는 태종대에서 기우제를 올렸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편찬시기가 종종 25년 1530년이니, 그 책이 편찬되기 이전까지 영도 태종대에 신사가 존재하고 있었음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 나. 영도의 토속 종교

민속 신앙을 살펴보면 영도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갯마을이므로 사나이들의 감정과 정신 그리고 듣는 이의 가슴조차 뭉클 메이게 하는 그런 애달픈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다.

거릿대(골목할매)제사<sup>55)</sup>는 해마다 음력 정초에 동네에서 지명 받은 제주가 음력

52) L. L. Sample, Tongsandong: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hic Cul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IV-2, 1974. 아쉽게도 동삼동 패총에 관한 조사는 모두 5회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층위에 따른 내용은 조사자 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다. 이중 차드(C. S. Chard), 앨버트 모어(Albert More), 샘플(L. L. Sample)의 문화층 분류가 가장 세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가장 타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53) C. S. Chard, Albert More, L. L. Sample, 조선신석기초기 신 자료 (조선학보 41, 1966). 동삼동패총에서는 한반도 최고인 조와 기장이 발견 되었으며 갈돌과 갈판, 결합식 낚싯바늘, 그물추, 생선뼈, 고래 등뼈, 조가비탈, 짐승 이빨을 이용한 치레거리, 흙으로 만든 귀걸이 이외에도 많은 유구와 유물들이 출토되었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면 돌화덕 터와 흑요석이 있다. 동삼동에는 또 다른 조개더미가 하나 더 있었으며 이를 동삼동 상리패총이라고 부르고 있다.

54) 유광수일(아리미즈), 인류학 잡지 51권 2호 영도에서 동삼동패총에 버금가는 이름난 신석기시대 문화유적으로서 영선동패총을 손꼽을 수 있다.

55) Ibid., 289. 거릿대는 골목할매라고도 부른다. 그것은 동삼2동 861번지에 있다. 맨 처음 축

정월 대보름날 자정에 모시게 돼 있다. 동삼동 별신국(풍어제)<sup>56)</sup>는 음력 3월초 풍어와 마을 안녕을 비는 큰 제사와 어촌계장이 손수 정성 들여 제상을 진설하고 굿거리 장 단가락이 울리며 굿도 불 겸 떡도 먹을 겸 하던 즐거운 마을 잔치였다. 그 외에 고갈산 할매당(상구용제당)<sup>57)</sup>, 봉래산 산제당과 아씨당<sup>58)</sup>, 남항동 용신당<sup>59)</sup>, 청학동 서낭당<sup>60)</sup> 등이 있다. 또한 영도는 그 지리적 특성, 곧 해안성과 다수의 어업과 선박 계통 종사인구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민간신앙을 신봉하고 있다.

## 2. 영도의 종교

영도구에도 부산의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천주교, 기독교(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리교 등 6개의 종교가 있다. 또한 기구적인 분명한 조직은 없으나 민간신앙과 토속신앙을 신봉하는 이들이 있다. 영도 전체의 구민 중 25.7퍼센트가 각종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들의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불교와 관련해서 영도지역의 사찰현황은 46개소의 불교단체가 있다.

---

조한 작은 방파제 위쪽 곧 하리경로당 가까이에 있다.

56) Ibid., 289. 이것을 용왕제라고도 부르고 있다. 별신굿을 베푸는 장소는 동삼동 갯가, 이 별신굿 주관처는 오늘날 3백 명에 가까운 회원을 안고 있는 동삼동어촌계이다.

57) Ibid., 291. 고갈산 할매당은 본디 오늘의 유나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있었다. 그렇던 것이 이곳에 주택이 자꾸만 들어서면서 동삼동 효자비 뒤쪽으로 옮겨진 것이다.

58) Ibid., 292. 산제당과 아씨당은 영도 봉래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사당은 신라시대부터 절영도에 있었다는 국마장에 얽힌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59) Ibid., 293.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산하면 으레 그 으뜸 명물로 꼽히던 것이 속칭 '영도다리'였다. 이 다리가 개통하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고 내내 이어지자, 그제서야 영도사람들은 가설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원혼이 사고 현장인 다릿목에 떠돌고 있는 것이라고 추궁거렸다. 그래서 영도사람들은 부랴부랴 서둘러 그 갯가에 '용신당'을 세우고 고사를 지내게 됐다.

60) Ibid., 295. 영도구 청학동 407-11번지에는 팔각지붕으로 이어진 조그만 기와집이 있다. 이것이 청학동 서낭당이다. 전설에는 서낭당 있는 곳에 세가구가 있었는데 장대비가 내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냥꾼네 집이 고스란히 물에 휩쓸렸고 노인을 찾을 수 없었다. 10년이 지난 후 노인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썩지 않고 고스란 시신이 있었다. 이 노인의 넋을 기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lt;표 1&gt; 종교단체 현황(영도 통계연보, 2003)

| 구 분 | 종교단체 수(개소) | 교직자수(명) |     |     | 신도수(명) |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계   | 116        | 375     | 249 | 126 | 47,332 | 15,925 | 31,407 |
| 불 교 | 46         | 110     | 62  | 48  | 15,866 | 3,811  | 12,055 |
| 기독교 | 59         | 226     | 165 | 61  | 17,826 | 6,774  | 11,052 |
| 천주교 | 4          | 15      | 6   | 9   | 8,600  | 3,450  | 5,150  |
| 천리교 | 3          | 12      | 11  | 1   | 1,730  | 610    | 1,120  |
| 원불교 | 2          | 5       |     | 5   | 210    | 60     | 150    |
| 통일교 | 1          | 4       | 3   | 1   | 100    | 20     | 80     |
| 기 타 | 1          | 3       | 2   | 1   | 3,000  | 1,200  | 1,800  |

천주교는 1801년 신유박해 이후 천주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의 결과<sup>61)</sup>로 소개되었다. 1866년 당시에는 이미 부산부에도 신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sup>62)</sup>되며 부산 영도에도 이미 천주교 신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보운이었다.<sup>63)</sup> 말하자면 영도는 부산지방에서의 천주교 운동의 본거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청학동 일대는 지명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산림이 울창한 곳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천주교 운동이 시작되어 후일 청학성당<sup>64)</sup>으로 발전하였는데, 부산만이 아니라 영도지역 천주교회의 모체가 된다. 이 청학성당<sup>65)</sup>을 시작으로 현재 영도에는 4개 처의 천주교회가 있는데, 3개처 성당은 청학성당에서 분리하여 조직된 교회였다. 이것은 영도인구의 증가와 교인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발전으로 신선성당, 봉래성당, 태종성당이 세워져 현재 영도에는 4개의 천주교 본당교회가 있다.

61) 김구정, 천주교 경남발전사 (부산: 부산교구, 1967)에서 천주교의 부산전래 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62) 천주교사 편찬위원회, 부산선교 90년사, 56.

63) Ibid., 60. 그는 은밀한 신자들을 중심으로 후일 청학성당으로 발전하는 절영도공소를 설립하고 활동하다가 박해를 피해 경주로 피신해 있다가 그는 부산의 영도에 임시거처를 정했다. 당시 영도는 부산 본토와 떨어져 있는 섬이었고, 산림이 울창하여 은거하기에 적절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64) Ibid., 82. 1890년 프랑스 신부 죠조 신부(Moyse Jozeau, 1866-1894)가 김보운과 이장언의 인도로 부산에 부임하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는 24세였다. 그는 부산의 영도에 임시거처를 정했다. 죠조 신부는 지금 청학성당 수녀원 자리의 초가 한 채를 얻어 임시포교당으로 정하고 미사를 집전하기 시작하였다.

65) 천주교 청학동 성당의 미간행 교회약사에 의함.

기독교(개신교)는 부산에서도 서구인 특히 기독교 선교사와의 접촉이 빨랐던 지역이 영도이다. 1876년 개항 이래 서구와 접촉에서 미국을 비롯한 호주 등지의 선교사들이 내부하였고, 일정기간 영도에 거주하였으므로 영도에서의 서구인과의 접촉은 빈번했다. 부산지방에서 개신교와의 첫 접촉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시도한 성경반포사업이었다.<sup>66)</sup> 부산에 거주했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캐나다인 게일<sup>67)</sup>이었는데 그 역시 6주간 영도에 거주했으며<sup>68)</sup> 1891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윌리엄 베어드 부부가 영도의 피 병원<sup>69)</sup>에서 약 6개월간 거주했고<sup>70)</sup> 또 그 해 내한했던 5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당시 피 병원에서 약 한달 간 거주했다.

이처럼 영도는 외국인 선교사들과의 접촉이 비교적 빨랐던 곳이 기도하다. 영도는 부산지방에서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첫 거주지였으나 상주인구가 작고, 활동이 제

66)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전래사 (서울: 글마당, 2001)에서 이상규 교신대 교수는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성서공회는 1882년 3월 만주 심양에서 간행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성교 요안나 복음전서를 각 1천권을 인수하여 부산지방에 보급하기 시작하여 그 후 1890년에는 성공회 선교기관인 영국교회선교회 소속 존 월푸가 부산에 와서 부산지역을 답사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려 했고, 1885년 두 사람의 중국인 전도자와 함께 다시 부산에 와서 전도하려고 시도 했다. 이 때 그는 영도를 포함한 부산 일대를 순회한 것으로 보인다; 존 월푸(1832-1915), A Visit to Korea, The Church Missionary Intelligencer and Record vol. 10 (June 1885), 418-430 월푸는 부산을 거쳐 제물포로 갔고, 서울을 둘러보고 임지로 돌아갔는데, 그의 조선기행문이다. 이 기행문은 당시 한국의 자연환경, 촌락구조, 사회상, 일본인의 상황 등을 헤아리는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67) Ibid., 31. James Scarta Gale(일명 奇一, 1863-1937)은 1889년 8월에는 다시 부산으로 와 정착했다. 그는 이때 영도구 봉래동 5-43번지 일대의 피병원에서 일시 거주했다.

68) Ibid., 41.

69) 정규환, 부산지역 의료 120년사 (부산 의사회지, 제29권 4호, 1993, 4월호), 53. 피병원 소독소와 함께 1879년 설립되었다. ; Ibid 제29권 6호(1993, 6), 37-38. 이 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염병원으로서 부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콜레라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는데,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병원을 '콜레라 병원'이라고 칭했다. 피병원이 영도에 설립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들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영도는 육지와 떨어진 섬으로서 사람의 왕래가 제한되어 병균의 전파 우려가 적었다는 점, 둘째는 환자들을 격리할 수 있다는 점, 셋째는 일본인들이 전염병원 설립을 구실로 전관 거류지에 제한되어 있던 사방 십리의 행보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전래사, 209. 이 콜레라병원은 내부하는 선교사들의 임시 거주지이기도 했는데, 영국인 세관원 헛트가 이 병원 관리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70) R. H. Baird, William M. Baird, A Profile of Korea (1968), 19; W. M. Baird, "Incidents of Early Missionary Life", KMF, vol. XXVI, no. 8 (August 1930), 158.

한되어 있어 부산지방의 첫 교회는 부산진에, 두 번째 교회는 초량에 설립된 장로교회였다. 영도에 첫 교회가 설립된 때는 1896년이었다. 이 교회가 지금의 제일영도 교회이다. 이 교회는 부산지방에 설립된 세 번째 교회로서, 처음에는 그저 영도 교회라고 불렀다. 특히 이 교회는 부산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부산진 교회나 초량교회와는 달리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자생적인 교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sup>71)</sup> 그래서 영도에도 1950년까지는 장로교회 외의 교회는 없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다른 종파의 교회도 영도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설립된 기독교회는 총 50개이며, 이중 예장고신이 13개, 예장통합이 11개 순이다.

천리교는 1838년 일본 나라현 텐리시에서 나카야마 마미끼가 신의 계시를 받아 창도한 종교로서 전지와 전능의 신인 어버이신을 섬기는 종교이다.<sup>72)</sup> 천리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것은 1903년 일본인에 의해서였는데, 부산에서 최초로 포교가 시작되었다. 영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천리교회가 원남성교회인데, 이 교회는 초대 교회장인 고(故) 최재한 선생에 의해 1957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영도구에는 원남성교회를 비롯하여 16개의 천리교회 혹은 포교소가 있다. 원불교는 불법에 근원을 두고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독자적인 교리와 신앙체계가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된 교단을 가진 종교이다.<sup>73)</sup> 원불교의 개교는 한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아래 고난을

71) 김용섭, 제일영도교회 100년사 (부산: 제일영도교회, 1998). 제일영도교회의 설립자인 김치몽(金致夢, 1857-1940)은 1896년 자신의 집에서 두 가정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정기 집회의 시작이었고, 후일 영도교회(현재의 영도제일교회)의 시원이 된다. 설립자 김치몽은 남포동에 거주했는데, 이미 부산내륙에는 교회가 있으니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나룻배를 타고 절영섬 영도로 왔고, 영도에 정주하게 된다. 이곳에서 전도하는 중에 믿는 자가 생겨 이들 두 가정과 함께 공식적인 예배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영도에서의 첫 개신교회인 지금의 영도제일교회의 기원이 된 것이다. 그 동안 이 교회는 '영도교회', '영선동 교회', '영선정 교회',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 1953년부터는 지금의 '제일영도교회'로 불리게 되었다.

72) 대한 천리교 원남성교회, 천리교 안내문서. 천리교의 신앙대상인 어버이신은 세계와 인간을 창조한 신이며, 태초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양기생활을 시켜 신도와 함께 즐기려는 신인공락을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본다. 또 인간의 양기생활이란 즐겁고 명량한 생활인데, 이것은 신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사욕을 버리고 남을 도움으로써 이 세상에 양기화락의 평화세계가 건설된다고 믿는다.

73) 원불교의 기본 원리는 우주 만유는 다 법신불, 일원상이 상징하는 진리의 화현이므로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그 일에 불공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선

겪던 시기 전라남도 영광에서 26살의 한 청년의 깨달음으로 비롯되었다. 통일교는 1954년 문선명에 의해 창립되었고 금세기가 직면한 세기말적인 위기를 비롯한 모든 난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단 종파를 영도에 1개소가 있다.

## 제 2 절 제3영도교회 주변 교회의 일반적 현황

앞 절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영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도서지역이면서, 군사적으로나 해운항만 분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영도는 패총의 유적지를 보면서 석기시대부터 인간이 존재한 흔적과 함께 일찍이 외국인들이 머문 흔적도 가지고 있는 영도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의 상황은 영도를 그냥 두지 않고 변화시켰다. 영도대교와 부산대교를 통해서 도서지방의 흔적은 사라지고 부산중심지와 가까운 지리적 여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해양수산업의 몰락과 증소형 선박건조업체들의 탈영도 현상으로 영도의 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영도의 경제적 상황도 영도의 인구 이동을 가져와 매해 4000-5000명의 인구감소 기록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열악한 도로사정과 서민 주택의 건립으로 인한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학군도 좋지 못하여 영도구에 인문계 고교3개(남2, 여1)로 인한 교육환경도 탈영도의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모든 생활여건은 자연히 교회에도 반영되고 있다.

### 1. 교단과 교회현황

영도에는 모든 교파들의 교회들이 다 들어와 있는 실정이고 통일교와 남묘호랜지교와 천리교 등의 이단, 이교들이 비교적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도서지방의 해양문화영향으로 미신적 영향이 교회 안에도 더러 남아 있다. 한국전체의 모습처럼 영도에도 장로교가 절대 우세한 실정이다. 영도에는 전 교파 모임인 “영도기독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 등록된 교회는 49개이다.<sup>74)</sup>

---

공부를 하는 불법을 믿는 것이 곧 불법을 실행하는 것이라 한다. 즉 원불교의 교리체계를 살펴보면 일원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제성의 심인이요, 일전 중생의 본성이라고 본다.

## 가. 장로교

영도지역 연합회소속 총 49개중 33개는 장로교회이다. 영도지역의 교회역사가 깊은 것은 제일영도교회의 영향력이 컸다고 본다. 여기서 제2, 제3, 제4교회가 분리 개척되었고, 제5영도교회는 결정적 도움을 주어서 설립하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8교회까지 명칭을 사요하고 있는 중이다. 이 중에서 고신측이 제일 많고, 통합, 합동 순이다.

첫째, 고신측 교회(30.6퍼센트)는 제1영도교회를 모교회로 하여서 지금 총 14교회가 세워져 있다. 모두 당회가 구성된 조직 교회이다. 둘째, 합동(10.2퍼센트)은 동삼교회에서 몇 교회가 분리 개척되어 오고 있다. 특이한 것은 동삼 제일 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로 간판을 바꾼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 본부가 합동 측에 속했다가 이단 시비로 교단을 떠나 전도총회란 교단을 만들었다. 셋째, 통합(16.3퍼센트)은 8개 교회로 전체의 약 16.3퍼센트에 해당한다. 6.25때 피난 온 이북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영도교회를 위시하여 영도중앙, 효성 교회 등으로 비교적 영도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 실정이다. 영도중앙교회가 교회당 건축 이후 괄목 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넷째, 감리교(6.1퍼센트)는 예수교 감리교와 기독교 감리교로 나누어져 있지만 영도에는 감리교의 영향력은 극히 미약하다. 다섯째, 성결교(8.16퍼센트)는 영도성결교회가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장하고 있으나 교회 수는 4개 처소에 8.2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여섯째, 침례교(12.2퍼센트)는 교단의 특성상 여기저기 개척함으로 인하여 영진침례교회와 영선 침례교회를 중심으로 6개 교회로 12.2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일곱째, 기타(6.1퍼센트) 재건파교회와 한국총공회(일명:백파교회)로서 그리스도교회(1), 사도신양교회(1), 순복음교회(1)가 있다. 영도에 재건파 교회가 3개 처인데 주로 청학동과 동삼동에 있고, 한국 총공회와 그리스도교, 사도신양교회가 각기 1개 처씩 위치하고 있다. 모두 교세는 미미한 상태이다.

영도지역에 대한 설문지에 의한 조사 결과는 49교회의 28개 절반 정도만 회수되었지만 근소교단이나 비슷한 지역과 문화를 가졌다고 보면 거의 정확한 조사가 되었

74) 이 자료는 본 논문을 위해 조사한 자료이다.(2004년 2월 중 실시) 장로교(33), 감리교(3), 성결교(4), 침례회(6), 기타(3)이다. 이러한 수치를 다시 보면 각각 63.2퍼센트, 6.1퍼센트, 8.1퍼센트, 12.2퍼센트, 6.1퍼센트이다.

다고 본다. 설문지 9번이 과거 10년 동안 귀 교회의 주일 출석성도들의 수가 계속 증가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교회가 14개 처이고, “아니요” 라고 대답한 교회가 13개 처소였다. 주일학교까지 포함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영도에서 규모가 큰 교회들이 침체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특별히 고신 교단은 4개 교회가 통폐합<sup>75)</sup>되거나 아예 폐쇄되었다(9영도, 태종로, 예복, 산성).

## 2. 영도지역 교회의 정체 현황

영도구청의 종교인구를 보면 영도구민 총 인구가 약 17만 2천여 명 된다. 그중에서 기독교인구수가 17, 826명이다. 따라서 약 10.3퍼센트 정도이다. 이는 전국의 18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영도지역 교회의 정체성 원인<sup>76)</sup>은 설문지에 의하면 영도인구의 감소와 해양문화에 33.3퍼센트, 목사의 지도력과 설교에 23퍼센트, 평신도 양육, 훈련, 교육, 구제가 23퍼센트 그리고 당회와 교인들의 불화음이 20.5퍼센트로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목사자신들이 설문지에 응하였기에 목사들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본다. 그러므로 평신도 양육훈련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여기에 고질병인 불협화음은 어디나 존재한다고 본다.

성장한 교회의 조사도 목사의 설교와 목회지도력이 40퍼센트, 평신도들의 적극적 전도가 30퍼센트,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25퍼센트로 나타나 성장에는 목사의 리더십이 필연적이며, 정체성 극복을 위해서는 리더십 함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에는 리더십이 22.4퍼센트, 평신도 훈련과 양육이 38.4퍼센트, 목사의 설교(강단)는 12.8퍼센트, 교회당과 교육관 건축 등은 22.4퍼센트로 조사되는데 분석하여 보면 평신도 훈련과 양육을 통해 목사의 리더십을 함양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60.8퍼센트의 수치를 드러내고 건축이 22.4퍼센트를 더하면 81.2퍼센트가 결국 목사의 리더십에 관계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소그룹을 활성화시켜 평신도를 키우고 조직도 활성화함으로 목사의 리더십도 자연히

75) 은평교회는 태종로교회와 9영도 교회가 합동한 것이고, 그 후 예복교회와 통합되었다. 은평교회만 하더라도 2개 교회가 통폐합 되었다. 산성교회는 교회 폐쇄하였다.

76) 부록 참조.

함양하게 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설문지를 종합분석하면 목사의 리더십 함양을 통해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지역적 특성인 해양문화와 인구감소는 인간의 힘으로도 무지 해결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다수의 불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끊임없이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으로 보내 추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3영도교회 주변교회들의 진단결과가 본 교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 제 4 장

### 제3영도교회의 현황

해방이 되자 해외로 피난 나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부산항은 귀국선에서 내린 사람으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의 공산화로 인하여 북한의 청년들과 뜻있는 인사들의 가족들이 남하함으로 인하여 자연히 영도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교회도 자연히 수평 이동된 성도들의 유입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중에는 잘 믿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들이 따뜻한 남쪽을 찾다보니 영도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때까지 하나 밖에 없었던 교회는 지도자의 판단과 희생적인 결단으로 구역을 분리 개척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어떻게 3영도교회가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제3영도교회의 역사

##### 1. 교회설립동기와 배경

출석교인 1300여명에 이르는 현 제3영도교회의 역사는 아래의 단 몇 줄의 기록에서 시작한다.

影圖地區에 分 教會(傳道所)를 設置하기로 可缺하다.  
 三, 四區에 1個所 (敎人 宅) 擔當者 박상순/  
 七, 八區에 1個所 (도삼제氏 宅) 擔當者 홍종태/  
 靑鶴同에 1個所 擔當者 神學生이나 이달룡/  
 東三同에 設置하여 派送 일꾼을 고사하기로 하다.<sup>77)</sup>

<sup>77)</sup> 제일영도교회 당회록, 1949년 7월 17일자에 기록되어 있다.



제3영도교회의 모체인 제일영도교회의 당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한명동 목사<sup>78)</sup>의 증언에 의하면 주일 오전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수가 너무 많아서 교회당이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과, 영도지역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영도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한목사와 당회와 교인들의 충정이었다고 한다.<sup>79)</sup>

한 개체 교회가 아직 자체의 사정도 변변치 않은 마당에 교인들을 나누어주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제공하며,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닌 가까운 위치에 네 개의 지 교회를 동시에 설립,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3영도교회의 설립 동기는 첫째 하나님의 뜻이요, 둘째는 제1영도교회의 담임목사였던 한명동목사의 선견지명과 영도를 복음화 하려는 성도들의 거룩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sup>80)</sup>

## 2. 제3영도교회의 성장기

1949년 8월 7일 주일 오후 8시 대평동 1가 57번지 송명숙 집 사택(사위 조삼재 변호사택)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sup>81)</sup> 첫 예배 이후 당분간 주일 낮 예배는 제일영도교회당에서 드리는 대신 주일 밤 예배와 수요 밤 예배는 임시 기도소(송명숙 집사택)에서 드리면서 예배 처소의 마련이 급선무임을 공감하고, 9월 14일 수요 예배 후 건축기금을 위한 월정 헌금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해방이후 성도들의 마음

78) 한명동 목사는 남교회의 개척과 고려신학교, 학생신앙운동(S.F.C)의 산파역, 노회와 총회에서 활동 등 고신 교단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다.

79) 제3영도교회 당회록 1권 (1954-1972), 서문, 1-2. 그 당시 제일영도교회의 당회장인 한명동목사의 결정에는 제3영도교회를 개척하도록 기도하던 성도들의 숨은 기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10만 영도인구에 5백명 모이는 교회당 하나밖에 없음은 진실로 후일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사실임을 느껴 1948년 봄부터 分敎會 설치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 왔다”고 기록한다. 여기서 밝힌 것처럼 복음전파와 영혼구령을 위해서 교회당을 분리 개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여 흩어졌던 것처럼 제3영도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 이미 발생하였던 것이다.

80)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은 영도지역에서 첫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교인수가 많아서 분리 개척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이후 제일영도교회는 제2영도교회, 제3영도교회, 제4영도교회, 제5영도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데 인력과 재정적인 후원을 아낌없이 하였다.

81) 제3영도교회 당회록 1권 (1954-1972), 서문, 1-2.

속에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가득차 있었던 것 같다. 약 1개월 후인 10월 중순 정식으로 건축 현금을 작성하였는데 작성 총액은 약 이십 여 만원이었다. 그러다 현재 남항동 2가 46번지의 대지가 물망에 오르게 되었다. 결국, 그 해 3월 17일 계약한 42만원 전액을 지불하고 당일에 측량기사를 불러 198평 분할 측량과 아울러 소유권 명의 변경까지 다 마쳤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대지를 구입하고 즉시 당시 사역자였던 박상순 전도사를 중심으로 건축 위원회를 조직한 후, 교회당 건축 준비에 들어갔다. 건축 위원회는 현재 예배당 본관 자리에 45평 규모의 단층 목조 예배당을 설계하고 1950년 6월 1일 박손혁 목사(당시 제3영도교회 당회장)의 사회로 기공예배를 드렸다. 당일 시작된 공사가 기초공사가 겨우 끝나자마자 6월 25일 주일 새벽 이북 괴뢰군의 불법 남침이 시작되었다. 2개월 후 8월 15일을 기하여 북한 괴뢰군은 파죽지세로 마산 근방까지 물려왔다. 연합군이 한국을 포기한다는 소문까지 나돌던 그 급박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교우들은 “교회당을 세우자. 세우다가 교회당 주 초석 아래에서 죽자”라는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초공사만 해둔 45평은 보류하고 지금의 사찰 사택 터에 25평의 가설 교회당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재료 구입난으로 갖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비록 영성한 판자집 건물일망정 드디어 완공하고 10월 8일 가설 교회당 입당 예배<sup>82)</sup>를 드리게 되었다.

가설 교회당 입당의 기쁨도 잠시, 42명의 교우들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1년 6개월 만인 1951년 초에는 4배인 160명으로 비약적인 교인수의 증가가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의 유입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전도 열정이 어떠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하겠다. 1951년 2월 18일 주일 임시 제직회에서 가설 교회당을 증축하기로 결의하였다.<sup>83)</sup> 그리고 바로 1주일간 아침저녁으로 특별 준비 기도회를 계속하던 중 차라리 가설 교회당의 증축이 아니라 기초공사만 하고 보류해둔 본 교회당 45평을 신축하기로 재결의 하였다. 3월 23일, 동란으로 중지되었던 45평의 본 교회당 건축공사가 총 공사비 1500만원의 예산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착공 불과 두 달 후인 6월 2일 주일에는 신축중인 교회당 안에서 감격스러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82) 제3영도교회 50년사, 2-4, 30-33, 박손혁 목사의 사회로 그 당시 신학교 교장이던 박윤선 목사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한 후 “교회 생활의 기초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83) 제3영도교회 당회록, 1951년 2월 18일자.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는 다시 중단되었다.

다음해 공사비 부채와 추가 건축비를 재 헌금하고, 미진한 천정 공사를 마무리 지으니 7월 20일이었다. 총공사비 1700만원이 소요된 이 본 교회당 건축에는, 50년 6월부터 실로 파란만장한 격동의 25개월이 소요되었으니 바로 6.25 동란과 거의 시기를 같이한 것이다. 1952년 7월 27일 다시 온 성도들이 모여 감격스러운 성전 준공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건축 기간 중 우리 교회가 부산 제3영도교회로 정식으로 노회의 인가를 받게 되었으며, 박상순 전도사가 목사로 안수 받게 되었다.

그 당시 당회록을 보면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유년주일학교는 가설 교회당에서 본격적으로 예배와 교육을 시작한 이후 유년 주일학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니, 12월3일자 통계에는 신앙가정 아동 85명, 불신자 아동 80명 합하여, 165명으로 기록하고 있다.<sup>84)</sup>

소년회(현 중고등부)는 14세-18세 연령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매 금요일 밤에 모여 학생예배와 공과공부를 하였다. 그러다가 52년7월부터는 명칭을 복음학생회로 변경하고, 전국학생신앙운동(S.F.C)<sup>85)</sup>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54년 첫 주(1.3)부터는 모임을 매 토요일 밤으로 변경하였다.<sup>86)</sup> 장년부는 1951년 4월22일자 예배일지에 장년부의 공과공부 시간<sup>87)</sup>이 주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다.<sup>88)</sup>

찬양대는 51년도 직원으로 찬양대원들이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설 예배당이 완공되어 1950년 10월15일부터 대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가 본 교회에서 드려지게 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리라고 짐작된다.<sup>89)</sup> 구역제도는 처음에는 모 교회의 구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차츰 확대 개편을 하게 되었다. 1950년도 연초에 교인 가정수가 총 54가정으로 4구역으로 나누었으나 동년 5월27일에는 구역을 5구역으로 확대

84) 제3영도교회 당회록, 12월: 제3영도교회 주보모음 12월 3일자 통계.

85) 제1영도교회에서 모닥불 기도회로 시작하여 6. 25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던 모임에서 발생한 자생적 선교단체이다.

86) 주보모음, 1954년 1월 3일자 주보 참조.

87) 성경공부는 1시간 동안 하였다. 소위 대예배는 12시 30분 이후에 드렸다고 본다. 이때의 성경공부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고 본다.

88) 예배일지 1951년 4월 22일자 참조. 즉 유년주일학교가 마친 시간부터 대예배가 시작되는 사이에 장년들이 모여 분반하여 매주일 성경공부를 하였다는 것에서 그 열심을 짐작할 수 있다.

89)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당 건축과 찬양대는 지금보다도 더 크게 많은 비중이 있었다.

하였다.<sup>90)</sup> 청년면려회는 교회당 본당의 신축 문제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1951년 3월 4일 주일, 본 교회 청년면려회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 참석 인원은 남자회원 10명, 여자회원 16명이었다. 부인 전도회는 청년 면려회의 창립과 비슷한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1951년 5월 27일 주일에 월례회가 모인 기록이 교회 예배일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sup>91)</sup> 남전도회는 1954년 5월 23일 조직되었는데, 처음 조직의 동기는 외지 전도인의 파송을 주관할 부서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56년까지 3년간 지속된 남전도회는 대부분의 회원이 청년면려회와 중복이 되어 폐지되었다가 20여년 후인 1979년 2월 25일에 다시 재조직되었다.

#### 가. 고신대학 부속 복음병원과 제3영도 교회

본 교회 초창기에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복음병원(고신의료원)의 처음 진료가 본 교회당 별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별관이란 바로 25평 가설교회당 건물을 말한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1951년 6월 2일부터는 건축 중이던 본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이 별관의 일부는 박상순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0평 정도가 비어 있던 시점이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복음병원<sup>92)</sup>이 시작된 것이다.<sup>93)</sup> 1951년 6월 21일부터 제3영도교회의 초라한 목조 별관 건물 입구에는 초췌한 모습의 환자들이 열을 지어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건물 안에는 30대 후

90) 제3영도교회 당회록 5월 27일자; 예배일지 및 주보모음 5월호 참조.

91) 제3영도교회 예배일지, 1951년 5월 27일자 참조. 초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구성을 알 수 없으나 초창기 교회 건축시에 여러 가지 봉사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92) 제3영도교회 50년사, 복음병원의 산파역을 한 사람은 청년 전영창이었다. 그는 후일 거창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참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중, 조국의 6.25 동란 소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급거 귀국하였다. 그는 김상도, 박손혁 목사와 함께 고려파 교단을 발판으로 하여 대한기독교 경남구제회를 조직하였다. 이 경남구제회란 전란 속에 발생한 환자들과 극빈자 및 영세 피란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유엔(UN) 민간원조처의 구호 담당자 넬슨 박사(Dr. Nelson)의 도움과 부산의 제3육군병원에 근무하던 장기려의 동참으로 복음진료소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복음병원이 탄생한 것이다.

93) 초창기부터 제3영도교회는 자치적인 부분과 구제와 같은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 상당히 헌신적이었고, 복음병원과 같은 일들을 보면서 더욱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게 교회 밖 기관을 도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반의 젊은 의사 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이 젊은 의사가 후일에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로 칭송받게 된 장기려였다.

진료소를 개설한 지 약 6개월 후인 동년 12월 20일에 현재의 영선초등학교 옆 빈터에 군용 천막 3동을 설치하고 이전할 때까지 진료는 계속되었다. 그 동안 제3영도교회의 마당은 항상 환자들과 그 가족들로 북적대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며 의사의 꿈을 키우던 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박영훈 박사이다. 그는 제일영도교회 학생회 출신으로 본 교회로 옮겨와서 초대 찬양대 지휘를 맡았으며, 주일학교 교사 및 청년회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분이다. 그는 복음병원 초대 원장이던 장기려에 이어 2대 원장으로 복음병원(고신의료원)을 오늘날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으로 키운 분이다. 불과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고신 교단 고신대학교의 복음병원의 진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별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교세에 비하여 장익용 장로 한 분으로는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끼던 중, 1955년 9월 1일 부산 남교회당에서 개최된 제63회 경남노회에서 장로 한 분 증원 청원을 허락 받았다. 11월 20일 제4회 공동의회에서 투표한 결과 정용수<sup>94)</sup> 집사가 피선되었다.<sup>95)</sup> 마침 1956년 8월 12일에 장익용 장로가 사임하므로 일시적이거나 당회의 기능이 정지되었으나, 그해 12월 17일 정용수 집사가 본 교회 2대 장로로 장립을 하므로 당회의 기능이 회복되었다.

#### 나. 초대 목사 박상순 목사 위임식과 장로증원

1956년 2월20일 주일 예배 후 제 16회 공동의회가 열려 박상순 목사<sup>96)</sup> 위임목사로의 투표가 있었고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어 10개월 후인 동년 12월17일 위임식을

94) 제2대 정용수(1956.12.17-62.12.30) 장로. 정용수 장로는 1909년 2월 19일 부산 동래에서 정일호(부)와 윤분임(모)의 믿음의 가정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동래 수안교회에서 자라났다. 1949년에는 이약신 목사와 더불어 진해 남부교회를 설립하였고, 부산 남중학교로 전근하게 됨에 따라 본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이후 부산 중앙교회로 이명 해 가기까지 6년 동안 당회 서기로서 소임을 충실히 다하였다. 특히 이 분의 필사체가 가히 명필로서 초창기 당회록을 비롯한 제 공부에 그의 멋진 글씨가 남아있다.

95) 제4회 공동의회록, 1955년 11월 20일.

96) 박상순 목사는 전도사로서 본교회가 분리개척 할 당시부터 시무하였던 분이며 성자같은 생활을 하여 본 교회에 깊은 신앙적 감화력을 끼치신 분이시다.

거행하게 되었다. 초대 장익용 장로의 사임과 2대 정용수 장로의 취임으로 한 분의 장로밖에 없었던 본 교회에 드디어 두 분의 시무 장로를 맞게 되었으니 즉 3대 강기옥 장로의 취임이었다. 1958년 1월11일 제 10회 공동의회에서 투표한 결과 강기옥, 구정태 두 집사가 각각 피택되었지만, 구정태 집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장립을 사양하므로 강기옥 장로만 취임을 하게 되었다.<sup>97)</sup>

#### 다. 고신으로 환원한 제3영도교회와 후유증

고신측을 축출(1953년)한 한국 장로교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찬반을 표면적 이유로 다시 승동측(현 합동측)과 연동측(현 통합측)으로 갈라서게 되고 말았다. 그후 고신측과 승동측의 합동이 추진되어 1960년 12월13일 서울 성동교회에서 역사적인 합동 총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합동은 곧 다시 분열의 불씨를 안고 있었으니, 동등한 입장에서 합동한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교세의 우열에 따라 차츰 고신측이 승동측에 흡수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단적인 예가 고려신학교의 폐교 위기였다. 그리하여 구 부산노회 목사를 중심으로 고신으로의 환원 운동이 일어났고, 그 발기회장으로 본 교회 박상순 목사가 추대되었다. 이 합동과 환원의 와중에서 고신측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와 더불어 본래 고려파에 속해있던 3분의1에 해당하는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고려파로 되돌아오지 않고 합동 총회에 잔류하였다. 또한 본 교회도 피해가 없을 수 없었으니 당회서기인 정용수 장로가 1962년 12월30일 부로 시무 사임을 표하고 그 후 중앙교회로 이명하게 된 것도 상당 부분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런 아픔은 고신 교단과 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순환되고 있다.

#### 라. 제2의 예배당 공사와 교역자 변화

1964년 11월 예배당 건축 5개년을 계획하고 기성회를 조직한 후 65년 2월 제직

97) 제75회 경남노회노회록 (고신, 승동측 합동노회) 참조. 1962년 9월4일 부산 중앙교회에서 열렸던 경남노회에서 장로 2인 증원을 허락받아 10월14일 제 16회 공동의회에서 장로 피택투표를 한 결과 한행동, 김차석 집사가 각각 피선되었다. 한행동 집사는 이미 1954년에도 피선된 바 있었으므로 8년여 만에 다시 피택된 것이다.

회에서 5개년 세부 계획을 수립한 이후 예배당 신축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 왔다.<sup>98)</sup>

1972년 6월 중순 목사님은 사임과 동시에 보름 이내로 캐나다로 출국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장로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으니 떠날 때가 되었다는 지극히 목자로서의 선한 판단 때문이었다. 박상순 목사의 후임으로 당장 그 다음 주일부터 제일영도교회 부목사로 있던 박요섭 목사가 대예배의 말씀을 계속 맡았고, 12월 12일 위임식과 교회헌당식을 가졌다. 박요섭 목사는 적극적으로 안수집사를 세워 궁극적으로는 제직회를 안수집사 중심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패기 넘치는 박요섭 목사는 불미한 일로 인하여 사임을 하게 되었다.<sup>99)</sup>

### 3. 제3영도교회의 시련기(1976-1984)<sup>100)</sup>

1978년 9월 17일 임시 당회에서 동향 교회에 시무중인 문희봉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문목사 청빙을 위한 제38회 공동의회<sup>101)</sup>에서 신증을 기하자는 회중의 뜻에 따라 임시 목사로 청빙할 것이 가결되었다. 또한 42회 부산 노회에서 청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동의를 거부당하므로 제 39회 공동의회에서 문희봉 목사 임시 목사 청빙을 재투표하여 가결하고, 결국 노회의 승인을 받았다.<sup>102)</sup>

98) 대지 100평에 연건평 266.6평 준 3층을 포함한 2층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3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은 평범한 건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건축 당시에는 부산에서는 굴지의 최신 교회당 건물이었다. 1층(97평)은 교육관이었고, 2층(100평)은 준 3층(35평)을 포함하여 예배실이며 성전전면으로는 8층 높이에 해당하는 종탑이 있고, 종탑 4층(종탑 각층 7.4평)은 오랫동안 목사님의 집무실 겸 당회실로 사용되었다.

99) 1978년 2월23일 박요섭 목사는 퇴임하였다. 박요섭 목사는 유명한 부흥사로 박력있고 패기 넘치는 설교자로 소문나 있었다. 박 목사는 전도에 특별히 노력하여서 전도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세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낮 예배 집회인원이 400명을 넘어서고 77년 17구역에 450명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그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던 죄에 유혹받아 넘어지고 말았다. 이 사건은 교회 안으로도 교역자와 평신도간의 갈등과 불신, 그리고 허탈감 등 온갖 사탄의 시험에 유린당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교회는 큰 시련을 겪었다.

100) 시련기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제2대 박요섭 목사의 사건으로 시작된 교인과 목사와의 신뢰추락으로부터 제4대 배광호 목사의 부임까지를 시련기라 본다.

101) 제38회 공동의회는 78년 9월 24일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박요섭 목사의 퇴임 이후 문희봉 목사의 침착한 사역으로 교회가 평상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교회의 무겁고 허탈한 분위기도 또한 사실이었다. 이즈음 청년회의 젊은 집사들 사이에는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자성의 기운이 짙고 있었다. 즉, 우리 교회가 지난날 너무 교회 안으로만 안주하고 있어 물을 끊임없이 흘러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인 물이 썩게 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집회가 개최되었고 이 집회를 시점으로 청년 집사들 사이에는 단순한 청년회원의 수준을 넘어서 동지적 연대감이 형성되고, 이로부터 교회의 공적 선교와는 별개의 청년선교회가 태동케 되었다. 그리고 이 선교회를 통해 첫 개척교회라 할 수 있는 양남읍천 교회가 개척되었다.<sup>103)</sup>

그리고 1981년 3월 10일 산돌 어린이선교원이 개원하게 되었다. 개원 준비를 위하여 선교원장인 문희봉 목사가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하여 연수를 받고, 착실히 준비하여 개원하게 된 것이다.

이즈음 교회가 이렇게 선교와 전도의 열기로 뜨거웠던 반면 또 원치 않은 소요 사태도 있었으니 소위 이영미 안수기도사건이었다. 불건전 무리들은 교리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겉으로 들어나는 특징이, 기성교인을 상대로 하며,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기성교회를 비하하며,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는 등 여러 특징이 있다. 이들은 결국 당사자들의 당회에 대한 순종으로 차츰 수습되어 갔으나 교회에 많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체계적인 성경공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2년 3월 첫 주 수요일부터 전 교인을 상대로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희봉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고, 문희봉 목사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사임권고 건의서'를 제출함으로 표면화되었다.<sup>104)</sup> 이러한 건의서는 1983년 2월 당회 앞으로 11인의 청년집사 연명으로 담임목

102) 제3영도교회 50년사, 제3영도교회의 시련기 참조.

103) 제3영도교회 당회록 ; 제3영도교회 50년사 (미간행도서) 참조. 또 이때에, 교회 30주년 기념 총동원 주일 행사와 권사 임직 및 취임식, 그리고 요람도 발간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 청년선교회가 삼영선교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고, 제7영도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그 외에 인도네시아, 포항에 개척교회를 주도적으로 도왔다.

104) 이러한 과정 가운데 목사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청년교인들의 행동과 이러한 것에 반응하는 목사의 태도와 변명은 서로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또한 이



사 사임 권고 건의서가 제출되었다.<sup>105)</sup> 그 내용은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담임목사에 대해 건의한 사항들 즉, 담임목사의 설교가 부실하며 그 원인이 설교 준비의 부족에 기인함으로 취미활동(사진촬영) 등의 잦은 외출을 자제하고 설교 준비에 전념해 달라고 하였으나 건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노력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 건의서는 교회에 큰 파란을 불렀고, 문 목사는 잠시 기도원으로 떠나 있다가 돌아온 후, 강경한 자세가 사건을 더욱 확대시키고야 말았다.<sup>106)</sup> 그리고 청년집사들을 문책하였다. 사실 그들은 각성 정도만 원했지만 문목사가 과민한 반응을 보임으로 오히려 사임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상황을 초래했다.<sup>107)</sup> 결국 1983년 7월 26일 본 교회를 사임 하였다.<sup>108)</sup> 78년 초 박요섭 목사의 퇴임 이후 1년 동안 담임목사의 부재로 말미암아 교인의 증가세가 꺾이고 400명 선을 유지하던 것이 문희봉 목사 시대 전반을 통하여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 4. 제3영도교회의 회복기

불편한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1983년 7월 26일 결국 문 목사가 증부산 노회의 세광교회로 이동하자, 마땅히 맡아줄 교역자가 없었다. 그리고 즉각 청년회 주

러한 사건으로 피해자 당사자들과 이 사건을 아는 성도들이 입은 상처들은 얼마나 컸겠는가. 이 사건은 후배 목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청년들에게 미친 정서적인 영향이 교회의 목사와 교인간의 불신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뻔한 일이다.

105) 이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설교의 부실문제였다. 이점은 한국교회가 목사를 배격하는데 단골 메뉴이다. 물론 목사는 설교를 잘 해야 되지만 이러한 건의서 자체는 당사자간에 영적유익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걸친 목사와 교인들간의 불미스러운 일은 결국 교회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것은 교세를 보면 증명이 된다.

106) 하타무라 요타노,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 정택상 역 (서울: 세종석, 2001), 94-95. 하타무라 요타노는 그의 책에서 어떤 중대한 실수에는 29가지의 경미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다시 300여개의 잠재요인이 들어 있다고 한다.

107) 제3영도교회 50년사, 151. 이때 청년들은 “각성정도만 외쳤지만 문 목사가 과민 반응을 보임으로 오히려 사임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한다.

108) 이러한 모습은 목사와 성도간의 심각한 갈등을 표면화 시켰고 이로 인해 교회는 깊은 시험에 빠진 것이다. 한국교리사가 증명하듯이 교인이 목사를 불신임하였을 때, 그리고 목사가 교인을 미워할 때, 교회는 크나큰 상처를 입고 많은 양떼들은 갈팡질팡하게 되며, 교인들의 영성은 피폐해 지는 것이다.

관으로 2주간의 밤 9시 기도회를 갖고, 어쨌든 담임 목사를 배척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실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담임 목사 청빙은 해를 넘겼고, 그러던 중 울산의 부목사로 시무중이던 배광호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제57회 공동의회가 열려 압도적인 지지로 청빙을 가결하였다. 이때 배광호 목사는 32세로 너무 젊고, 단독 목회의 경험도 없다는 염려도 없지 않았으나 젊은 패기와 열정을 기대하며 2월 21일 배광호 목사가 부임하자 제3영도교회에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온 성도와 목사가 모처럼 하나가 되어 교회의 성장을 예견케하였다.

1984년 4월 12일 제4대 목사가 위임식을 거행하고 난뒤 제3영도교회는 다시금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4대목사는 각종 기도회를 통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 목사로 세워졌다. 담임목사의 헌신적인 기도와 열정으로 인해, 차츰 성도들이 목사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랐고, 온 교회가 기도로 큰 힘을 얻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이 드나들게 되었고, 계속 전도폭발과 제자반 등의 성경공부로 조직을 다양화하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질과 양의 성장을 거듭하였다.

제3영도교회 50년사 가운데 제4대 때가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회집수도 많아졌고, 교회의 재정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각종 훈련과 양육체계도 세워졌던 것이다. 그리고 목사로서 대접과 존경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1984년 10월 초 본교회의 대학부의 회보에서 고신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모 회원이 발표한 글이 교회에 큰 물의를 불러왔다. 과격한 욕을 하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선자로 공격하고 목사에게도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며 빈정거리는 내용이였다. 이런 일이 있는 후 대학부는 해산되었다. 이 일로 인해 중고등부 회장을 거치며 착실하게 자란 미래의 동량들은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이 되었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비극이 되었고, 오늘날 본 교회에 인재의 부족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버렸다.<sup>109)</sup>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커가고 있었다. 전교인 수련회, 중고등부집회, 청년가족 수련회 등등 많은 것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

109) 그 당시 이러한 인재를 다시 잘 양육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더라면 지금의 어려움은 많이 감소되었을 것이다. 가장 열심히고, 헌신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 버렸다. 그들 중에는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있었다.

## 5. 제3영도교회의 현재의 모습

제4대 목사의 유학 후 귀국하자 교세가 성장하여 이듬해 93년도에는 1,000명을 넘어서 최고로 모인 수는 1,237명(93년 7월 첫째 주일 통계)을 기록하다가 4대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교세는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렸고, 이때 교인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히 컸다고 본다. 믿었던 목사였고, 3년 동안 유학을 시켰으니 평생 같이 교회를 섬길 줄 알았는데 그만 이동하게 됨으로 인한 교인들간의 상처와 이동하는 목사를 따라 교회를 옮기는 자들, 담임목사의 시무지 이동을 통해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는 자들, 시험에 빠져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해 교세는 850명 선에 이르렀다. 제5대 목사가 1994년 9월 1일부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렇다할만한 수적 성장에 대한 공적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였기에 결국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있었던 일들도 간단히 요약하자면 교육관 부지구입과 교육관 건축을 들 수 있다. 부임하자마자 교육위원회의 요구사항이 교육관건축이란 사실을 알고, 교회당과 교육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교육관을 먼저 건축하고 후에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430평을 구입하고<sup>110)</sup> 1260평의 교육관을 건축하였다.<sup>111)</sup> 이로 인하여 교육부서들과 산돌어린이학교<sup>112)</sup>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가졌다.

또한 영어주일학교의 개설을 들 수 있다.<sup>113)</sup> 미래는 글로벌시대로 다중 언어 사용시대임을 감안하고, 어린이 학교의 특성화를 위해서 영어전문학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초단계로 어린이 영어주일학교를 개설한 것이다. 교회 50주년 기념행사를 치루었고, 교회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해외에는 필리핀 푸마게티 지방에 알림선교교회를 개척하고<sup>114)</sup>, 국내적으로는 경산 하양에 하양삼영교회를 개척하였다.<sup>115)</sup>

110) 1997.7.6. 대지252평 구입매매체결, 2001. 12. 교육관 대지 148평 구입, 30평 구입 교육관 대지 구입 완료, 총 430평 구입완료

111) 2001년 9월 24일 교육관 기공예배, 2002년 6월 9일 교육관 준공감사예배 드림

112) 2002. 11. 24. 산돌어린이 선교원에서 산돌어린이 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1981년 3월 10일 산돌선교원으로 개원하여 21년이 넘도록 산돌선교원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113) 2002년 3월 3일 영어주일교 교사 제1기생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7월 7일 영어주일학교를 시작했다

114) 필리핀 푸마게티 알림선교교회는 1997년 9월 15일 기공식 예배를 드렸고 2000년 3월 2일

교회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태신자 운동 즉, 다 함께 가는 행복의 길 잔치라고 하여 매해 전도행사를 가져왔으며, 제자반 훈련을 마친 자들에게 사역자반을 개설하여 훈련시켰고, 2002년도에는 평신도 지도반을 만들어서 2004년도에 3명을 수료시켰다. 동시에 매년 하반기에는 잃은양 찾기 운동 즉 다함께 가는 소망의 길 잔치를 열어서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을 찾고 있다.

예배 현대화를 위한 조치로 영상시스템을 구비하여 방송위원회를 발족시켜 봉사케 하고<sup>116)</sup>, 전교인들의 가정을 치유하고 깨어지는 상처 입은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 전인가족연구소를 교육관에 유치하였다.<sup>117)</sup>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숨고르기를 한 것 같았고, 도약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교인들은 2차례 결친 3년짜리 헌금에 참여함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많았다고 생각한다. 교육관 건축 완공 후 빛을 갹기 위한 수고도 남아 있고 교회당 건축을 위한 연보도 한차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은 보면 균형적인 교회성장을 가졌다고 자단하고 위안을 받기도 한다.

## 6. 요약

1949년 8월 7일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제3영도교회는 영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분리 개척된 교회로써 초창기부터 자립적 정신을 가졌고, 6.25 동란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세로 예배당을 건축한 아름다운 역사를 지닌 교회이다. 초창기의 뜨거운 신앙이 세월 속에 융해되어 가면서 신앙도 식어서 2대 목사와 3대 목사의 각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원치 아니하게 교회를 이동한 사건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또다시 회복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다가 제4대 담임목사가 이동하게 되는 시련을 만나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지만 시간은 상처를 잊게 하는 법이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의 교회 정체성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었다.

---

입당 및 현당예배를 드렸다

115) 하양삼영교회, 2000년, 1월 27일 설립예배 드림, 대지 400평, 하천부지 400평 도합 800평 부지를 구입하고 2003년 10월부터 완전자립하였다.

116) 2002년 1월 27일 본당에 영상예배시스템을 설치하고 첫 예배를 드렸다.

117) 2002년 9월 15일 교육관 3층 303호실을 연구실로 305호실을 상담실로 사용케 허락하였다.

즉 교인들의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저하되고 불신감이 조성되어 있으며, 목사는 형편에 의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런 경향은 목회함에 있어서 대단히 힘든 상태를 만들어낸다. 동시에 일부이지만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을 평신도 지도자가 하는 경우도 일어나는 것은 전임교역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생겨난 부정적인 후유증이라고 본다. 동시에 담임목사와의 소용돌이 속에 주체세력을 형성하던 세력은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새 가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갈등과 상처 등의 후유증들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도약을 위하여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제 5 장

## 제3영도교회의 정체성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1대 목사의 공헌은 교회의 초석을 반석 위에다 놓았다고 볼 때 제 2대 목사는 수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제 2대 목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지만 큰 변동이 없었다. 제 3대 목사 때는 첫 개척교회인 읍천교회(전 나아제일교회), 개척파송예배(고 임상률 목사)를 가졌는데(1979. 7. 17), 특이한 것은 교회의 공식 기관이 아닌 청년 선교회란 단체의 역할이었다.<sup>118)</sup> 이러한 청년선교회는 그 이후 문희봉 목사 사임 권고안을 제출하는 당사자들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활력소 역할을 하였지만 결국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 그 이후 교역자와 교인들의 사이는 원만치 못하였고 결국 이 일로 인해 3대 목사는 사임하였다. 4대 목사에 이르러 제 3영도교회는 괄목할 만한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4대 목사도 교회당 부지이전문제로 갈등을 일으켜 결국 이동함으로 또 다시 교회는 깊은 침체에 빠졌고 여기서 영도지역의 경제기반 몰락, 인구 이동 및 감소로 말미암아 교회는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든 것이다.

## 제 1 절 제3영도교회의 현주소

4대 목사의 이동 이후 8개월 동안 일부 교인들도 전임교역자를 따라 갔고, 일부 교인들은 타 교회 즉,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게 되어 자연히 숫자는 감소하였다. 교인들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수면 속으로 가라앉아 남아있는데 특히 교회당 이전문제로 인한 갈등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양금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교역자의 부도덕성

118) 미발행 제3영도교회 50년사, 134.

과 교역자의 잦은 이동, 교인들간의 갈등 등으로 교회는 10여 년 동안 정체하였다.

### 1. 연도별 교회 성장(1995-2003)

본 연구자가 제3영도교회에 부임한 이듬해 시기인 1995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월별평균 출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9)</sup>.

<표 2> 숫자로 본 연도별 교인 수

| 달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2000년  | 01년    | 02년    | 03년    |
|----|--------|--------|--------|--------|--------|--------|--------|--------|--------|
| 1  | 886    | 912    | 919    | 909    | 947    | 887    | 874    | 862    | 923    |
| 2  | 861    | 929    | 887    | 929    | 953    | 869    | 932    | 855    | 896    |
| 3  | 890    | 953    | 908    | 918    | 944    | 864    | 915    | 849    | 888    |
| 4  | 923    | 975    | 912    | 915    | 945    | 866    | 899    | 912    | 915    |
| 5  | 878    | 948    | 888    | 955    | 940    | 896    | 881    | 916    | 931    |
| 6  | 858    | 947    | 908    | 958    | 847    | 867    | 879    | 906    | 938    |
| 7  | 874    | 954    | 890    | 977    | 849    | 907    | 870    | 925    | 896    |
| 8  | 874    | 919    | 878    | 936    | 804    | 919    | 844    | 874    | 932    |
| 9  | 874    | 925    | 890    | 958    | 840    | 865    | 826    | 874    | 977    |
| 10 | 924    | 900    | 909    | 960    | 852    | 865    | 823    | 901    | 958    |
| 11 | 881    | 940    | 904    | 1,020  | 936    | 883    | 833    | 902    | 994    |
| 12 | 896    | 916    | 863    | 991    | 901    | 874    | 848    | 897    | 986    |
|    | 884.91 | 934.83 | 896.33 | 952.16 | 896.50 | 880.16 | 868.66 | 889.41 | 936.16 |

### 2. 표에서 나타난 정체성

<표 2>는 본 연구자가 본 교회에 부임한 다음해인 1995년부터 2003년까지(1994

119) 후보모음집 1995년부터 2003까지 통계란 참조.

년 9월에 부임) 교육부서를 제외한 주일오전 예배참석자수를 월별로 평균한 수치이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다음해인 1995년 출석평균이 884.91이었는데 2003년 출석평균은 936.16으로 약 50명 정도 성장했다. 그러나 2002년도까지는 계속 답보상태로 1996년도에 평균출석이 934.83으로 조금 성장했다가 다음해는 또 원상태로 복귀하고 그러다가 1998년도에 평균출석 952.16으로 성장했다가 2003년도까지는 원상태로 침체된 상태이다. 결국 표를 통해서 볼 때 지금까지 큰 성장 없이 소폭으로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기에 정체성 극복전략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제3영도교회의 정체원인

모든 교회의 정체요인이 대동소이하겠지만 본 교회는 55년의 역사 속에 융해되어 있었던 것이 순환되어 오다가 시대적 요인과 함께 맞물려 정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시련기에 형성된 부정적인 요소들은 오늘날까지도 성도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어 틈만 보이면 표출되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 1. 내적 원인

#### 가. 시련기에 형성된 부정적인 요소

첫째, 목사의 사역기간과 도덕성문제로 장기목회를 연구한 박운형 목사는 한국교회의 성장요인 6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 6번째가 장기목회라고 말한다.<sup>120)</sup> 박 목사에 의하면 한국 대형교회의 목사들의 재임기간은 평균 20년 이상(약 21년 4개월)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이 통계에 의하면 교회가 안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이동이 잦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일 샬러(Lyle Shaller)도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장기간 사역한다고 자동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나 2년 또는 3년마다 목회자가 바뀌는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21)</sup> 결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가

120) 박운형, 장기목회전략 (서울: 서로사랑, 1999), 22-29.

121) 오성택, 교회성장 10가지 원리를 잡아라 (서울: 엘멘, 1999), 113.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영도교회는 교회창립 55주년이 되는 현재(2004년) 본인이 5대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기간을 놓고 볼 때 그렇게 나쁜 경우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대 목사인 박요섭 목사와 3대 목사인 문희봉 목사는 사역기간이 각각 6년, 4년으로 다소 짧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를 사임할 때 수년간 교인들과 갈등을 겪다가 사임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역기간이 교회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할 것 두 가지가 이성문제와 돈 문제라고 말한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성문제는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한국교회의 정서상 성적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는 더 이상 목회를 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성적 범죄를 범한 교회의 경우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밖에 없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의 추락은 물론이거니와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서 배신감, 허탈감, 심지어 기독교 신앙에 대해 회의까지 생기는 교인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연루된 교회는 깊은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영적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sup>122)</sup>.

그런 점에서 제3영도교회도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1대 담임 목사인 박상순 목사가 사임 후 제 2대 목사인 박요섭 목사는 부임 후 탁월한 설교말씀을 통하여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으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분위기를 쇄신하므로 교회는 점점 부흥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부임한지 5년이 지났을 때는 교인수가 두 배 정도로 늘어났다<sup>123)</sup>.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이 와중에 담임목사가 여자문제에 연루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수년간의 갈등과 다툼 끝에 제2대 목사는 결국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제2대 목사의 사임으로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그 후유증은 계속해서 교회의 발목을 붙잡고 괴롭혔다. 교인들의 목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 담임목사가 교회를 사임해야 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요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여겨야 한다. 담임목사를 세우고 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22) H. B. London and Neil Wiseman, 목사 (서울: 규장, 2000), 141.

123) 제3영도교회 50년사, 107-110.

로 하실 일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문제에 부딪힐 경우 내가 혹시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조심해야 하며 그리고 진정한 성도라면 영적 지도자의 이런 문제를 두고 마치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sup>124)</sup>.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앞에 두고 특별히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2대 목사의 부도덕성 사건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평신도지도자의 신앙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목사와 교인간의 신뢰와 갈등문제로 목사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은 담임목사를 존경하며 신뢰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요, 그럴 때에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sup>125)</sup>. 제1대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그때 교회는 별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 1대 목사의 사임은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그러나 2대 목사와 3대 목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2대 목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성문제에 연루되어 교인들의 신뢰와 존경심을 상실했고 계속해서 반대하는 세력들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2대 목사는 사임하게 되었다. 2대 목사의 불행한 퇴임은 본 교회에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는데 사역자들에게는 목회적 부담감과 신뢰성에 대해서, 그리고 남아 있는 성도들에게는 목자에 대한 불신과 권위를 인정치 아니하려는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동시에 교인 상호간에 서로에 대한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치유되고 있지만 갈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오랜 탐문 끝에 문희봉 목사<sup>126)</sup>를 본 교회 3대 위임목사로 모시게 되었고<sup>127)</sup>, 부임한 해인 1979년은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교회적으로 30주년을 기념하여 경북 경주 지역에 양남 나야 제일 교회(현 읍천교회)를 설립하였고<sup>128)</sup> 30주년 기념 총동원주일행사와 권사임직 및 취임식을 거행하여 교회가 활기

124) 김청수, 목사의 적 목회의 적 (서울: 도서출판 누가, 2002), 212.

125) 현유광, 목사와 갈등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2001), 29.

126) 문희봉 목사는 합천 두무산 기슭에서 목회를 하던 가난한 목사의 7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나 가난으로 매우 고생하며 자랐다. 그러다가 1968년 고려신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127) 제3영도교회 50년사, 131-133.

128) Ibid., 135.

를 띠고 있었지만 문 목사에 대한 불신임과 갈등이 수면 밖으로 돌출되었다. 이것은 제2대 목사의 사임 후유증이라 할 수 있다. 3대 목사가 부임한지 약 5년 뒤인 1983년 2월초 당회 앞으로 11인의 청년 집사 연명으로 '담임목사 사임 권고건의서'가 제출되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 직간접으로 담임목사에 대해 건의한 사항들 즉, 담임목사의 설교가 부실하며 그 원인이 설교준비의 부족에 기인함으로써 취미활동(사진촬영)등의 잦은 외출을 자제하고 설교준비에 전념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건의서는 교회에 큰 충격과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목사와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목사가 자기의 양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목회하기가 힘들 것이다. 계속해서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갈등이 교회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로 인해 문 목사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고 결국 1983년 7월 26일 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문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젊은 교인들이 문 목사를 반대하고 강대상의 목사를 끄집어 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새 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났고, 그 일로 인해 지금까지 교회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교회침체에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나. 목사 이동으로 인한 교인갈등

어떤 교회든지 그리고 어떤 목사가 목회를 했던지 간에 담임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 교회는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본 교회도 이런 점에서 또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우선, 1대 담임목사였던 박상순 목사의 경우는 목회를 잘 하시던 중에 스스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임했기 때문에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본 교회에서는 떠나시는 박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동시에 캐나다 선교사로 파견할 것을 결정하여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환송을 받으면서 아들이 있는 캐나다로 떠나셨다. 그러나 2대 담임이었던 박요섭 목사의 사임과 교회 이동은 교회

에 큰 아픔을 주었다. 전체적으로는 목사의 영적 권위와 신뢰가 추락하였고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겼다. 또한 담임 목사를 지지하던 성도들과 반대하던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침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 3대 담임이었던 문희봉 목사의 강제적인 사임은 교회에 큰 아픔을 주었다. 부임초기부터 몇몇 젊은 집사들과 목사와 집사들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교세는 계속 정체 현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문 목사와 집사들의 갈등이 더욱 노골화되자 전도는커녕 교회 다니던 성도들도 교회에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났다. 문 목사가 사임한 후에도 후임 목사가 부임할 때까지 교회는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었다.<sup>129)</sup> 이런 가운데 젊고 패기 있는 목사가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자 교회는 안정을 찾고 부흥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교회는 400명대 머물던 교세가 많이 참석할 때는 1,200명대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제4대 목사는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4대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교회에서는 교회 처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약 만여 평의 부지(현 한국과학수사연구소)를 구입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하고 공동의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그날 밤에 긴급회동을 하여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모았다. 그 넓은 땅을 사기에는 교회의 재력이 부족하기에 그 땅도 날려버리고 지금의 교회도 날려버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교회를 옮기려고 했던 계획은 무산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옮기자는 성도들과 옮기지 말자는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목사는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결국 이 문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고 또한 일부 성도들은 목사를 따라 교회를 옮겼다는 것이다. 그 당시 출석통계를 보면 1,100여명 출석하던 교인들이 제4대 목사의 사임과 더불어 약 800명대로 감소했다.<sup>130)</sup> 이렇듯 본 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 가정이 OO교회로 이동함으로써 교회의 수적인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과거는 아름다워 보이고 익숙했던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기 마련이다.<sup>131)</sup> 특별히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

129) Ibid., 156.

130) 물론 이들 중에는 제4대 목사를 따라가지 않고 가까운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에 자기들 마음에 좀 든다 싶으면 맹목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지를 이동하게 될 때 특별히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4대 목사의 교회 이동은 전임목사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존경하였고, 이동을 원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교회당 이전이 안 되어도 함께 3영도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교인들의 소망과 목사의 비전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교인은 교인대로 심한 상처를 받았고 목사는 목사대로 상처를 받았다고 본다.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쌍방의 상처와 갈등은 교인 대 목사, 목사 대 성도들, 성도들간의 갈등과 증폭되는 분노 등으로 교회를 심한 상처를 가졌던 것이다.

#### 다. 청년 교육 한계

3. 40대의 중년 남성들이 많은 교회야말로 힘이 있고 담임목사가 목회의 포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본 교회는 40대의 중년남성들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본 교회에 왜 이렇게 중년남성들이 사라져버렸는가? 그 이유는 1981년 본 교회 대학부에 담당교역자로 이모 전도사가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해방신학에 심취해있던 분이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이모 전도사는 대학부 학생들에게 해방신학사상을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그 당시 독재에 항거하는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의식 있고 실력 있는 대학생들이 이 사상에 완전히 세뇌되었다. 일년 뒤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전도사를 권고 사직했으나 이미 그 사상에 몰들어 버린 대학생들은 어른들의 충고와 지시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 갔고 그 과정에서 급기야 교회당 구내에서 싸움까지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 당회는 1985년 1월 주동자 5명에게 무기근신으로 시벌하고, 대학부 조직을 해산하였다. 그러다가 그해 3월부터 남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부 성경공부를 재개하고, 5월 26일에는 대학부의 조직을 재구성하므로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일단락 된 듯 하였다<sup>131)</sup>.

131) 현유광, 목사와 갈등 (서울: 본문과 현장 사이, 2001), 204.

그러나 이 사건의 상처는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주 커다란 상처의 흔적처럼 남아있다. 그때 시벌을 받은 학생들은 무기근신의 별이 해별이 된 이후에도 별로 변화가 없었고 불신 가정에서 나오던 학생들은 그 당시 전도사가 목사로 있던 개금 ○○교회로 옮겨가 버렸고, 증직자의 자녀들은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교회를 곁돌게 되어버렸다. 그때의 영향으로 본 교회를 떠난 자들, 신앙생활을 중단한 자들, 이로 말미암아 청년대학부가 침체되었고, 그 여파로 20년 전의 대학청년층이 부재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이 사건에 대처한 교회의 방식이다. 교회도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한 끝에 주동자를 시벌하고 대학부를 해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실력 있고 열정 있는 교역자를 파송하여 저들의 잘못된 견해를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특별히 그 당시 신대원과 신학대학이 송도에 있었으니 실력 있는 교수를 협력 교역자로 초빙해서 수습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만일 그랬다면 지금 그들은 본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되었을 것이며 교회는 더욱 힘 있게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라. 평신도 지도자들의 갈등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셨다고 되어있다.<sup>132)</sup>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인들, 특별히 평신도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본 교회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다. 3대 목사인 문희봉 목사 때 젊은 몇몇 남자 집사들이 “담임목사 권고 사임 건의서”를 제출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부지 매입건을 두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

132) 미발행 제3영도교회 50년사, 171-172.

133) 사도행전 2장 46-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다.

한 것처럼 교회당 부지 매입을 두고 일어난 사태로 인해 먼저 당회원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지금까지도 장로들 사이에는 이 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앙금이 남아 있다. 찬성했던 장로들은 그때 교회를 옮겼더라면 현재 있는 교회도 남았을 것이며 옮긴 교회당은 한국최대의 교회당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거부했던 장로들은 만약 땅을 사고자 계약을 했더라면 땅도 사지 못하고 지금의 교회도 날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회를 살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드러나지 아니한 후유증은 교회 생활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당회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면서 당회가 결정해서 집행하는 일에 반대한 일<sup>134)</sup>이 생겼다. 이렇듯 서로 돕고 협력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쓸데없는 분규에 휘말려 들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형성되었던 것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 마. 교인들간의 인맥과 갈등

모든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마다 그 인적 구성에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영락교회는 이복출신들이 피난 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도들 중에 이복출신들이 많고 이들이 교회의 중심세력을 형성하고 있다<sup>135)</sup>. 또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같은 성씨를 가진 일가들이 교회를 세워 이들이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교회들의 장점은 단합이 잘되며 쉽게 교회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 어렵고 목사가 이들과 마음을 맞추지 못하면 목회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이 여러 종류의 인맥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이들 사이의 알력과 세력다툼이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sup>136)</sup> 급기야는 이런 일로 교회가 분리되는 경

134) 예를 들어 2003년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새로 지은 교육관의 난방시설을 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려고 하였는데 안수집사회에서 이것을 알고 교회재정이 적자인 상태를 들어 반대해서 결국 시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135) 김수진,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서울: 흥성사, 2000) 107-108.

우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인맥으로 얽혀져 있는 경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교회도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목회를 해야 할 교회이다. 본 교회는 섬인 영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국 도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남해 출신들과 호남 지역의 출신들이 어업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곳에 많이 이주를 해왔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의 인맥구성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137)</sup>. 여기서 형성된 분위기는 새 가족이 와서 좀처럼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성장에 마이너스 분야이다.

#### 바. 리더십과 펠로우십의 부족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흔히 목회자에게 두 가지 은사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나는 믿음의 은사요, 다른 하나는 리더십의 은사이다. 믿음의 은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리더십의 은사는 사람을 향한 것이다. 목회자가 믿음이 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리더십을 갖고 평신도가 일하도록 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다<sup>138)</sup>.

교회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건강하면 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생명체이면서 동시에 조직체라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의 신적 생명체이면서 인간의 인적조직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생명체를 위해서 영성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다른 말로 생명체를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할 뿐만 아니라 조직체를 위해서 기술로도 충만해야 한다.<sup>139)</sup>

지금까지 본 연구자가 본 교회를 담임하면서 리더십 부족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136) 현유광, 목사와 갈등, 92.

137) 남해 출신들 중에서 박씨 성을 가진 여러 형제들이 본 교회에 와서 여러 교인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과 얽혀 있는 성도들이 적지않다. 그리고 호남출신들이 약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신중하지 않으면 언제 말썽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8) 명성훈, 리더십 성장 마인드 (서울: ICG, 2002), 6.

139) Ibid., 156.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더욱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제3영도교회의 역사가 말하고 있듯이 성도들의 펠로우십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은 담임목사에 대한 당회의 펠로우십 부족으로 인해 기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리더십과 펠로우십의 부족이 그 동안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부분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2. 외적 원인

제3영도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정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내적인 요인을 앞에서 다루었다. 이에 못지않은 외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성장하는 교회들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60퍼센트가 주택지, 신주택지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본다. 서울의 성장하는 교회들의 경우 55퍼센트가 주택지의 큰 도로가의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20퍼센트가 상업지역으로 교통이 극히 편리한 지역이었으며 16퍼센트가 아파트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sup>140)</sup> 이런 맥락에서 본 교회도 외적요인으로 정체의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제3영도교회의 성장과 정체의 현상을 외적인 요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제 다음의 6가지 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평가해 보도록 한다.

### 가. 영도인구 이동

제3영도교회의 정체의 외적 요인 가운데 하나는 영도지역의 인구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부산 영도구 통계연보를 참고해 보면 1964년도 영구 인구는 고작 15만이 약간 넘는 인구였다. 15만의 인구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sup>141)</sup> 대략 3,000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1984년까지 계속해서 나타나 그해의 인구는 217,563명이 되었다.

140) 한경철, 한국교회성장 어디까지 왔나 (삼영서관: 1984, 9, 18), 129.

141) 영도구 기획 감사실, 영도구 통계 연보 (부산: 영도 구청, 2002), 42.

그러나 1984년을 기점으로 하여 인구가 감소되어 시작하였다. 인구의 감소가 연 평균 5,000명의 인구가 영도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표 3>의 영도인구의 이동현상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요 인구이동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전입과 전출의 상황을 보면 영도인구의 감소를 쉽게 알 수 있다. 1999년도의 전입은 26,177명이고, 전출은 31,556명이다. 즉 5379명이 영도를 떠났다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2000년에 4,497명에서 2001년은 5,011명으로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1984년 이후로 영도의 인구는 증가에서 오히려 감소추세로 돌아섰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가? 이런 현상의 요인을 몇 가지로 찾을 수 있다. 우선,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인한 전출을 들 수 있다. <표 4>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영도의 초등학교의 수에 비해 중학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1984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놀라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국제화의 문이 폭넓게 열리면서 교육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었다. 결국 이것은 영도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중학교의 숫자의 감소로 교육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인구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고등학교의 진학에서도 중학교의 숫자와 비슷하지만 이문계열의 학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결국 이런 현상은 제3영도 교회의 교회학교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표 3> 영도인구의 이동현황(단위: 명, 세대)

| 연도   | 세대수    | 인구수     | 연도   | 세대수    | 인구수     |
|------|--------|---------|------|--------|---------|
| 1964 | 28,007 | 152,349 | 1996 | 59,666 | 204,110 |
| 1974 | 41,389 | 212,598 | 1998 | 58,496 | 193,741 |
| 1984 | 48,965 | 221,651 | 2000 | 58,749 | 185,166 |
| 1994 | 58,522 | 209,749 | 2001 | 58,136 | 180,626 |

자료: 기획 감사실

<표 4> 영도 내 교육기관 현황(단위: 명)<sup>142)</sup>

|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
| 학교수 | 16    | 14     | 8     | 7     | 2      |
| 학생수 | 1,444 | 11,813 | 5,895 | 6,443 | 12,034 |

자료 : 부산광역시 교육청

142)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51. - 2002.4.1 현재통계

둘째, 주거비용이 타구에 비해 낮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주거비용이 낮다는 말은 생활하는데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지만, 다르게 정의하면 영도를 선호하는 사람이 적어 유입인구가 많질 않아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로 볼 수 있고, 또 학군이나 생활수준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인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면 그에 맞는 곳으로 이주해 가는 습성으로 보인다.

셋째, 공공시설의 부족현상이다. 공공시설은 동사무소, 우체국, 소방서등이고 생활시설은 은행, 슈퍼, 병원 등이다. 이들의 분포는 결국 주민의 편리함과 직결된다. 영도구내에 가장 불편한 곳은 봉래 4동과 청학동 그리고 동삼3동 일부지역이다. 결국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이동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생활의 불편은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용이하고, 편리 시설이 잘된 곳을 찾게 만들었다. 이런 영도 인구의 이동으로 제3영도교회 역시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인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인구의 내적 이동 역시 큰 역할을 하였다.

인구 이동추이를 볼 때 본 교회가 위치한 남항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오히려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 동삼동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제3영도교회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나. 지역 경제 기반 몰락

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도 지역 경제 기반의 몰락을 또 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영도지역의 기업체 현황을 보면, 그리 크게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표 5>에서 발견한다.

<표 5> 영도지역의 기업체 현황(단위: 개소, 명)

| 연도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운수업   | 금융업 | 부동산업 | 서비스업 | 광공업 |
|------|-------|-----|-------|-------|-----|------|------|-----|
| 1997 | 1,478 | 139 | 3,373 | 1,129 | 96  | 347  | 116  | 499 |
| 2001 | 1,010 | 154 | 2,756 | 1,347 | 73  | 228  | 112  | 271 |

자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sup>143)</sup>

143) 부산시 영도구, 영도 향토사 (고신대학교 영도발전 연구소, 2003, 2월) 336.

항만 관련 산업의 하나인 조선 관련업체는 한 동안 조업의 부진을 보였으나 최근의 금리하락 등과 유리한 금융 환경, 그리고 출하증가로 경기의 호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3영도 교회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남항 어촌계의 통계를 참고해 보면 종사자들이 7년 전에 비해 2/3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44)</sup> 어선수도 222척에서 33척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결국 이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3,120억이라는 생산 감소가 이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관련 산업인 제조업(839억의 손실)과 서비스업(418억의 손실)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sup>145)</sup>

1969년에 설립된 한진 중공업은 한때 호황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계속되는 노사분규로 인해서 생산차질과 한때 IMF의 한파의 영향으로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해안산업과 중공업의 부진으로 영도구의 산업경제는 무너졌다. 영도구의 산업경제는 부산의 총 16개 구군 중에서 사업체 수의 경우 14위, 종사자 수는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여전히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sup>146)</sup>

사업체 가운데에서도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5명 미만 사업체 수가 8,896개이고, 5-19명 미만이 999개, 20-299명이 228개, 300명 이상이 11개이다. 즉, 5명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87.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sup>147)</sup> 영도구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조직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개인형태를 띠고 있다. 전체 사업체수와 비교해 볼 때 92.34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런 현상 속에서도 영도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관광산업이라 할 수 있다. 지정학적인 위치와 수려한 경치는 과거에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관광산업 역시 크게 비중 있는 사업의 한 요소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위치적, 환경적으로 좋은 이점을 안고 있지만 그것을 십분 발휘하지 못한 행정력과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관광지역으로 명성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신대학교 교수인 금진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문제점을 제시한다.

144) 남항 어촌계: 영도구 남항동 2가 273-2 물량장내.

145) 박창식, 영도연구-부산의 항만 관련 산업이 영도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안 (부산: 고신대학교 영도발전 연구소, 2000년 12월), 140.

146)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향토사 (부산: 고신대학교 영도발전 연구소, 2003), 334.

147) Ibid., 347.

첫째, 영도의 관광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관광지의 왜곡된 이미지는 관광지의 주민들이나 관광객의 경험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영도의 지향 이미지, 대표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인들에 대한 홍보의 부족이다. 셋째, 영도 주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의 부족현상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라는 정신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실패했다는 점이다. 넷째, 알려진 명성에 비해 볼거리가 부족하며, 머물 수 있는 장소로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sup>148)</sup>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한번 영도를 찾은 타지의 사람들이 다시 영도를 찾지 않는 관광의 특수현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산업기반의 몰락, 정체성의 위기로 영도의 지역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 다. 토속문화와 충돌<sup>149)</sup>

영도에서 토속종교는 기독교 전파의 장애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남항동 용신당이라 하여 귀신을 달래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그 예식이 제3영도 교회의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당산제, 거릿대, 동삼동 별신굿(풍어제), 남항동 용신당, 그리고 청학동 서낭당이 있다.

이처럼 조직을 갖춘 종교와 비조직적인 고전적 민속신앙과 기독교가 어떻게 잘 조화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영도의 지형적 특성과 특수성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가 용이하지 않다. 최근에는 상업화와 제 3차 산업의 발달, 그리고 과학의 진보로 인해서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모습의 민속신앙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제3영도교회의 위치적 특징<sup>150)</sup>상 토속종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에 그에 따른 많은 복음의 외적 영향을 받고 있다 할 수 있다.

148) 금진우, 영도연구-관광지로서 영도구 PR 전략 (부산: 고신대학교 영도발전 연구소, 2002년), 61.

149)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향토사, 272.

150)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46번지: 교회 위치가 부두와 인접한 지역이고,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 역시 토속 종교에 젖어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 라. 예배당 이전 무산으로 생긴 후유증

제3영도교회는 배광호 목사의 부임과 더불어 교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는 성장의 일로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예배당 이전과 증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런 기대와 더불어 장로들과 재직들은 예배당을 옮기기로 결정을 보았다. 결국 새로운 예배당을 사모하며 오랫동안 기도한 후 현재의 동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 과한 수사 연구소인 대지 만 오백 평을 구입하고자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예배당을 위한 대지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로 인한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다. 결국 예배당 이전 추진 위원회는 불신임을 받게 되었고, 목사는 목사대로 권위와 추진력의 부진이라는 자책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간의 불신임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이 1992년 말에서 1993년 초의 일이다. 사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영도의 내적인 인구이동은 동삼동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10년 전에 만평이 넘는 땅을 구입하여 교회를 지었다면 지금의 제3영도교회는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리라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다.

#### 마. 교역자와 교인 이동 후유증

교역자의 이동은 교회성장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교회의 행정과 시스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 역시 혼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인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이다. 1대 목사인 박상순 목사에게 이어 박요섭 목사는 5년 6개월간 목회를 하시다 1978년 2월 23일에 제3영도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박요섭 목사의 시무기간에 제3영도 교회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1976년 9월 12일에 낮 예배 참석인원 426명(남 156명, 여 270명)<sup>151)</sup>이었기에 1세대 목사보다 평균 2배의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151) 주보 제27권 38호(1976. 9. 19) 출석통계

이어 제3대 목사인 문희봉 목사가 부임하여 열정적으로 사역의 기반을 잡아갔다. 하지만 그 열정과 노력의 일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어 1988년 2월초 당회 앞으로 11인의 청년집사가 목사의 설교가 부실하며 그 원인인 설교 준비의 부족과 과도한 취미활동으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결국 담임목사의 목회와 인도를 불신한다는 오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담임목사 역시 건의서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젊은 집사들과 담임목사간에는 골이 더욱 깊어졌고, 순진한 양떼들은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사임을 요구하고 나서고, 사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목회하기를 강행하는 틈바구니속에서 상처입고 영적 손해를 보는 것은 교인들 뿐이었겠는가? 당사자들 모두 심각한 상처를 갖게된 것이다. 결국 3대 목사는 이러한 서로의 상처를 안고, 1983년 7월 26일 교회를 사임하였다. 이러한 성도들과 교역자간의 불화로 인하여 장시간 대치관계를 형성한 것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침체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비본질적 문제에 성도와 목회자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교회는 교회대로 침체와 상처를 교인은 교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상처를 가졌다.

제3대 목사의 후임으로 젊고 패기있는 울산교회의 부목사를 제4대 목사로 모셨다.<sup>152)</sup> 제4대 목사로 인해서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대학부 조직해산이란 암초를 만났다.<sup>153)</sup> 그 결과 교회 인재를 잃게 되어졌다.

제4대 목사 역시 제3영도 교회를 1993년 12월 19일로 사임을 하고 OO교회로 이동하셨다. 이듬해에 1994년 9월에 본 연구자가 본 교회의 담임으로 오게 된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한 가지 사안이 있다. 4대 목사가 시무하기 2달 전부터 주일 오전 예배 기준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1180명의 교인이 출석을 하였다. 그러나 4대 목사가 교회를 이동한 후의 평균 출석은 940명이다. 그리고 4달 후의 평균은 880명으로 떨어졌고, 본 연구자가 부임하기 1달 전에는 850명으로 추락한 것을 볼 수 있다.<sup>154)</sup>

152) 제57회 공동의회(1984. 1. 8)

153) 1984년 초 본교회 회보에 게재된 글이 물의를 일으켰고, 그것은 해방신학의 유산물이었다. 이는 2, 3년 전에 교회에 사역하던 모 전도사가 해방신학을 가르쳤고, 학생들은 순수하게 전도사의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이 사실로 인하여 해방신학을 배운 자들과 배우지 아니한 자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남으로 당회가 알게 되었고, 대학부를 해체시켰다.

154) 제3영도 교회 1993, 1994년 주보 참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역자의 이동은 자연히 교인의 이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략 10퍼센트의 이동이 있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4대 목사의 이동으로 평균 출석의 250명, 많게는 300명의 숫자가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목사나 교인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롭게 지도자의 의도와 목표, 목회방향등을 알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교회는 혼동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교회성장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표 6> 1993년 연말과 1994년 연초 출석자료 통계

|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
| 1993년 10월 | 1,183 | 1,222 | 1,156 | 1,179 |     |
| 11월       | 1,196 | 1,198 | 1,173 | 1,192 |     |
| 12월       | 1,173 | 1,176 | 1,151 | 1,147 |     |
| 1994년 1월  | 868   | 938   | 938   | 972   | 906 |
| 2월        | 910   | 948   | 863   | 871   |     |
| 5월        | 881   | 884   | 890   | 853   |     |
| 7월        | 871   | 881   | 883   | 885   | 863 |
| 8월        | 840   | 822   | 873   | 848   |     |

### 제 3 절 제3영도교회의 진단과 결과

제3영도교회는 몇 차례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였다. 먼저 명성훈의 진단 프로그램인 교회 상황을 위한 자가 진단, 그리고 NCD 진단, 그리고 국제제자훈련원의 진단을 하였다.

#### 1. 교회성장 연구소의 교회 진단과 분석한 결과

명성훈이 자신의 저서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에서 교회 성장의 본질과 건강한 교회의 7대 표적<sup>155)</sup>을 밝히면서 8가지 자가 진단을 제시하고 있다. 8가지의 자가 진단

155) 명성훈은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에서 건강한 교회의 7대 표적을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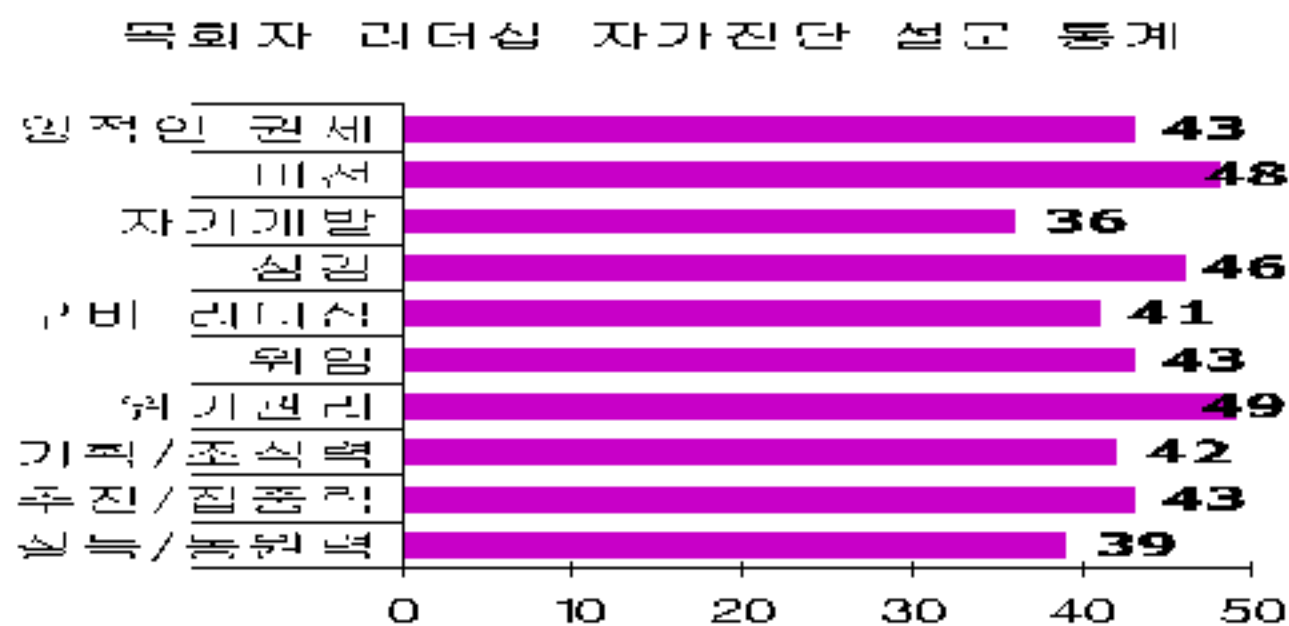
은 첫째 교회성장을 위한 종합검진, 둘째 목회자 리더십 진단, 셋째 교회조직 진단, 넷째 목회환경 진단, 다섯째 교회재정 진단, 여섯째 사역자 진단, 일곱째 프로그램 진단, 여덟째 전도 및 새 신자 목회 진단을 말한다.

본 연구자는 명성훈의 진단 제안에 따라 여덟 가지 항목을 진단하였다. 진단순서를 조금 변경하였는데 교회성장을 위한 종합검진을 마지막으로 진단하였다.

#### 가. 목회자 리더십 자가 진단

10가지 항목에 총 50문항의 자가 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 도표와 같다. 목회자 리더십 분야에서 총 500점에 435점이다. 87퍼센트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다. 위기관리와 비전제시가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기개발과 설득 및 동원력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명성훈은 “원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한 리더십 능력을 보완한 다면 더 놀라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sup>156)</sup>이라고 말한다.

<그림 1> 목회자 리더십 자가 진단 설문 통계



목사, 열정적인 성도, 부족하지 않는 시설, 체계적인 조직, 동질성을 느끼는 분위기, 효과적인 전도방법, 확실한 목적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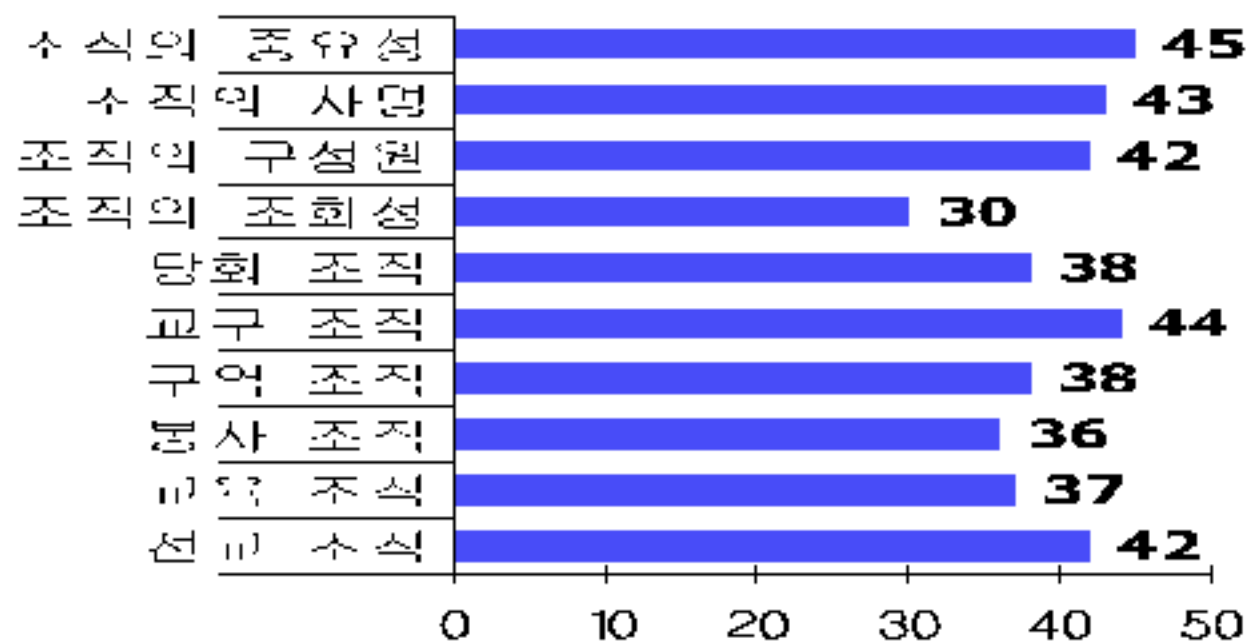
156)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1996), 87.

### 나. 교회조직을 위한 진단

교회조직에 대한 평가는 조직의 조화성이 눈에 띄게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인 교회조직이 원만하게 형성되어있지만 조직의 연계성을 높여 시너지를 내게 하는데 약한 모습이었다. 총 500점 만점에 395점으로 교회조직분야 평균 79점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교회조직분야가 다소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한 명성훈 목사의 진단은 명쾌하지 않다. “조직이 원만하게 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부족한 조직분야를 더 보완하고 노력하면 튼튼한 교회조직을 만들 수 있다.”<sup>157)</sup>

<그림 2> 교회 조직을 위한 자가진단 설문 통계

교회조직을 위한 자가진단 설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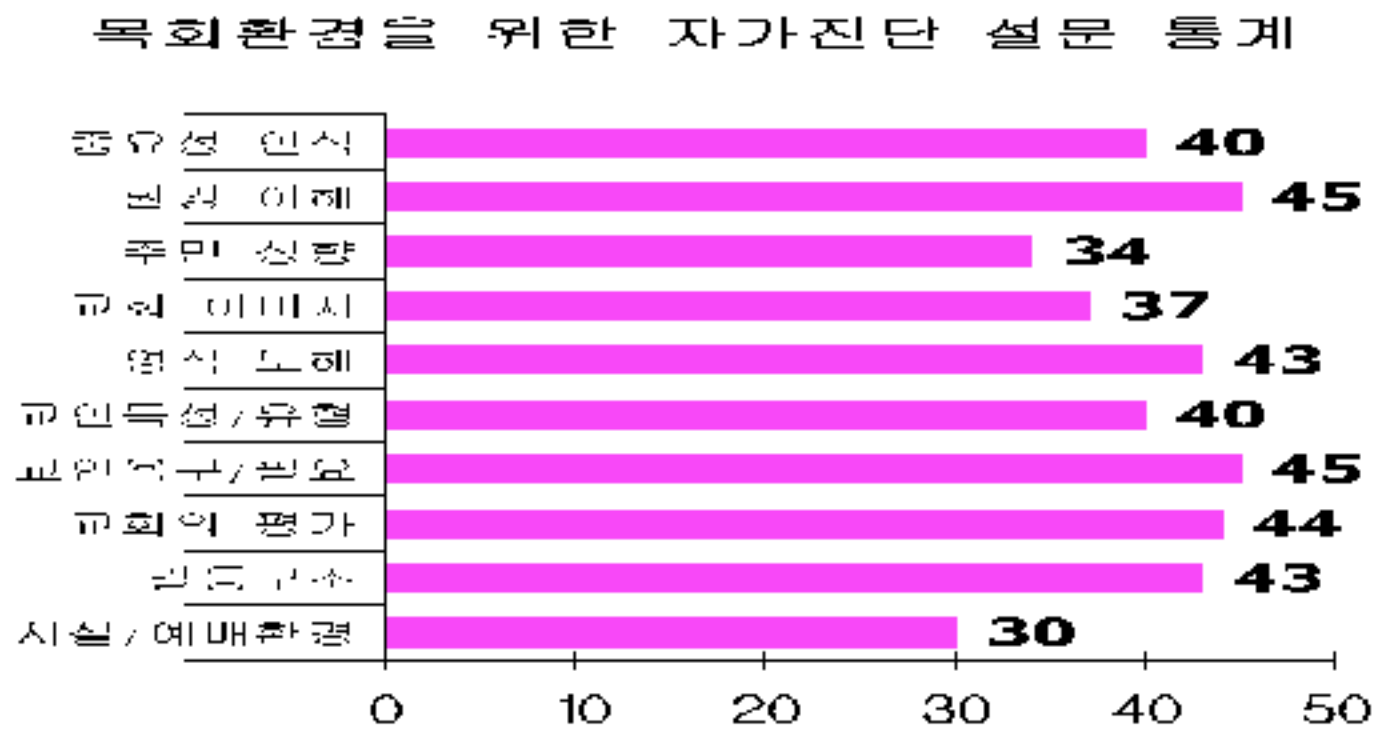
### 다. 목회 환경을 위한 자가 진단

목회환경에 대한 평가는 500점 만점에 401점으로서 평균 80.1퍼센트였다. 목회환경 역시 결코 원만한 환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과 예배 환경 부분에서는 매우 열악하였으며 교회 건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주민성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도대상인 지역주

157) Ibid.,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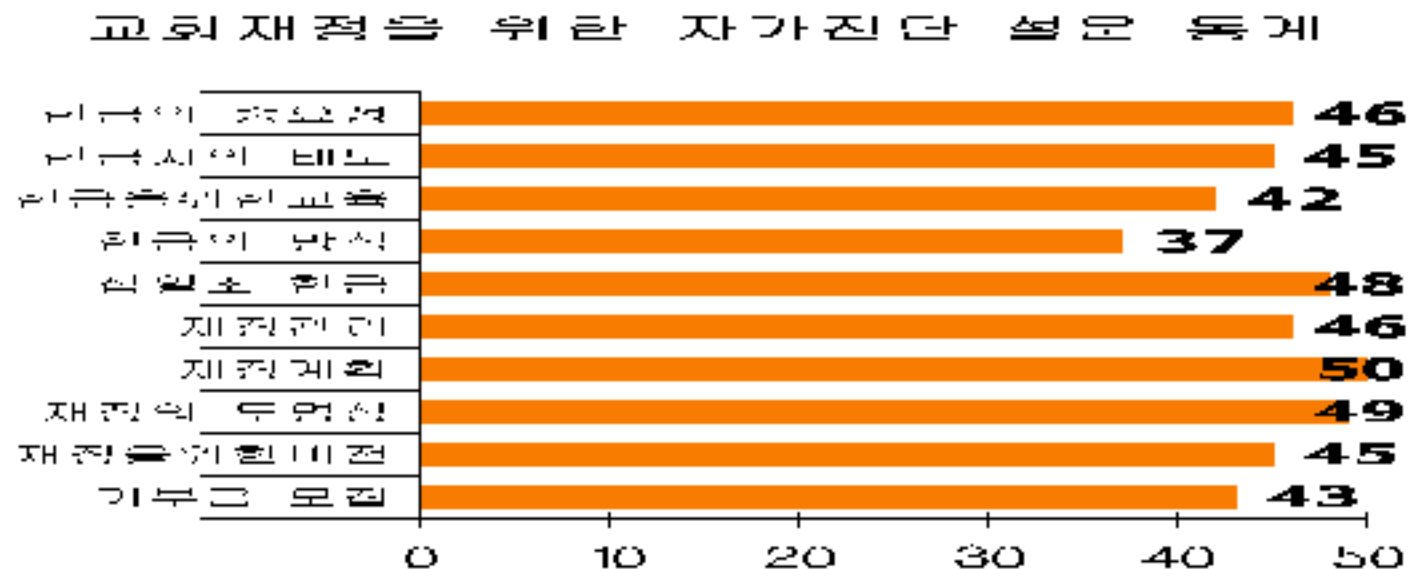
민들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목회환경에 대한 명성훈의 진단은 “목회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목회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회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전도 대상자를 확인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sup>158)</sup> 외부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성향을 조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 목회환경을 위한 자가진단 설문 통계



라. 교회 재정을 위한 자가 진단

<그림 4> 교회재정을 위한 자가진단 설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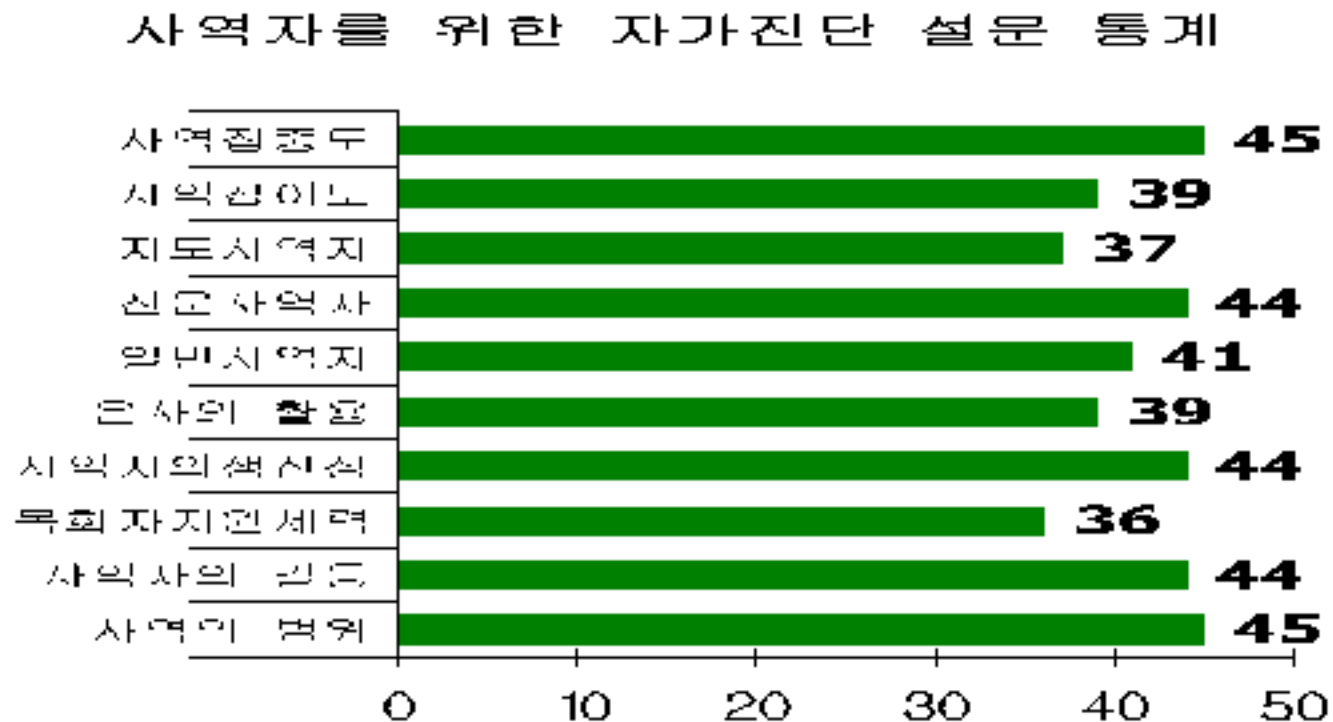


158) Ibid., 139.

교회 재정에 관한 분야는 총 500점 만점에 451점으로 평균 90.2퍼센트였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성인 교인 대비 재정상황은 다소 열악한 상황이다.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재정 관리는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성훈은 “교회의 재정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재정관리 장점을 계속 유지하라. 또한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목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하라”<sup>159)</sup>고 충고하고 있다.

#### 마. 사역자를 위한 자가 진단

<그림 5> 사역자를 위한 자가진단 설문 통계



사역 및 사역자 분야에서는 총 500점 만점에 377점으로 평균 75.4퍼센트였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현재 교회내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역을 위한 사역자의 수급과 활동에 관해서도 원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목회자를 위한 지원세력 분야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교회내에서 목회자와 함께 사역할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하게 취약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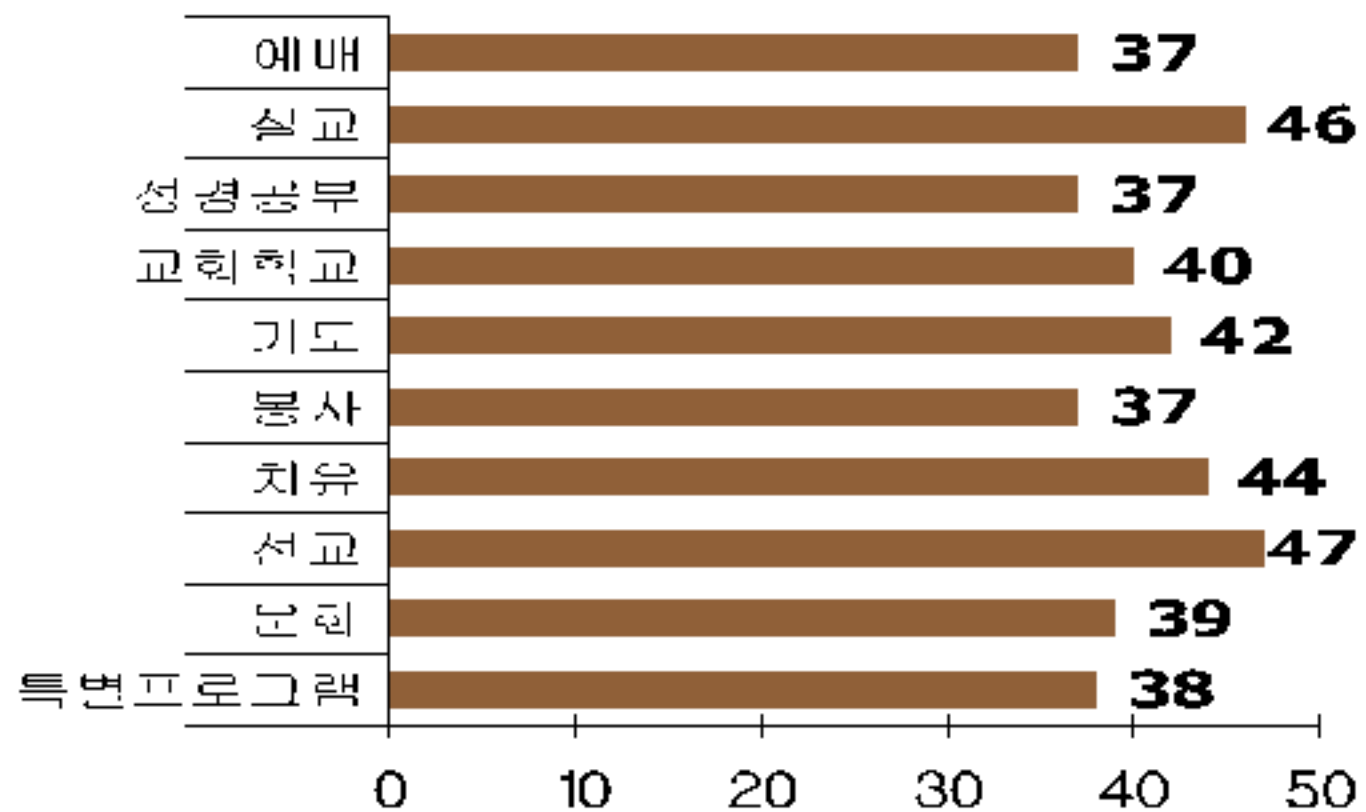
159) Ibid., 158.

## 바. 프로그램을 위한 자가 진단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총 500점 만점에 407점으로 평균 81.4퍼센트였다. 대체적으로 사역과 더불어서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자체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명성훈은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좋은 편이다. 모든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사역자 양성에 계속 주력한다면 놀라운 결실이 기대된다”<sup>160)</sup>라고 하며 프로그램 사역자 양성에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림 6> 프로그램을 위한 자가진단 설문 통계

### 프로그램을 위한 자가진단 설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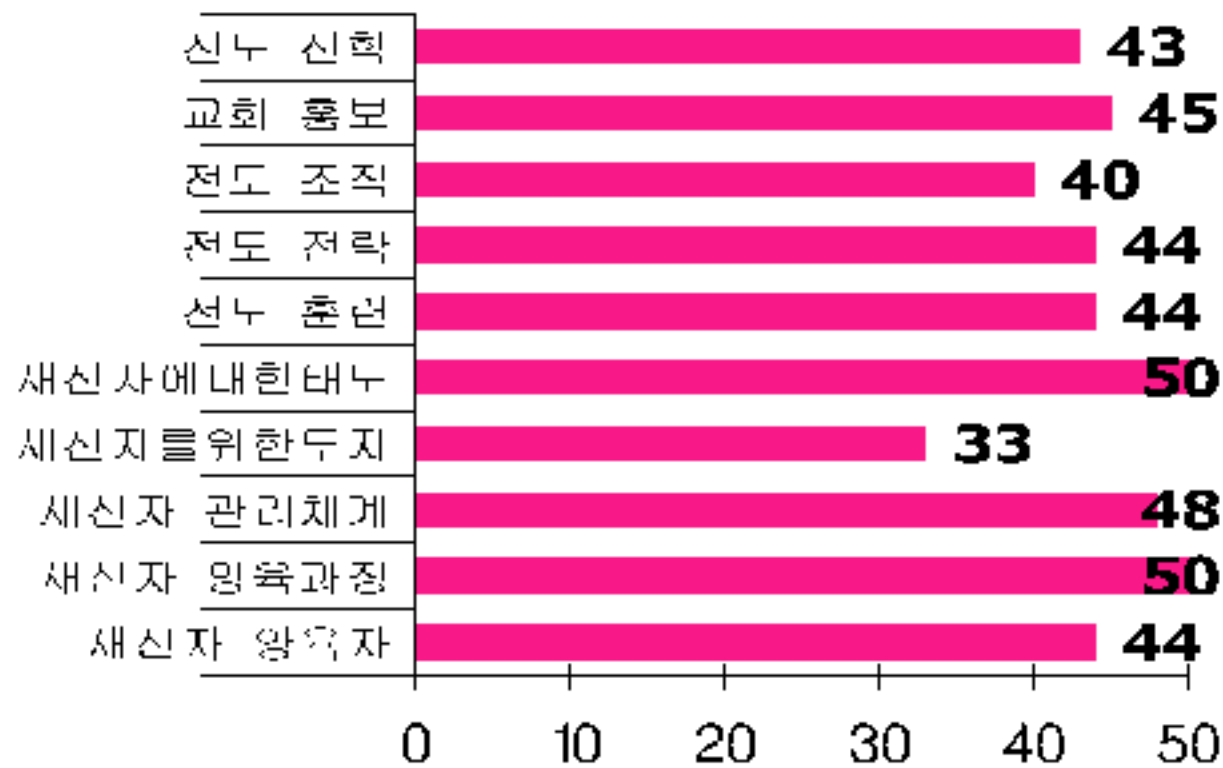


160) Ibid., 198.

사. 전도 및 새 신자 목회에 대한 자가진단

<그림 7> 전도 및 새 신자 목회를 위한 자가진단 설문 통계

전도 및 새신자 목회를 위한 자가진단  
설문 통계



전도 및 새 신자 목회 분야에서는 총 500점 만점에 441점으로 평균 88.2퍼센트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제3영도교회의 태신자 전도운동과 새가족부의 안정적인 활동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좀 취약한 부분은 새신자를 위한 투자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새 신자를 위한 투자 부분이 다소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전도 및 새 신자 목회 분야의 진단 결과에 대하여 명성훈은 “성장형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와 새 신자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보완하고 인내를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sup>161)</sup>라고 한다. 교회성장을 위해서 전도와 새 신자 정착에 대한 강조로 인해 매우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개 분야에 대해서 자가 진단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서도 사역 및 사역

161) Ibid., 220.

자, 교회 조직, 목회 환경 분야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왔다. 이 분야를 좀더 보완한다면 교회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7> 7개 분야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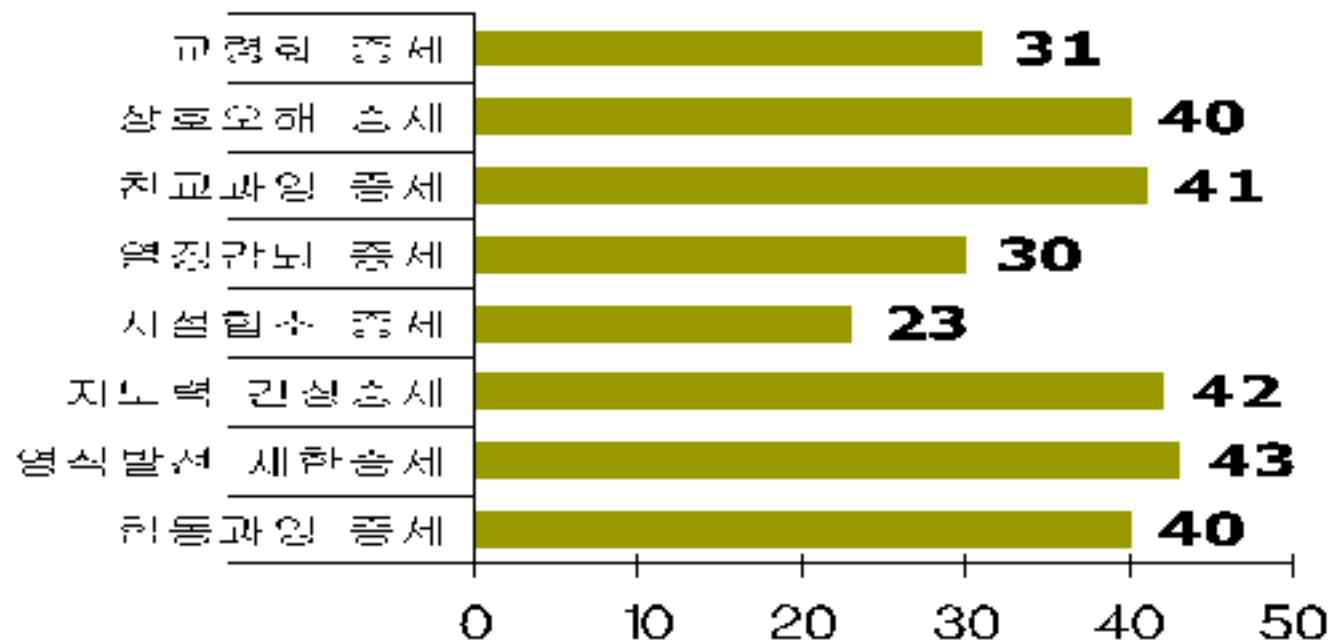
| 목회자 리더십        | 교회조직           | 목회환경             | 교회재정             | 사역 / 사역자         | 프로그램             | 전도 / 새 신자        |
|----------------|----------------|------------------|------------------|------------------|------------------|------------------|
| 435<br>(87퍼센트) | 395<br>(79퍼센트) | 401<br>(80.2퍼센트) | 451<br>(90.2퍼센트) | 377<br>(75.4퍼센트) | 407<br>(81.4퍼센트) | 441<br>(88.2퍼센트) |

마지막으로 교회 질병 측정을 해보았다.

#### 아. 교회 질병 측정

<그림 8> 교회질병 측정을 위한 자가진단 설문 통계

#### 교회질병 측정을 위한 자가진단 설문 통계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현재 제3영도교회가 지니고 있는 교회질병은 시설 협소 증세, 열정감퇴증세, 고령화 증세가 가장 큰 3대 질병이었다. 이는 제3영도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설 협소증세 면에서는 2001년

교육관을 완공하여 교육기관의 공간 문제는 해결을 하였으나 본당 건물은 1972년에 완공된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공간 활용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오래된 건물 구조로 인해 현대 성도들의 교회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3영도교회는 5년 이내에 교회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교회 신축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설문 조사해 보았다.

<표 8> 교회건축 필요성에 대한 교인들의 견해

| 20대      |          | 30대      |          | 40대 이후    |          |
|----------|----------|----------|----------|-----------|----------|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 45퍼센트(5) | 55퍼센트(6) | 42퍼센트(5) | 58퍼센트(7) | 74퍼센트(25) | 26퍼센트(9) |

교회 신축에 대한 설문에서 20대와 30대의 찬성비율이 40대 이후의 비율보다 적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20대와 30대의 기관이 집회장소가 2002년에 완공된 교육관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 찬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면 주요활동이 1972년에 완공된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40대 이후의 성도들은 교회 신축 찬성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74퍼센트의 찬성가운데서 교회 신축 시기에 관하여 질문하여 보았다.

<표 9> 40대 이후 교회 신축 찬성 성도들의 신축시기에 관한 질문

| 2년 이내   | 3-5년     | 5년 이후     |
|---------|----------|-----------|
| 8퍼센트(2) | 32퍼센트(8) | 60퍼센트(15) |

교회신축을 찬성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5년 이후에 신축하자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이는 2002년에 건축한 교육관으로 인해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열정감퇴증세 면에서는 세 번째의 고령화증세와 관련이 깊다. 현재 제3영도교회는 50대 이상의 신앙 1세대의 장년층이 많은 교회이다. 50대 이상의 성도들



이 활동에 제약이 있으면서 그만큼 열정도 식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앙 1세대의 자녀들인 2세대의 열정이 부모세대를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50대 이상이 주축이 되는 교회에서 좀더 젊은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2. NCD 교회진단<sup>162)</sup>과 결과

NCD에서는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교회성장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상태를 질적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교회의 건강 상태가 바로 성장 가능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교회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NCD의 교회 평가서는 네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회의 성장과 현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결정적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실시한다. 둘째 한정된 자원을 결정적인 요소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실시한다. 셋째 시간을 절약하고 분석을 잘못 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넷째 사회과학자들이 개발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다섯째 다른 교회들과 비교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sup>163)</sup>

NCD의 교회 평가서는 8가지 분야에서 교회를 평가하여 수치로 그 결과를 나타낸다. 8가지 영역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이다. 8가지 영역은 담임목사와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 30명의 설문을 토대로 분석된다.

제3영도교회에서는 2002년 1월에 NCD 교회평가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162) NCD는 Natural Church Development의 머리글자를 따라서 NCD라고 부른다. 독일에 본부가 있다. 크리스티안 슈바르츠가 교회성장학에 대한 글을 쓰는 리더로서 “자연적 교회성장”의 세미나를 인도한다. 그는 세계 32개국 1000개 교회에서 420만 설문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 성장하는 교회는 공통적으로 8가지 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163) Christian A. Schwarz, 크시스토퍼 샤크,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이준영, 오태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11.

&lt;표 10&gt; NCD 교회 평가서

| Leadership | Ministry | Spirituality | Structures | Worship Service | Small Groups | Evangelism | Relationship |
|------------|----------|--------------|------------|-----------------|--------------|------------|--------------|
| 40         | 50       | 47           | 34         | 40              | 37           | 46         | 53           |

제3영도교회는 전체 평균이 43점이다. 그중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53점으로 최고치 요소이며 기능적 조직이 34점으로 최소치 요소였다. 이 분석으로 보면 역시 제3영도교회가 오래된 역사 속에서 친인척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들로 되다보니 사랑의 관계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 상대적으로 기능적 조직 면에서는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NCD는 최소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었다. 그것은 바로 10단계 프로그램으로서, NCD에서 제공하는 10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해하라.' 2단계, '평가서 점수를 해석하라.' 3단계, '당신의 출발점을 결정하라.' 4단계, '외부의 도움을 활용하라.' 5단계, '당신의 최소치 요소를 실행단계와 연결시켜라.' 6단계, '점검표를 작성하라.' 7단계, '실제적인 단계를 실시하라.' 8단계, '생명체적 원리를 적용하라.' 9단계, '점검표를 다시 작성하라.' 10단계, '새로운 교회진단을 실시하라.'<sup>164)</sup>

최소치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10단계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 가. 1단계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해하라'

자연적 교회 성장은 모든 교회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방법에 기반을 둔 고정된 과정은 아니다. 그 중심 사상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스스로 사용하시는 성장의 자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성장의 장벽을 파악하고 제거할 때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자연적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만 최소치 요소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sup>164)</sup> Ibid., 16.

#### 나. 2 단계 '평가서 점수를 해석하라'

교회 평가서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제3영도교회의 각 항목 수치는 34점에서 53점 사이였다. 대부분 교회의 수치는 35에서 65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제3영도교회도 거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35 이하의 항목인 '구조'(측정 수치 34)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NCD에서는 "평가 수치가 65 이상의 수치는 평균이상의 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며, 35이하의 수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음을 알려 준다"<sup>165)</sup>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특별히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도 최소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최소치 요소는 단지 교회의 잠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할 영역이다. 그러므로 평가서 점수에 대한 해석은 도덕적인 질문, 즉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거나 나쁜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역에서 어떻게 생명체적으로 사역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다. 3단계 '당신의 출발점을 결정하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음단계에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알게 해 주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까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왔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현재까지의 목표를 위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의 최소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NCD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출석 인원수의 증가, 둘째, 기존의 한계 내에서의 교회 성장, 셋째, 교회성장의 장애물 극복, 넷째, 교회성장에 대한 신뢰 쌓기, 다섯째, 급격히 성장하는 교회에서 질적인 요소에 집중하기, 여섯째,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일곱째, 교회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기, 여덟째, 여러 지교회의 개척, 아홉째, 새 교회를 시작함<sup>166)</sup> 등이다.

165) Ibid., 17.

제3영도교회의 현재까지 목표는 출석 인원수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출석인원수의 증가를 위한 사역 속에서 나타난 최소치 요소가 바로 ;기능적 조직;이었다. 이것이 바로 제3영도교회의 출발점이다.

#### 라. 4단계 '외부의 도움을 활용하라'

출석인원수의 증가를 위한 사역에 집중한 제3영도교회의 최소치요소인 기능적 조직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자연적 교회 성장에 익숙한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NCD에서는 한국 자연적 교회 성장 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 마. 5단계 '당신의 최소치 요소를 실행단계와 연결시켜라'

NCD에서는 최소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10가지 실행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10가지 실행단계를 최소치 요소와 연결해서 실행하면서 자연적 교회성장을 제3영도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10가지 실행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인 계기를 마련하라. 둘째, 최소치 요소를 파악하라. 셋째, 질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넷째, 장애물 파악하라. 다섯째, 생명체적원리를 적용하라. 여섯째, 기존의 장점을 활용하라. 일곱째, 생명체적 도구들을 활용하라. 여덟째, 효율성을 점검하라. 아홉째, 새로운 최소치 요소를 파악하라. 열째,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sup>167)</sup>

또한 최소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실행단계를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 영적 계기를 마련하라로 이것은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다. 교회성장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도들의 교회성장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는 것은 최소치 요소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해결책이다. 이 실행단계는 성도들에게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6) Ibid., 28.

167) Ibid., 29-43.

둘째, 최소치 요소를 찾아라로 최소치 요인이란 한 교회에서 가장 덜 개발된, 그래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질적 특성을 말한다. 제3영도교회는 교회평가를 하였을 때 기능적 조직이 최소치 요소였다. 출석인원의 증가를 위하여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최소치 요소이다. 이처럼 최소치 요소를 찾는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다른 요소들이 평균이상의 요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요소라도 평균이하가 된다면 그 최소치 요소로 말미암아 교회성장은 흘러나갈 것이 때문에 최소치 요소를 파악하여 그 요소를 극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셋째, 질적 목표를 세워라로 최소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질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 질적 목표는 교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엄밀하고도 시간 제한이 있으며, 조정 가능한 목표를 말한다.<sup>168)</sup> 제3영도교회는 '기능적 조직'이 최소치 요인이므로 최소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능적 조직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질적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말까지 우리는 교회가 세운 사역분야에서 일할 팀리더를 세울 것'을 말한다.

넷째, 장애요인을 확인하라로 질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단계로 접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NCD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보의 부족, 심리적인 문제, 사고방식의 문제로 나누고 있다. 교회 내에서 질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실행하다 보면 사고방식의 문제가 유난히 많다고 한다. 특히 자연적 교회 성장에 반대하는 사고방식은 '영성주의적 사고방식'과 '방법주의적 사고방식'이 있다고 한다. '영성주의적 사고방식'이란 조직과 관계된 일이나, 이성적 사고, 그리고 실험적 연구 등을 영성이란 미명하에 평가 절하하는 사고형태를 말한다.<sup>169)</sup> '방법주의적 사고방식'이란 어떤 방식으로든 하기만 하면 교회가 생겨난다는 식의 착각을 일컫는다. 방법 지향적 사고방식은 전통주의의 변형이거나, 교회성장운동의 변형이다.<sup>170)</sup> 기능적 조직이 최소치인 제3영도교회에서는 방법주의적 사고방식보다는 영성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생명체 원리를 적용하라로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인간인 우리는 교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은 할 수 있으나, 출석인원수, 재적인원수, 회심자수 등과 같

168)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110.

169) Ibid., 90-91.

170) Ibid., 88-89.

은 양적 성장은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는 영역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영성주의자들은 교회의 질조차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선언하는 반면, 방법지향주의자들은 양적 성장을 인간활동의 결과라고 본다. 양자의 사고방식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핵심용어인 '자동적 성장'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자동적 성장이란 생명체적인 원리를 살펴 볼 때 알 수 있다. 생명체의 원리란 자연계에서 빌려온 원리로서 성장하는 교회에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원리이다.<sup>171)</sup> 생명체 원리는 우리에게 일종의 제6감, 즉 하나님의 자동적 성장에 대한 감각을 길러준다.

여섯 번째, 강점을 활용하라. 교회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최소치 요인을 개선시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원리이다. 교회의 최소치요소에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3영도교회의 최소치요소는 기능적 조직이었다. 그 반면 최대치 요소는 "사랑의 관계"였다. "기능적 조직"을 보완하기 위해 "사랑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생명체 원리에 근거한 자료들을 활용하라. 최소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체적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생명체적 교재는 교인들 개개인을 겨냥한 교재로서 소그룹에서 사용된다. 생명체적 교재란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에 유용하도록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자료이다.<sup>172)</sup> 기능적 조직이 최소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주의적 관례에 치중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속에서의 생명체적 교재를 활용함으로써 전통주의적 관례를 개선할 수 있다.

여덟 번째, 효율성을 점검하라. 최소치 요인을 극복하거나 자연적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계속 질문하여야 한다. 즉 사후반성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반성이 없으면 동역자들을 지치게 하고 그다지 좋지 못한 사역이 제도화되어 버린다.<sup>173)</sup> 교회성장을 위한 노력의 효과를 점검해 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교회평가서를 새로 작성해서 이전 것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sup>174)</sup>

171) Ibid., 114-115.

172) Ibid., 118-119.

173) Christian A. Schwarz, 크시스토퍼 샤크,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41.

이홉 번째, 새로운 최소치 요소에 눈을 돌려라. 최소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사후반성을 하고 교회평가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교회평가서를 작성한 후 새로운 최소치 요소를 발견하여 그 최소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또다시 이전의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자연적 교회성장은 활동 지향적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들의 목표는 교회가 한 생명체처럼 장기간에 걸쳐 스스로 발달해 가는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sup>175)</sup>

열 번째, 새 교회를 번식해 나가라. 최소치 요인을 극복해 나갈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자연적 교회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NCD에서는 교회가 모든 질적 특성의 수치가 65를 넘어선 경우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최소치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때 모든 질적 특성이 개선되어진다. 모든 질적 특성이 개선되어지면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자연적 교회성장의 개념 하에서 교회 개척은 기존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생명체의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럽고도 합당한 결과로 이해한다.<sup>176)</sup>

#### 바. 6단계 '점검표를 작성하라'

일상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미 실행한 치료책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점검표이다. 모든 항목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해야만 실제적인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파악할 수가 있다.

#### 사. 7단계 '실제적인 단계를 실시하라'

기능적 조직이 최소치인 제3영도교회는 6단계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만 한다. 점검표를 작성한 이후에 실제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구조 문제가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174)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120-121.

175) Ibid., 122-123.

176) Ibid., 134-125.

인식시켜라. 교회의 현 구조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라. 당신 교회의 사명을 문서로 작성하라. 방해하는 구조와 촉진시키는 구조를 확인하라. 교회 구조 문제에 대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집하라. 모든 구조를 번식 잠재력에 따라 평가하라. 교회 성장을 돕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최대한 줄여라; 교회 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조직표를 작성하라. 당신이 취한 조치들의 효과를 점검하라.

#### 아. 8단계 '생명체적 원리를 적용하라'

자연적 교회 성장은 출석 교인수 증가를 목표로 하는 조치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성장의 자동성을 점진적으로 발휘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 성장의 자동성을 점진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6가지 생명체적 원리가 지니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sup>177)</sup>

#### 자. 9단계 '점검표를 다시 작성하라'

6단계에서 작성한 점검표를 다시 한번 작성하여 기존의 점검표와 비교를 해야 한다. 이전과 현재의 점검표를 확인하여 최소치 요소를 극복하는 진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차. 10단계 '새로운 교회 진단을 실시하라'

자연적 교회 성장원리를 적용하여 최소치 요소를 극복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 진단을 하여야 한다. 새로운 진단을 통해서 최소치 요소의 향상, 조치의 효율성, 새로운 최소치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177) 자연적 교회 성장 실행 지침서에서는 6가지 생명체적 원리를 1. 상호의존 2. 번식 3. 에너지 전환 4. 다목적 5. 공생 6. 기능이라고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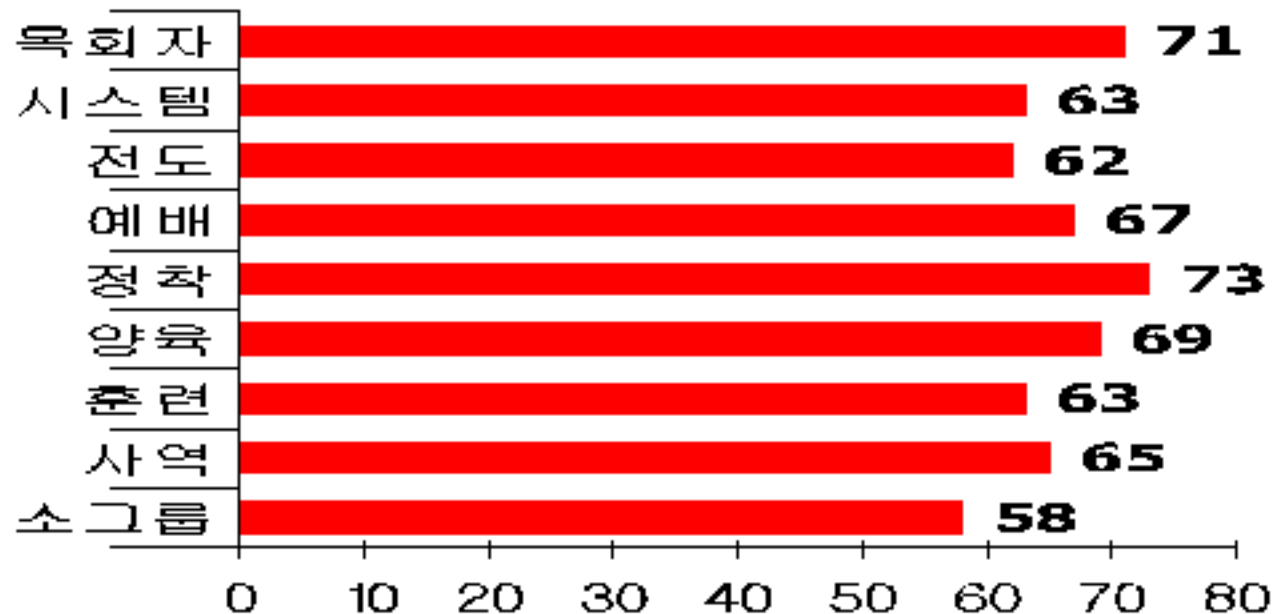


### 3. 국제제자훈련원 진단과 결과

제3영도교회에서는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교회를 진단하였다. 국제제자훈련원의 칼 프로파일은 총 9가지 항목에 걸쳐서 교회를 진단한다. 이 9가지 항목이란 목회자, 시스템, 소그룹, 예배, 정착, 양육, 훈련, 사역, 전도를 말한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실시한 9가지 항목에 관한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국제 제자 훈련원 진단

#### 국제 제자 훈련원 진단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실시한 교회 진단에서 최대치 요소는 정착 항목이었으며 최소치 요소는 소그룹 항목이었다. 정착 항목이 최대치 요소라는 것은 예배만 출석하는 사람들 혹은 새 가족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가는 정착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그룹 항목이 최소치 요소라는 것은 소그룹의 지도자와 소그룹의 기능이 대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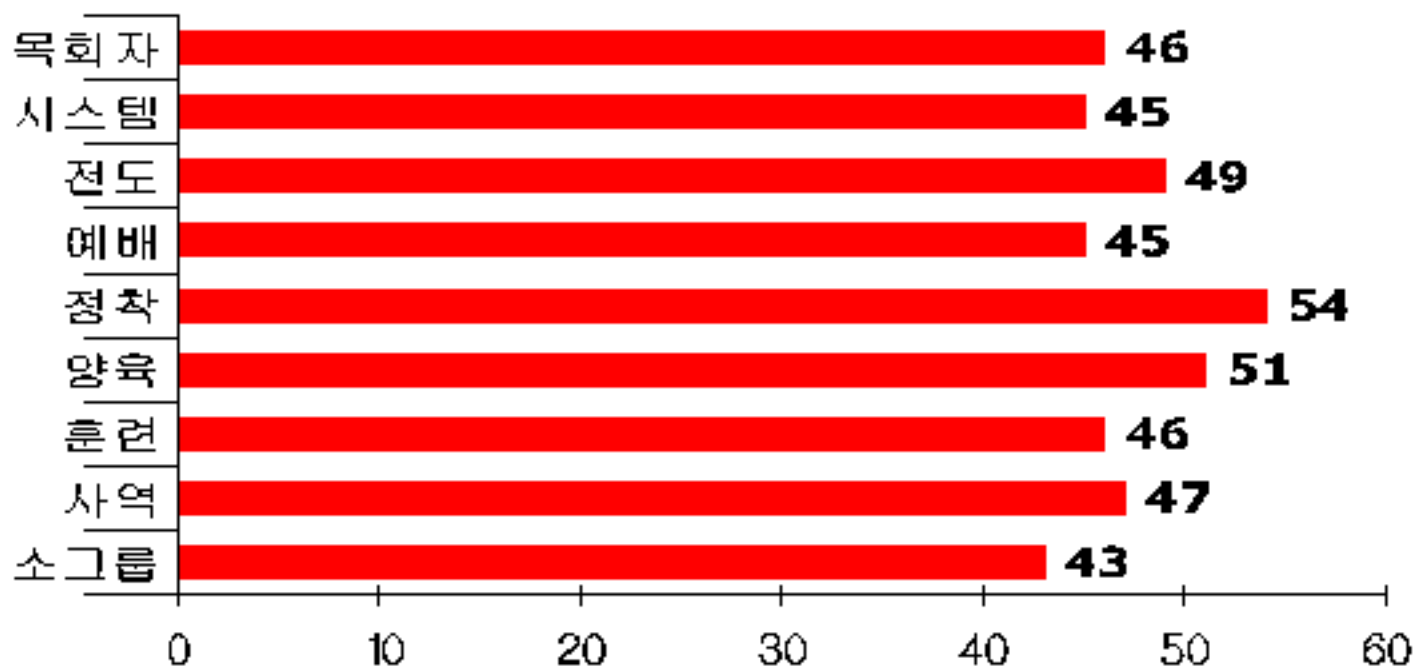
다음은 제3영도교회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교회 진단을 하였던 다른 교회들과 비교한 것이다. 교회 진단을 받은 교회들의 평균을 50이라고 했을 때 제3영도교회의 해당항목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분석한 자료이다. 교회진단을 받은 교회들의 평균을 50으로 환산하였을 때 각 항목별 제3영도교회 수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영도교회의 항목을 다른 교회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정착과 양육부분은 다른 교회보다 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소그룹은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뒤쳐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회자 항목에서는 목회자의 인격과 역량이 포함된 리더십과 설교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시스템 항목에서는 조직과 비전 casting, 비전 sharing이 평가되었다. 전도 항목에서는 개인전도와 전도프로그램, 전도이벤트 및 대각성, 지역공동체에서의 교회에 관하여 평가되었다. 그밖에 예배, 정착, 양육, 훈련, 사역, 소그룹 항목에서 평가되었다.

<그림 10> 국제 제자 훈련원 교회 평가서

국제 제자 훈련원 교회 평가서



최소치 요소로 나타난 소그룹에서는 소그룹의 특화, 사랑의 교제, 재생산에 관하여 평가되었는데 다양한 소그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NCD 진단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최대치 요소였는데 국제제자훈련원 진단에서 사랑의 교제가 포함된 소그룹은 최소치 요소였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부분이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져 있는 전체 관계는 좋을 수 있으나 소그룹 내에서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인적 교제에서는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특이한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사이의 시각 차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정착에 관해서

담임목사가 생각하는 것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점수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 속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점수차이가 크다는 것은 시각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시각의 차이는 줄이는 것을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건강한 교회도 판명하는 것이다. 물론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종합적인 건강한 교회일 것이다.

한국교회성장연구소와 NCD 그리고 국제 제자훈련원의 진단질문결과는 어떤 면에서 대동소이한 것을 발견하였다. 위의 세 기관에서 제3영도교회를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6장에서 본격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해서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다.

## 제 6 장

### 제3영도교회의 정체성 극복을 위한 전략

정체된 교회를 빠른 시간 내에 정체성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만드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해아래 새것이 없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맥가브란은 10년 동안의 교회의 수치를 조사하고서 현황을 분석 도표화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성장을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성장을 계획하는 과정을 이끌었는데<sup>178)</sup>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목표설정의 중요성이다. 점령할 고지가 있어야 군대가 재빠르게 움직이고 전투를 하게 될 것이다. 맥가브란과 헌터는 선교사들에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도표화로 만들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풀러에서 가르쳤다.

1972년 4월 베네수엘라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평범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교인에 관한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왔고, 거버와 와그너는 그들에게 그 자료를 분석하고 도표화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가르쳤다. 그리하여 자신의 도표와 동료 목회자들의 도표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들에게 “교회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믿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음으로 교회성장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켰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난 10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얼마였고, 앞으로 5년 동안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계산해 내는 세미나였다. 이러한 세미나가 1973년에

178) D. McGabran, G. G. Hunter, 교회성장학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77-78. 베네수엘라에서 실적을 토대로 가비는 유명한 God's Way to Keep a Church Going and Growing 란 책을 통해서 교회성장의 자주적인 강습회를 개최하고 지도했다. 교회성장을 위한 목표설정에 관한 책이다. 32개국으로 번역되었고, 56개국에서 강습회를 하였다. 풀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도표를 보고서 3년, 3년, 3년간의 성장목표를 제시하라고 가르쳤다.

서 1977년까지 4년 동안 교회성장사상(Church Growth Thinking)이란 이름으로 전세계에 퍼지게 되었다.

47개국으로 번역되어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선교사, 신학교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성장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첫째, 목회자들과 각양각색의 다양한 교회들이 교회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둘째, 그들의 교회성장에 대한 성경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충실하지 못한 그들의 교회의 도표를 보았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셋째, 그들은 실제적인 성장 가능성을 예상하기 시작했다. 평신도의 중요성과 또한 어떻게 하면 교회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토론회와 교회성장을 위해서 기도 하게 되었다. 넷째, 세미나 후 교회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마게도냐의 부름에 응하였다.<sup>179)</sup>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점검하고 지난 10년간의 교회현황을 도표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본 연구자는 NCD, 국제제자훈련원, 교회성장연구소등의 도움을 받아 먼저 교회를 진단하고 정체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교회성장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NCD와 국제제자훈련원, 그리고 교회성장연구소의 교회진단결과는 제3영도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 주었고, 분석결과는 정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도 보여준 셈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위의 기관들의 교회건강 진단 분석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전략을 세워서 정체성을 극복하고 교회가 건강을 되찾고 성장하도록 하겠다. 물론 결과는 5년 후, 10년 후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 제 1 절 제3영도교회의 성장 비전과 목표

교회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설정 즉 비전이다. 이 비전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비전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칼 힐티(Carl Hilty)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한 날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성도와 공동체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179) Ibid., 79-80

비전과 사명은 같은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탁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그래서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며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비전과 사명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략들이 있을 뿐이다.<sup>180)</sup>

## 1. 교회성장 비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빌 2:13; 딤후 2:4)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교회성장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 가. 제3영도교회의 비전

진 게츠가 그의 저서 현대교회 성장학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에서 목회자가 목회계획이나 목회철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렌즈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성경의 렌즈, 역사의 렌즈, 문화의 렌즈이다.<sup>181)</sup>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문화적 가치를 수반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목회철학을 세우라고 충고하는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릭 워렌이 “의기 소침한 교회를 생기 왕성한 교회로 바꾸는 데 교회의 목적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결코 없다”<sup>182)</sup>고 한 말에 동감을 넘어서 절감한다. 맥가브란이 교회성장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의 개념을 상기하면서 제3영도교회의 성장비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행복을 심어주는 교회’이다.

릭 워렌이 일본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자기 사역을 맥가브란의 교회성장론을 가지고 심각하게 점검하고 성찰한 것처럼<sup>183)</sup>, 본 연구자도 제3영도교회를 살펴본 결과 성장 비전과 성장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래

180) 박노진, 비전형 인간 (서울: 규장, 2004), 53-54.

181) 윤의근, 목회계획을 위한 프로그램 뱅크 (서울: 쿤란출판사, 2002), 14.

182)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6), 99.

183) Ibid., 40-41.

서 성장 비전문을 만들었다. '제3영도교회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위대한 명령(복음전파)을 수행한다.' 또한 제3영도교회의 표어를 '행복을 심어주는 교회'로 정하였다. 행복이란 복음을 의미하는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심어주어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아가 양육받고 훈련받아 복음전파하는 것을 행복이라 정의한다. 결국 행복한 교회란 건강한 교회를 의미한다. 건강한 교회는 열매와 성장을 가지기 때문이며,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교회성장을 이루어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건강하기에 열심히 일할 수 있다.

#### 나. 성장 목적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패러디하여 철저히 목적 있는 삶을 강조하고 성도로 하여금 목적을 갖도록 한다. 제3영도교회의 존재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 양육, 훈련시키고, 도와드리기 위해 존재한다. 제3영도교회가 영도에서 50여개 교회 증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도 절대 다수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에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 복음전파하여 예배자로 만들고 사명자로 만들에 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제3영도교회가 추구하는 몇 가지 있다.

## 2. 성장 목표

### 가. 건강한 교회

'두 날개' 이론을 가진 NCD의 교회론<sup>184)</sup>이나 '목적이 이끄는 교회론'을 가진 릭 워렌의 주장이나 교회성장의 원조요 교회성장이란 용어를 만든 도널드 맥가브란의 주장도 건강한 교회였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벤 엔겐(Charles Van Engen)이 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sup>185)</sup> "블이 타

184) 두 날개란 대예배와 소그룹을 의미한다.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21세기를 위한 교회 갱신,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개정판, 2001) 32.

185)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운택 역 (서울: 두란노, 1995), 32.

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는 에밀 브루너(Emil Brunner)의 주장을 인용하여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는 선교가 아니면 선교가 아니다.”<sup>186)</sup>

교회가 선교(복음전파)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복음에의 확신과 삶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행 2:46)라는 말씀은 예배와 영광을 경험하는 큰 날개와 가정에서 모이신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가족 공동체의 경험을 누리는 작은 날개이다. 제3영도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회상은 소그룹, 즉 구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전도와 양육과 돌봄이 일어나고, 교제가 넘쳐서, 대그룹인 주일예배에 감격을 가지고 예배자로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새 힘을 얻어서 가정과 사회로 흩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므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성도와 교회를 꿈꾸고 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들백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본 교회에서도 실시하고자 한다. 매년 실시는 힘들고 2년에 한번씩 실시함으로 온 성도가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 나. 행복을 심어주는 교회

성도가 행복해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행복을 되찾아 주고 행복을 누리게 함으로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다.

본 연구자는 1994년도 9월에 부임하여 교회 표어로 삼은 것이 ‘행복을 심어 주는 교회’였다. 교회요람에 행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였다.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으며,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 즉 복음이 행복이다. 이 행복을 우리만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 즉 아직도 이 행복을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그들의 가슴에 행복을 심어주길 원한다. 이것이 제3영도교회의 목회철학이요, 표

186) Ibid., 33.



어인 것이다. 제3영도교회의 존재목적은 내가 소유한 이 행복을 모든 이웃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sup>187)</sup>

행복을 심어주기 위해서 새들백 교회에서 실시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실시기로 결정하고 2005년 5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구역도 명칭을 "행복을 나누어 주는 구역", 모든 교회문서에서 교회명을 사용할 때, '꿈과 비전과 행복을 심어주는 교회'라고 사용한다. 온 성도로 하여금 철저히 '행복을 심어주는 교회'임을 깨닫게 한다. 주일학교도 행복 주일학교로 사용하고, 교회의 모든 부서에 행복을 심어주는 교회임을 사용케 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고자 한다.

행복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내가 행복을 깨닫고, 누리고, 맛보아 알고 난 뒤 그 행복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교육체계를 '행복을 알게 하기', '행복을 누리기' 그리고 '행복을 심어주기'로 단계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것은 주보를 통해서 시각화 하여 온 성도로 하여금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을 나누어 주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새 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새 가족 부에서 5주간 공부하고, 그 다음단계가 확신반 그리고 성장반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때에 행복을 심어주는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심어주는 성도가 되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행복 누리기 단계에서는 제자반과 사역자반으로 나누어 공부한다. 마지막으로 행복 나누기 단계에는 소그룹 지도자반, 전도폭발이 있다.

#### 다.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개혁된 교회는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처럼 교회는 계속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를 계속해야 된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은 그대로 있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예식,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문화에 걸맞게 수용성 있게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방법이나 문화를 가지고 새 세대를 담을 수 없다고 본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둘 다 보존한다는 말의 의미처럼 교회는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복을 심어주는

187) 제3영도교회 2004년 요람, 4.

구역은 셀 구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비전 2000·200·20·2' 라는 슬로건이 있다.

2,000은 2,000명을 의미하는데 출석교인 2,000명을 말하고, 200은 소그룹 지도자 200명을 의미한다. 이 소그룹 지도자가 1명당 10명을 섬기고, 양육 훈련 한다면 출석교인 2,000명 돌파는 무난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200명의 소그룹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소그룹 지도자반을 만들어서 2년간 3사람을 수료시켰다. 계속 소그룹지도자반을 개설하여서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하도록 하겠다. 20명은 자비량 선교사를 의미하고 2는 두 사람의 선교사를 전적 후원 하겠다는 계획이다.

#### 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

제3영도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킬 것이다. 이웃을 섬기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이며, 이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한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막 10:45)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꺼려하는 자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복되도다"(행 20:35)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할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약 1:22)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였는데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소그룹과 양육공부를 통해 철저히 교육하고자 한다.

현재 구제부의 구제방법을 강화하고 보완하며, 구제금 전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교회성장적인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상을 죄악시하고 세상을 탈피하는 자세가 아닌 세상의 죄를 걸머지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성도로 훈련시켜 영도를 복음화시키고 나아가 부산의 복음화에 앞장서도록 비전을 심어줄 것이다. 그래서 한글학교<sup>188)</sup>를 더 잘 섬기며, 교회부설 산돌어린이학교를

188) 본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영도한글학교가 수업하고 있다. 여기에 공책과 교과서를 지원하고 때로는 소풍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다. 현재 재적이 120명 정도이며, 출석은 80-90명 정도이다.

잘 운영하여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전인가족연구소를 통한 대민봉사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명실공히 사회를 섬기는 교회,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로 만들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에서 더욱 인정과 칭찬과 존경받는 교회를 목표로 한다.

## 제 2 절 제3영도교회의 성장전략

### 1. 소그룹을 통한 정체성 극복

제3영도교회는 교회성장연구소의 진단, NCD의 진단, 국제제자훈련원의 도움을 받아 교회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회성장연구소의 진단에서는 열정감퇴, 시설협소, 노령화의 문제를, 또한 NCD의 진단에서는 기능적 조직과 소그룹이, 국제제자훈련원의 진단에서는 소그룹과 전도, 조직이 최소치요소로 나타났다. 진단결과 제3영도교회의 정체에 있어서 소그룹의 정체가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소그룹의 정체는 결국 대그룹의 정체로 이어진다.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특히 교회성장 연구소 명성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하다.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의 날개이다. 역동적이며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는 성장한다. 그러나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만남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만남이 있어야 소속감과 가치감을 가질 수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소그룹이다.<sup>189)</sup>

이처럼 소그룹은 교회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정체된 제3영도교회에서는 소그룹의 활성화라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소그룹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3영도교회의 정체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떤 소그룹이 정체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교회성장연구소 명성훈은 교회성장형 소그룹의 7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190)</sup>

189)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6.

190) Ibid., 81-104.

첫째, 교회성장형 소그룹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탁월하다. 둘째, 교회성장형 소그룹은 사랑의 교제로 인한 생명력이 넘친다. 셋째, 교회성장형 소그룹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넷째, 교회성장형 소그룹은 사랑과 섬김의 구제가 있다. 다섯째, 교회성장형 소그룹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여섯째, 교회성장형 소그룹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다. 일곱째, 교회성장형 소그룹은 전도하여 배가된다.

일곱 가지 특징을 지닌 교회성장형 소그룹의 모습을 볼 때 소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대그룹의 특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의 교회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크면서도, 목회적인 돌봄의 사역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작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sup>191)</sup> 따라서 교회의 정체를 극복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 정체를 극복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소그룹으로 세워가고 활성화할 수 있을까?

#### 가. 소그룹 활성화 방안

소그룹을 살리고 확장시키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먼저 필요한 것이 소그룹 지도자 양성이라고 생각한다.

##### (1) 소그룹 리더 양성

아무리 소그룹을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가 없어서는 소그룹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의 생각과 의도를 지니고 있는 소그룹 리더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3영도교회는 교회의 비전<sup>192)</sup> 가운데 200명의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하나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제3영도교회가 지향하는 소그룹 리더는 첫째 말씀과 묵상으로 늘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신앙이 성숙한 자, 둘째 사랑 중심의 성품을 지닌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자,

191) Ibid., 6.

192) 제3영도교회의 비전은 Vision 2222이다. 2000명의 출석성도, 200명의 소그룹리더자, 20명의 자비량 평신도 사역자, 2명의 전적후원 파송 선교사를 세워가는 것이다.

셋째 겸손히 배우는 자, 넷째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자, 다섯째 혼자서 일하지 않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sup>193)</sup>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명성훈은 5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sup>194)</sup> 첫째, 숨어있는 리더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는 다수 속에서 리더를 찾아야 한다. 소그룹 속에 있는 가능성 있는 리더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윌로우크릭교회의 방법이 적합하다. 소그룹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사람, 지금의 리더에게 도전적인 사람, 은사가 눈에 띄는 사람, 가능성 있는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소그룹 사역에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사람, 영적 정서적 사회적 자질이 보이는 사람을 가능성 있는 리더라고 여기고 차기 리더로 훈련시켜서 세우도록 한다. 둘째 양육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해야 한다. 하나는 리더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리더로서의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3영도교회는 새 가족반, 확신반, 성장반의 정착 양육 과정이 있으며, 정착 양육과정을 마친 자들이 들어가는 제자반, 사역자반, 지도자반을 소그룹 리더 양육커리큘럼으로 정하고 있다. 셋째 리더의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헌신 의식, 지체 의식, 순종 의식, 사명 의식을 가르쳐야 한다. 넷째, 소그룹 운영법을 가르쳐야 한다. 소그룹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소그룹을 제대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소그룹 운영법을 가르쳐야 한다. 소그룹 운영의 태도와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리더로 세워진 후에도 양육해야 한다.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 리더 훈련만 할 것이 아니라 소그룹 리더가 된 후에도 지속적인 리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그룹 리더자의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교육이 소그룹의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제3영도교회는 소그룹 지도자 커리큘럼에 의해서 소그룹의 리더자 상에 맞는 소그룹 리더를 세워갈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그룹 리더가 세워질 때 비로소 소그룹은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소그룹 리더만 세워졌다고 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

193) 명성훈, 소그룹리더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40-41.

194)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참조.

는 것이 아니다.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을 균형있게 운영해 나갈 때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균형잡힌 소그룹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 (2) 균형있는 소그룹의 4가지 요소

론 니콜라스는 훌륭한 소그룹 활동의 네 가지 요소로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선교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sup>195)</sup> 양육은 지성과 심령의 두 측면에서의 성장을 포함한다. 소그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 가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말한다. 양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성과 심령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성과 심령의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 내에서 말씀연구가 필수적이다.

소그룹 내에서 말씀을 통한 양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행위, 말씀 등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말한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그룹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혀지고 우리는 그분을 더욱 찬미하며 높이게 될 것이다. 소그룹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다. 공동체적 교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경험들을 중심으로 한 친교를 말한다. 공동체적 교제의 목표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적 교제가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선교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소그룹의 핵심적 4가지 기능을 극대화하는 소그룹의 활성화를 이룬 뒤 소그룹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소그룹 중심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 (3) 교회사역의 소그룹체제로 전환

교회사역을 소그룹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소그룹 체제로의 전환에 대하여 교회성장연구소 명성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5) Ron Nicholas,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99), 26-27.

소그룹 사역이 교회 내의 많은 사역 중 하나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본질로 다루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소그룹이 평신도 목회의 우선순위가 되어 모든 평신도들이 소그룹에 속하여 목회적 돌봄과 양육을 받는 것이다. 교역자들의 사역도 소그룹을 인도하는 일, 소그룹 리더들을 감독하며 돌보는 일 등 소그룹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일들 위주로 조직되는 것이다. 소그룹이 교회의 액세서리 프로그램이나 목회의 수단이 아닌, 교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sup>196)</sup>

이처럼 교회내 사역을 소그룹 체제로 세워간다면 좀더 효율적인 사역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사역이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소그룹체제로 전환하여 사역을 한다면 평신도들에게 많은 힘과 권위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그룹 활성화 전략을 제3영도교회 소그룹 모임에 적용을 시켜 소그룹을 통하여 제3영도교회의 정체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현재 제3영도교회의 소그룹 현황은 크게는 구역모임이 있으며, 양육부분에서는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지도자반이 있다. 구역모임은 소그룹의 역할 기능 가운데 교제에 치우쳐 있다. 양육부분은 주로 양육에 치우쳐 있다. 이와 같이 운영되는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가지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지니고 적용하여 운영해내야 한다.

## 2. 소그룹 운영 실제

### 가. 제자반 운영

먼저 제자반은 교회에 정착하여 개인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도들을 소그룹 리더자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이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우고 양육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제자반과 사역자반으로 나누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나와 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

196)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225.

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교회는 제자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 사람이 전도받고 교회에 등록하면 교회는 새 가족 공부를 통해 새 가족부 수료를 하게하고 학습, 세례를 받게 한 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열매 맺는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또 훈련받은 제자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줌으로 온 족속을 제자로 만들고 그리고 세례를 받도록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는 성도로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양육 훈련시켜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전도, 전파하는 사역을 위임하셨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제자 만들 것을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 교회가 본 받아 실시하여 온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제자로서 재생산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들이 나아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세례를 받게 하고 다시 재생산 양육케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목적을 두고 훈련하고 있다.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은 1단계는 제자훈련의 터다지기(6과), 2단계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14과), 3단계는 작은 예수가 되라(12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랑의 교회 부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발행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1년 2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 나. 사역자반 운영

사역자반은 제자반을 수료한 성도 중에서 중간리더로 은사가 있는 성도를 발굴하여 소그룹을 지도할 수 있는 성경지식과 그룹인도방법과 영성훈련을 받게 된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갖춘 평신도가 되게 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이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훈련을 한다.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제자훈련을 기초라고 한다면 사역자반은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은사가 있음을 개발시켜 중간지도자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참여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아픔과 외로움을 감내하면서 사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소외당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을 한다. 또한 소그룹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훈련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훈련을 받게 되면 소속감과 사역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

사역자반의 커리큘럼은 1단계, 성령, 새 생활의 열쇠(6과), 2단계,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9과), 3단계, 소그룹환경과 리더십(9과)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기는 2학기 1년 코스이다.

#### 다. 지도자반 운영

지도자반은 사역자반의 심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영도교회에서 새롭게 만든 단계이다. 제자반과 사역자반을 통해서 소그룹리더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었다면 지도자반을 통해서 목자의 훈련을 받아 담임목사와 함께 동역하며 각 소그룹을 리더 하는 리더자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즉 소그룹 지도자임과 동시에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지도자반을 통해서 세워진 리더들은 목회적인 직무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소그룹의 회원을 심방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전도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 조지는 “미래교회의 리더들은 간행물이나 성경공부교재를 만드는 능력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열어 그 속으로 리더가 접근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하여 그들과 관계를 맺는 기술로서 평가될 것이다”<sup>197)</sup>라고 한다. 이처럼 지도자반을 거친 지도자들은 담임목사의 소그룹 분야의 목회를 돕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197)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68.

지도자반을 통해서 세워진 리더들은 조용기가 말하는 구역장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소명의식을 지닌 구역장, 모범을 보이는 구역장, 강한 영적 군사로서의 구역장, 말씀을 연구하는 구역장, 기도의 이슬로 사는 구역장, 믿음의 집을 짓는 구역장, 사랑의 인내를 실천하는 구역장, 인격으로 말하는 구역장,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구역장, 약속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구역장을 지도자반을 통해서 세워갈 것이다.<sup>198)</sup>

지도자반을 위한 교과과정은 소그룹 양육에 관한 것과 성경일반 지식과 평신도 신학교의 수준을 가지고 일반상담(이혼, 청소년문제, 외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하여서 명실공히 소그룹 지도자를 양육하여 교회안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평신도 자비량 사역자로서 구역을 맡아서 관리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재생산하는 성도를 만들 때, 그래서 전담 사역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도는 함께 섬기는 멋진 꿈을 이루어질 줄 믿는다. 커리큘럼은 NCD의 셀그룹 커리큘럼 0-7권까지 새 가족 수양회, 내적치유수양회, 전도수양회, 영적 추수 수양회까지 2년 4학기 제도로 운영하고 교재는 NCD 셀그룹 0-7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1단원에서 12단원, 요단출판사 간행)을 가지고 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3영도교회는 제자반, 사역자반, 지도자반을 통해 세워진 소그룹 리더들을 200명을 양성하여 200개의 소그룹을 세워갈 것이다. 200개의 소그룹은 구역(셀) 그룹으로 소그룹 리더들에 의해서 예배와 양육, 전도와 교제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제3영도교회 내의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세워갈 것이다. 이로써 제3영도교회는 정체성을 극복하여 더 활력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 3. 전도 운동을 통한 정체성 극복

전도란 동일 문화권 속에 동일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민족이나 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도를 통한 수적 부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적 부흥을 위해서 지금까지 본 교회

198) 조용기, 희망목회 45년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231-260.

에서 실시해온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점검하여 실시함으로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될 때 가정이 건강하고 구역이 건강하며 나아가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더욱 강화시켜서 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교회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3영도교회에서는 몇 가지 전도운동을 통해서 영도지역 내에서 낙후되어지고 교회성장이 둔화, 내지는 정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극복하고자 태신자 전도운동<sup>199)</sup>과 전도폭발, 그리고 여호수아 전도대를 두어서 전 교인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에게 접근하게 하여 전도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전도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교회가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sup>200)</sup>,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해 오면서 축적된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정체성을 극복하는 길이 전도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몸은 건강하면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건강하면 성장한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병든 것이다. 사람도 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적 요소를 제거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게 될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교회의 병적 요소를 잘 파악하고 제거하고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나아가야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3영도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전도운동을 통해서 고여 있던 물을 퍼내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 가. 태신자 전도운동

‘태신자 전도운동’이란 주변의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 작성된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초청하고 등록케 한 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

199) 태신자 전도운동을 제3영도교회에서는 ‘다함께 가는 행복의 길 잔치’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했다.

200) 단지 전도폭발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리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했다.

여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는 전도 운동이다.

이 운동의 효시는 서울 왕성교회이다. 본인은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에게 태신자 전도운동을 한 학기 배운 적이 있다.<sup>201)</sup> 그리고 그 당시 시무교회<sup>202)</sup>에서 몇 차례 태신자 운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3영도교회에 접목시켰다.

그래서 제3영도교회에서는 태신자 전도 운동의 목적을 세 가지로 두고 있다. 첫째는, 모든 성도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해주며, 둘째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다 활력있게 그리고 성숙하게 하며, 셋째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체험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 태신자 전도운동 약사

1995년 10월에 시작된 태신자 전도운동은 2003년까지 10회에 걸쳐 진행 되었는데, 그 모체가 된 것은 왕성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던 태신자 전도운동이었다<sup>203)</sup>. 해가 거듭될수록 태신자 전도집회는 약간씩 발전하게 되어 5차 태신자 전도집회<sup>204)</sup>때부터는 사랑의 교회 대각성 전도집회와 왕성교회의 태신자 전도집회의 장점을 취하여 나름대로 제3영도교회에 맞는 태신자 전도집회를 가지게 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1차부터 3차 태신자 전도집회의 이벤트로 교회가 아닌 외부의 장소에서 불신 남편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불신남편 초청의 밤'<sup>205)</sup> 행사를 가지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말끔히 해소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인한 가족간의 괴리 현상이 치유되어 지고, 많은 가정이 회복되어 졌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초청되었던 남편들이 지금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주일 봉사를 하고 있다.

201) 본 연구자는 총신대학교 대학원 특별과정(1990년도) 길자연 목사에게로부터 태신자 운동을 배웠다.

202) 포항대흥교회 시무 때(1990.8-1994.7) 태신자 전도운동을 2년에 걸쳐 2회 실시하였다.

203) 산모가 태아를 10개월간 배속에서 품고 기르듯 성도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10달 동안 기도하고 사랑으로 접근하여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전도운동을 가리킨다.

204) 1999년 11월 12-14일.

205) 1995년, 장소는 태종대 곤포가든, 행사비용이 많이 든다는 평신자 지도자들의 비판을 수용함으로 인해 불신자 남편 초청의 밤은 중지하였는데 지금 생각은 계속하지 못하였음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된다.

태신자 전도집회는 1차부터 3차까지는 평일, 혹은 주일 하루만 가졌다가 4차 때 부터는 3일정도의 집회를 가졌었다. 강사로는 1차부터 4차까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담당을 했고, 5차 집회 때부터는 외부 강사 한두 명을 초청하여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때로는 인기 연예인을 강사로 초청할 때도 있었는데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교회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에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다.

5차 태신자 전도집회 때에 앞에서 언급한대로 나름대로 제3영도교회의 태신자 전도집회 스타일이 정착되었는데 10개월간의 긴 전도운동을 이끌고 나감에 있어서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전도 동기 부여 집회를 영적 각성과 부흥,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3일간의 집회를 가져서 교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전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다.

매년 10월 11월에 가졌던 태신자 전도집회를 2003년부터는 5월중에 계획을 하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초부터 10개월 내지 11개월 동안 교인들이 전적으로 헌신해 주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전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전반기에는 태신자 전도운동을, 후반기에는 전반기부터 시작된 태신자 전도운동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낙심한 사람들이나,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하여 잃은 양 찾기 운동<sup>206)</sup>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태신자 전도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6,194명이며 이들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도집회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에 등록하여 새 가족부를 거쳐서 확신반으로, 확신반을 마치게 되면 성장반으로, 성장반이 끝이 나면 제자반, 전도폭발, 사역자반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

## (2) 2004 태신자 전도운동 계획

2004년 태신자 전도집회는 5월 23일-25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8개의 분과로 구성된 태신자 전도운동위원회에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 특징, 전체 일정 기획 및 각 분과별 사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참조, 부록 1).

206) 3영도교회에서는 그 명칭을 '다함께 가는 소망의 길 잔치'라고 붙였다.

### (3) 태신자 전도운동의 진단과 대책

<표 12>를 보면 1994-2003년까지 태신자 전도 운동을 통해서 결신된 자가 1,000명인데 왜 교회는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까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결신자가 영도 밖에서 생긴 것이다. 초신자가 먼 거리에서 출석하다 보면 가까운 교회에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억지로 먼 곳 영도까지 올 필요 없이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결신자를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 본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실패 한 것이다. 즉 앞문으로 많이 들어 왔지만 뒷문으로 많이 나간 것이다. 셋째는 결신자에게 도우미는 한사람씩 배정해서 초신자의 친구가 되고 영적 도우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약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대책으로 확신반과 성장반<sup>207)</sup> 설치하여 태신자 운동 후 취약적인 뒷문을 막고, 강도 높은 일대일 양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자교회와 다른 점은 본 교회는 일대일로 양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4) 태신자 전도운동 전망

이렇게 평신도를 훈련시켜 태신자 운동과 평상시 전도되어 본교회로 출석하게 되는 모든 전입신자와 새 신자들을 체계적인 양육을 실시함으로 교회는 반드시 정체를 극복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본다.

10차까지 진행된 태신자 전도운동을 통해서 영도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에 정체된 전도운동에 불을 붙일 수 있었고, 태신자 전도운동을 전개한 10년 동안 전도되어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을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의 등록자들이 태신자 전도 운동을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었거나, 본 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접촉되어진 사람들이었기에 태신자 전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207) 서울 제자교회의 제자양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3영도교회의 실정에 맞게끔 적용시켰다. 2003년부터 제3영도교회에서는 그룹이 아닌 일대일로 확신반(5주), 성장반(15주)을 실시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

<표 11> 지난 10년 태신자 전도운동 대상자 및 결신자 현황<sup>208)</sup>

|     | 일시                      | 강사                       | 작성수  | 등록수  | 조산자 | 태신자<br>참석자 | 결신자  | 전체<br>참석수        |
|-----|-------------------------|--------------------------|------|------|-----|------------|------|------------------|
| 1차  | 1995.10.15(일)           | 정우진                      | 303  | 667  | 32  | 148        |      |                  |
| 2차  | 1996.10.27(일)           | 정우진                      | 173  | 371  | 38  | 76         |      |                  |
| 3차  | 1997.10.19(일)           | 정우진                      | 169  | 354  |     | 202        | 30   |                  |
| 4차  | 1998.11.6(금)<br>-8(일)   | 정우진<br>(음악회<br>스타일)      | 236  | 756  |     | 473        | 91   | 2,066<br>(집회-8회) |
| 5차  | 1999.11.12(금)<br>-14(일) | 한인수<br>김해경<br>정우진        | 165  | 818  |     | 544        | 114  | 2,224<br>(집회-8회) |
| 6차  | 2000.10.13(금)<br>-15(일) | 김진규<br>김문훈<br>정우진<br>정판술 | 301  | 732  |     | 356        | 86   | 2,131<br>(집회-8회) |
| 7차  | 2001.4.15(일)<br>-18(수)  | 변영인<br>김문훈<br>신상현<br>이상규 | 280  | 708  | 14  | 183        | 59   | 1,627<br>(집회-7회) |
| 8차  | 2001.10.21(일)<br>-23(화) | 정우진<br>오창극<br>허원구        | 262  | 637  | 15  | 244        | 118  | 1,196<br>(집회-5회) |
| 9차  | 2002.10.20(일)<br>-22(화) | 정우진<br>허원구<br>이한의        | 311  | 706  | 16  | 274        | 185  | 1,259<br>(집회-5회) |
| 10차 | 2003.5.18(일)<br>-20(화)  | 정우진<br>안민<br>김태영         | 277  | 799  |     | 564        | 317  | 1,256<br>(집회-5회) |
| 합계  |                         |                          | 2477 | 6548 | 115 | 3064       | 1000 |                  |

10차례 정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진 전도 운동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의 생활에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

208) 제3영도교회 태신자 전도집회 자료모음집(1995-2003)

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교회를 담임하는 본 연구자로서는 태신자 전도운동이 교회 정체성을 극복하고, 고인 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며,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됨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매해마다 10퍼센트 성장을 목표로 하여 태신자 전도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인데 2010년말이면 출석성도 2,000명이 될 것이다.

<표 12> 연도별 성장목표

|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성장목표 | 1,100 | 1,200 | 1,300 | 1,400 | 1,600 | 1,800 | 2,000 |

이를 위해서 태신자 전도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아직도 부산 경남, 특히 영도에는 미신과 우상숭배가 심하기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 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있기에 단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총동원 전도주일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관계 중심전도인 태신자 전도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며, 성장시키며, 교회 60주년인 2009년까지 출석성도 1,800명을 달성하고 2010년에 출석성도 2,000명 달성을 마무리 할 것이다.

#### 나. 전도폭발

본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도폭발 훈련<sup>209)</sup>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돕는 훈련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전도활동을 할 때만 아니라 개인전도를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한 새신자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무장시켜주고, 전도 훈련을 받을 훈련생을 다시 훈련자로 세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9)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부에서 훈련을 받고 온 훈련자들로 구성되었고, 그 목적은 국제전도폭발 훈련원에서 세운 목적을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제3영도교회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고 있다.



## (1) 제3영도교회의 전도폭발 역사

제3영도교회에서 전도폭발이 시작된 것은 본 연구자가 부임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87년도에 전임 목사가 전도폭발 한국 본부에서 실시하는 임상훈련을 받음으로 시작되었다<sup>210)</sup>. 1988년 6월에 제2기 훈련을 실시하여 23명을, 제3기는 89년 9월에 10명, 90년 2월에 시작된 4기는 4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5기는 91년 2월에 시작하여 12명이, 6기는 17명의 사람들이 92년 10월에 수료를 하게 되었다. 1기부터 5기까지는 낮에만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했지만, 6기 때부터 저녁반을 개설하여 직장인들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7기는 23명의 사람들이 6기가 수료할 때에 시작하여 다음해인 93년 3월에 수료를 하게 되었다. 8기는 18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훈련과정에서 개인의 사정으로 끝까지 훈련을 받지 못했기에 12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에 9기부터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 제9기는 6명, 제10기는 14명, 제11기는 6명, 제12기는 7명, 13기는 8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14기부터는 전폭 훈련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다시 구분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여 전도폭발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했다. 그래서 14기에는 1단계 7명, 2단계 5명이 수료를, 15기에서는 1단계 4명, 2단계 3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으며, 16기에 와서는 훈련의 단계를 4단계까지 그 폭을 넓혔는데, 1단계 16명, 2단계는 13명, 3단계는 6명, 4단계는 6명으로 41명의 훈련받은 사람들이 수료를 하게 되기도 했다.

&lt;표 13&gt; 전도폭발 훈련생 수료현황

| 기수 | 수료생 | 기수 | 수료생 | 기수  | 수료생 | 기수  | 수료생 |
|----|-----|----|-----|-----|-----|-----|-----|
| 1기 | 11명 | 5기 | 12명 | 9기  | 6명  | 13기 | 8명  |
| 2기 | 23명 | 6기 | 17명 | 10기 | 14명 | 14기 | 12명 |
| 3기 | 10명 | 7기 | 23명 | 11기 | 6명  | 15기 | 7명  |
| 4기 | 4명  | 8기 | 12명 | 12기 | 7명  | 16기 | 41명 |

그래서 제1기부터 16기까지 총 수료자는 210명으로 교회에 전도의 귀한 초석을

210) 87년 가을 대심방시에 전교인에게 적용한 결과 300명 이상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기쁨을 맞보고 1988년 2월부터 교역자반과 여성반으로 구분해서 제1기를 시작하였는데 각각 7명과 4명으로 11명을 훈련하게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루며 매년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였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에 등록된 새신자의 수는 매년 평균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표 14> 연도별 전도폭발 전도를 통한 새 가족 등록 현황

| 연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합계   |
|----------|------|------|------|------|------|------|------|------|------|------|
| 새 가족 등록수 | 234  | 180  | 211  | 393  | 231  | 244  | 193  | 172  | 244  | 2102 |

### (2) 2004년 계획

1. 2단계에 그쳤던 훈련을 4단계까지 넓히면서 얻은 유익은 4단계까지 훈련받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지금까지는 전도폭발 사역의 훈련자가 대부분 교역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4단계까지 마치고 난 후에는 교역자에게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4단계 훈련을 마친 평신도들이 계속해서 전도폭발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 점이다. 그래서 교역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전도폭발 사역이 더 이상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 (3) 전도폭발의 진단과 대책

전도폭발은 제임스 케네디를 통해서 제창되어 전 세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력한 전도운동이다. 본 교회에서는 국제전도폭발 훈련원에서 시키는 그대로 해오다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운동에서 주로 새 신자들의 신앙점검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으로 약화되었다고 본다. 즉, 이론적 훈련을 받고, 실습한 후 돌아와서 실습보고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도 실습보고를 그 다음주에 함으로 인해 전도폭발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2001-2003년까지 3년 동안 변칙적인 운영으로 인해 전도폭발이 폭발력을 많이 상실하였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2004년도부터는 임상훈련시 받았던 그대로 훈련할 계획이다. 전도폭발 1, 2 단계만 제대로 되어도 수적 성장은 대단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 (4) 전망

본 연구자가 담임을 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특히 전도에 강조를 둔 것은 내부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전도를 함으로 불식되어지고 종식되어짐을 알기에 1단계에 그쳤던 전도폭발훈련을 4단계까지 폭을 넓혔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전도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어줌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게 만들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교인들을 무장을 시켜야 하는데, 단순히 영혼 하나를 건지는 것보다는 영혼을 건지는 사람 하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태신자 전도운동과 맥은 같이 하면서 노방전도나 관계전도를 통해서 결신시키고 교회로 데려오는데 기쁨을 누리고, 전도의 생활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교인들이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심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인으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훈련생의 수가 210여명이 되어 현재 출석교인의 2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20퍼센트 정도 그 숫자를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전 교인의 50퍼센트 정도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며 훈련받은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도지역과 부산의 복음화율이 높아지게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제3영도교회 전도폭발 사역이 지역교회에 영향을 끼쳐 다 함께 영도를 복음화 해야 할 것이다.

<표 15> 연도별 전도폭발 훈련생 배출 계획

| 연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훈련생 | 210  | 250  | 300  | 360  | 430  | 520  | 620  | 750  | 900  |

#### 다. 여호수아 전도대

전도폭발과는 달리 여호수아 전도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점

령할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수 6:1-27)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힘없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도폭발 훈련을 마친 자들과 그 외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중심으로 새 천년이 시작되면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를 갖추어 노방전도, 아파트 전도, 병원전도, 지하철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2명씩 짝을 지어서 지역사회 복음화 일환으로 전도대를 만들 필요성을 절감하고 만든 것이 여호수아 전도대이다.

#### (1) 여호수아 전도대 역사

여호수아 전도대의 태동은 교회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신축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 21C를 시작하면서 입주하게 되었는데 1,000세대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집중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2000년 5월에 만들게 된 것이다.<sup>211)</sup>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입주민들에게 교회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한 생수를 제공하면서 전도를 시작했고, 아파트 현관 손잡이에 걸어 둘 수 있는 전도지, 티슈, 이쑤시개,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전도용품을 제작하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게 된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2시간 정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2인 1조가 되어서 영도지역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있으며, 지하철, 병원, 아파트, 거리고 일반주택, 상가 등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

여호수아 전도대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어야 하며, 전도에는 연령이나, 환경이나 지식 등의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군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 전도대의 연령을 분석해 보면 2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11) 교회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반도보라 영선 아파트, 총 1,100세대가 2000년 5월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 (2) 여호수아 전도대의 진단과 대책

4년 전도의 시행착오 끝에 조금은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평신도를 무장시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루기 위해서 몇 가지 진단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여호수아 전도대의 목적과 목표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전도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완성시키며,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비만에 걸리지 않고 영적 건강을 유지케 하며, 능력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전도대는 목표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아래와 같이 매년 전도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표 16> 여호수아 전도대 만남목표 및 결신목표

| 연도   | 만남목표  | 결신목표 | 연도   | 만남목표  | 결신목표 |
|------|-------|------|------|-------|------|
| 2004 | 1,000 | 100명 | 2007 | 1,600 | 160명 |
| 2005 | 1,200 | 120명 | 2008 | 1,800 | 180명 |
| 2006 | 1,400 | 140명 | 2009 | 2,000 | 200명 |

전도대에서는 만난 사람의 10퍼센트를 등록시키고 결신시킨다는 목표를 세운다. 2009년까지 총 9,000명에게 전도하여 10퍼센트인 900명을 전도한다. 이 수치는 2009년도에 출석교인 2,000명을 만드는 것과 같은 수치이다.

## (4) 2004년 계획과 전망

노방전도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를 볼 때에 계속해야 되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고, 자칫하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겠느냐는 한국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약 4년간의 여호수아 전도대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한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호수아 전도대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도지역의 불신자들까지도 3영도교회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전도활동을 벌이고 있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현저한 역사는 없지만 사탄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영도지역과 부산지역을 누

비면서 땅을 밟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여호수아 전도대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여호수아 전도대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고, 전도를 나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와 기도의 응답등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기에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전도대에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도지역은 섬지역이기에 어디를 가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바닷가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더 악한 영의 세력들과 영적인 최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여호수아 전도대의 사역이 필요하며 더 많은 성도들이 2004년도에도 이 일에 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치 성경에 주님께서 제자들 들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하신 70인의 전도대처럼 70개의 전도팀을 조직하여 영도와 부산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4. 신축 교육관에서의 문화사역 프로그램 통한 정체성 극복

교육관은 대지 400평 위에 연건평 1,000평의 5층으로 된 건물을 2001년 9월에 기공, 2002년 6월에 완공하여 제3영도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관을 신축할 당시 교회당의 건축이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게 된 것은 교육의 100년 대계를 내다본 결정이다.

현재 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973년도에 건축되어진 3층짜리 건물인데 복잡하게 예배를 드릴 경우에 1회에 약 500여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곳에서 유치부에서 청년1부에 이르기까지 주일이면 도저히 소화해 낼 수 없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회 주변 일반 주택을 매입해서 부족한 공간을 교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었지만 노후되고 주택의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하루 없는 절대적인 교육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장년예배는 다소 공간의 부족이 느껴지지만 3부 예배<sup>212)</sup>를 드림으로 주일예배 인원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에 자라나는 주일학교 교육과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교회의 강한 의지에 따라 교육관을 신축하게 된 것이다.

212) 1부-오전7시30분, 2부-오전10시, 3부-오전11시30분에 각각 예배가 드려진다.

### 가. 신축 교육관 규모와 사용용도

처음 설계할 때부터 교육관은 교회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10개월 정도 걸쳐 건축되어진 교육관은 완공과 함께 1층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기회를 넓혀 가려고 했고, 2층은 산돌 어린이 학교(Living Stone Kids School)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저소득층이나 극빈자 자녀들 중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3층에는 전인가족 연구소와 컴퓨터실, 독서실, 세미나실을 두어 언제든지 누구라도 교육관에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 사용범위를 넓혀 두었다.

일반적인 교회의 교육관 활용은 주일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평일에는 문을 닫아둔 채 일반인들에게는 특히 비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꺼리는 교회가 많은 것을 보고 교회가 좀더 사회에 다가가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만듦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 시키고자 교육관의 모든 부분을 영도의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려고 당회와 상의할 예정이다.

### 나. 경로학교 운영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세대를 위하여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무료진료소 운영, 건강체조, 한글학교, 무료급식, 무료 이·미용실 운영, 고적답사, 레크리에이션 등-을 준비하여 사회봉사 및 실버사역을 전개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영도지역의 특성상 아직까지 한글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실버세대를 겨냥하여 한글학교<sup>213)</sup>를 운영하고 있다.

그 규모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누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년 약 200여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등록하여 글자를 익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활력소가

213) 한글학교를 편의상 '경로학교'로 명명한다. 이 학교는 본 교회의 성도인 정치인 이면서 안수집사인 이 영씨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인데 본 교회의 교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되고 있기도 하다. 경로학교에 입학기준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역주민이며,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경로학교를 하면서 거는 기대는 경로학교를 거쳐 가는 많은 실버세대들이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평소에 교회라고 드나들기를 꺼려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 교육관을 찾는 만큼 전도의 문은 더 활짝 그들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이런 기회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을 상대로 전도폭발과 여호수아 전도대가 전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을 잘 섬김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할 것이다.

#### 다. 컴퓨터교실 운영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청소년들이나 컴퓨터 세대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은 21세기 정보화 시대, 특히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글로벌 시대에 누구나 마음껏 정보를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첨단 컴퓨터 장비를 갖추기로 계획을 했는데, 완공됨과 동시에 11대의 최신형 컴퓨터와 인터넷을 구축하였다.

현재 컴퓨터실 운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 첫째는, 교육부서 학생들에게 개방을 해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는, 장년층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1년에 4차례 분기마다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컴퓨터 이해, 타자연습, 워드작업, 인터넷 검색, 홈페이지 이용 등 컴퓨터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위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비용이며, 운영에 관계된 모든 비용은 동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장소 및 장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아이들이 게임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역기능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컴퓨터를 매체로 하여 학생들을 만나고, 본 교회의 학생들로 하여금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게 해 줌으로 중, 고등부 성장의 한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



#### 라. 독서실 운영

교육관 3층 308호에 60여명이 동시에 공부 할 수 있는 독서실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오후 11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특별히 방과 후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업지도와 특별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쉼터로 마련해주고 복음으로 접근하여 미래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독서실을 운영하게 된 것은 특히 영도에는 저소득층이나 절대 빈곤계층이 교회 주변에 많이 있어서 공부방이 제대로 없어서 먼 곳에 있는 사설 독서실을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진다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 여겨져 지금까지 독서실을 개방하고 있다.

학원비로 인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1년 2차례의 긴 방학동안에 본 교회 대학생들로 구성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교회내의 엘리트 학생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공부방을 찾는 아이들은 학습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선 후배간의 만남을 통해서 사춘기 때에 겪게 되는 고민 등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고, 많은 도전도 받을 수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과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다.

#### 마. 지역사회 가족 상담실 운영

흔들리는 가정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고자 죄의 파괴적인 결과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가족 상담실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한 불행한 현실과 함께 복잡한 현대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정파괴 현상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서 전인 가족 연구소를 유치<sup>214)</sup>하여서 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214) 2002년 9월 15일 교육관 3층 303호에 개소함.

가지 갈등의 요인들을 마음 놓고 상담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 전인 가족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유 상담학 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영도구민들의 가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인 가족 연구소와 협력하여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주요 상담 사역으로서는 청소년 성 상담, 혼인상담, 부부 상담, 고부간의 갈등 상담, 이혼 상담, 성폭력, 가정 폭력 등을 다루고 있다.

## 5. 전인가족 치유상담 학교를 통한 정체성 극복

### 가. 설립 목적

전인가족 치유 상담학교는 파괴되어가고 황폐화 되어가는 가정을 치유하고 바로 세워서 교회를 건강하게하고 사회를 행복하게 하기위한 지극히 성경적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설립하였다. 본 연구자는 전인가족 치유 상담학교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삶을 기대하며, 우리 가정·우리 가족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로 치료되는 과정들을 연구하고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요, 언약의 공동체이다.<sup>215)</sup>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의 교만과 불신으로 계속된 타락, 즉 죄의 파괴적인 결과들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있다. 가정이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될 때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다. 기독교 가정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이다. 유기체인 가정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교회는 작은 교회인 가정이 모인 큰 공동체로서 하나의 큰 가정인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성숙되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치유목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새 창조질서안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 성장의 길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 대한 사역의 성공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뛰어난 가정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가정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있느냐에 따라 측정할 수밖에 없다. 그 영향의 기준은 가정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그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가족간의 관계가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

215) 김길자, 현숙한 여인의 성경적 가정 (서울: 새한기획 출판부, 1992), 58.

각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의 회복 및 성장은 곧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므로 교회 성장을 위한 가정 사역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하나님의 징계아래 있는 가정을 복음 사역을 통하여 하루속히 구원하며, 말씀의 통행으로 가정을 회복시킴으로 가정도 회복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극복하여 성장케 하는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 나. 활동 상황

제3영도교회 내에 자리 잡은 전인가족연구소는 변영인 소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에 전인가족연구소가 있게 되었다. 전인가족 연구소의 활동은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변영인 소장의 세미나 및 교육활동과 다른 하나는 상담사역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상담 장소와 세미나 실을 본 교회가 제공하고 있다. 교회는 그들과 협력하여 피폐해져 가는 오늘날 가정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사역 및 치유상담학 연구과정(초, 중, 고급, 심화과정), 청소년 상담학, 결혼 예비학교, 부부세미나, 자녀 양육 세미나, 밝은 성문화 축제(교역자 및 지도자 현대 목회 현장을 위한 성문화 이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강좌 등이다.

##### (1) 가정사역 및 치유상담학(초, 중, 고급, 심화과정)

이 과정들은 신학적 접근과 심리 사회학적 접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 과정이 짜여져 있다. 각 과정을 통하여 가정사역과 치유상담을 위한 소양을 쌓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가정상담을 배움으로 인해 자신을 먼저 치유하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배양한다. 그 내용은 자아 발전을 위한 자아 진단과 자기이해, 심리학, 가족이해, 언어소통, 성경적 가정, 성격심리, 그리고 가정사역과 내적 치유 등이다.

##### (2) 청소년 상담학

부산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수영구 남천동 금련산 청소년 수련소 입구에 설치한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292명(전원 여성)중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문제로 인한 가출이 47.1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친구 문제 32.9퍼센트, 학교문제 11퍼센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 청소년의 뒤에는 문제 어른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 문제는 오늘의 기성세대 부모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부모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교회는 청소년 문제를 실감하고 교회 내 청소년 상담 교실을 열어 청소년들의 욕구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해소, 발산할 수 있는 장을 개발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는 실제적인 대화의 통로를 개방하여 그들을 돕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제시하여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상담은 이제 더 이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역할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앞서 감싸 안으며, 예방하며 그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3) 제3영도교회 부부 교실

2003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라 이혼 실태를 살펴보면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가 40.6세, 여자는 37.1세로서 10년 전(92년)에 비해 남자는 3.2세, 여자는 3.7세 늘어났다. 이것은 10년 이상 함께 살던 부부의 이혼 증가 및 혼인연령의 상승에 기인한다. 주된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 가족간 불화이다. 가족간 불화로 인한 이혼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혼 당시 20세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69.7퍼센트며 2명인 경우가 35.0퍼센트로 가장 많고, 1명인 경우는 30.0퍼센트, 3명 이상인 경우는 4.7퍼센트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30.3퍼센트다.

이혼의 증가 원인을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부부간의 경제적 의존도의 약화, 법제도의 변화(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 인정, 면접교섭권 신설, 자녀 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 성역할 변화에 대한 남녀간의 수용의 차이, 친족 및 지역사회기능의 약화, 그리고 자녀수의 감소의 이유 때문이다. 이에 건전한 성 문화와 함께 부부클리닉을 개설하여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 특별히 본 교회가 위치한 영도는 해양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이혼 가정을 만들

어 낮으며 심각한 부부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절감하고 이들 부부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부부교실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가정파괴로 인한 교인 감소를 줄이고 오히려 가정문제, 부부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됨으로 주위와 가문에 복음증거가 된다.

#### (4) 제3영도교회 결혼예비학교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운전연습보다 못한 결혼준비로 겁 없이 결혼을 맞이하고 있다. 서로의 가치관과 기대, 성품과 기질에 대한 진지한 대화조차 없이 살림살이와 패물을 장만하는 데만 열을 올릴 뿐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진정한 결혼의 기쁨과 의미를 누려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결혼한 독신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영적 혼수감을 장만하는 길밖에 없다. 성격의 조화 여부 검토, 의사소통 기술 향상, 동반자 의식 및 친밀감 증진,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식, 바람직한 결혼관 정립, 건강한 자아상 확립, 성(性)교육, 결혼문화 적응훈련 등 배워야 할 과목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혼율 48퍼센트라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며 이것이 세상 밖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본 연구자는 결혼예비학교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바른 가정관을 심어주며, 결혼에 이르기까지 좋은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청년들의 사고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고자 한다. 자신의 내면치유와 영적 성숙, 관계 개발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영적 혼수감 준비가 이뤄지도록 한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아 찾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둘째, 준비된 만남 환상과 착각, 셋째, 둘이 하나 되어 언어의 미학, 넷째, 결혼을 준비하며 등이다.

이처럼 결혼예비학교를 통해 교회는 젊은 청년들을 관리, 보호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교회가 계속해서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교회의 노령화에 대한 교회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 (5) 제3영도교회 가족 상담실

오늘날 우리 문화의 도덕적인 혼란과 충동 및 복합성은 혼돈된 양심의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대인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올바른 윤리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먼저 상담자들은 모든 가치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 권위적인 해답을 주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가치관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브라우닝이 제기한 비판적 대화를 통해 오늘날 기독교적인 윤리를 상담자는 자신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을 향상시키는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날 상담에서 전인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인 것이며, 상호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혼돈되고 충돌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가치관을 재평가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목회자 개인이 사회학, 심리학 등의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윤리를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교회적으로 이러한 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톨릭이나 일부 미국의 개신교회들<sup>216)</sup>은 사회문제,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이혼, 낙태, 성, 결혼, 여성, 노동, 가난 등의 문제에 대해 교단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바른 가치관을 교회가 사회 속에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상담학적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런 작업이 앞으로 목회상담자들이 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회 내 가족 상담실을 만들어 성도들의 말 할 수 없는 고통들을 풀어가고자 한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 (6) 제3영도교회 전인가족 치유상담 학교의 전망

제3영도교회의 전인가족 치유상담 학교는 내적 치유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으며, 배우자 및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 회복,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완성과 선

216) 예를 들면, 미연합감리교회(UMC)의 *The Book of Discipline*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소개한다. 또 현재 논쟁이 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각 교단은 자기의 들의 입장을 보여준다. *The Church and the Homosexualit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1978. *Human Sexuality: A Preliminary Study*, New York: United Church Press, 1977. "A Study Document on Homosexuality and the Church," Resolution No. 7750 in *Empowered by Love*, General Assembly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1977.

교 헌신에의 결단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통한 교회의 내실을 추구하며, 또한 교회의 정체성 극복을 추구한다.

제3영도교회가 위치한 영도는 해양문화와 맞물려 심각한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 계속하여 전인가족 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사역이 교회내 영향력을 미치도록 성도들을 적극 권장하여 참여토록 하며 교회 내 상담실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 6. 기도운동을 통한 정체성 극복

한국초기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부흥을 논할 때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을 빼놓을 수 없다. 그 때 평양에서의 대 부흥운동은 기도 운동의 결과에 있다고 말한다.<sup>217)</sup> 기도는 신자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영적 역동성이다. 1884년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래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목회자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정, 그리고 평신도들의 기도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기도는 영적 부흥과 교회성장의 열쇠이다.<sup>218)</sup> 신약 성경에서도 신도들이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도들은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교회가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행 1:14). 이처럼 기도는 교회성장의 지름길이요, 무기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한다'는 많은 실례를 갖고 있다. 격렬한 기도, 계속되는 기도 다음에는 반드시 성장이 온다.<sup>219)</sup> 따라서 기도회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어야 한다. 교회 전체의 생명과 사역에 능력을 가져오고 교회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목회자는 기도회 대한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기도의 본이 될 때 교회는 성장한다.

기도는 교회의 계획을 추진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교회에 기도회를 하지 않는다

217) 박용규, 평양 대 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218) 명성훈, 교회성장과 기도 (서울: 서울서적, 1992), 19.

219) Donald A. McGarvan, 교회성장 이해, 고원용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3), 235.

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자랄 수도 없다.<sup>220)</sup> 기도하는 교회는 자란다. 기도하는 교회는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힘쓰게 된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며 또 기도회에 참석한 새 신자는 교회에 대한 관심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많은 교회에는 생동감이 넘치는 기도회와 뜨거운 기도자들이 있다. 특별히 영국의 스필전은 유럽 대륙에서 방문한 목사들이 설교와 교회성장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들을 교회당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이러한 교인들의 기도가 설교와 교회성장의 비결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좋은 예가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회의 기도운동을 통하여 교회 정체성을 극복하고 교회성장을 앞당기고자 한다.

#### 가.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란 새 날의 시작과 더불어 최초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는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건하고 성실하게 모든 생각과 정성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시간이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새벽부터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더 성장케 하고 풍요롭게 한다.<sup>221)</sup>

새벽기도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전적 헌신의 자세이고 하나님과의 계약된 백성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인 것이다.<sup>222)</sup> 새벽기도는 헌신의 척도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새벽기도회는 목회자 자신을 성장하게 하고, 개인의 신앙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성장에 큰 유익을 준다.<sup>223)</sup>

220) P. Peyneka, 많은 기도 많은 능력, 김영국 역 (서울: 신망애사, 1973), 71.

221)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265.

222) 나경일, 새벽기도와 교회성장 (인천: 도서출판 샘물, 1997), 51.



특별 새벽기도의 본래 뜻은 전교인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번이라도 참석하게 하는 총동원의 새벽기도의 성격을 가졌으나 점차 이 성격은 전교인 새벽 기도운동이 되었다. 그래서 전교인들이 참석하게 유도했으나 특별 새벽기도가 정착이 되고 교회 성장에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된 근본 원인은 이 기도 기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고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은 목회자들의 준비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제3영도교회는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목회자의 새벽기도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 새벽기도에 대한 애착과 아울러 본인의 신앙체험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이끄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 나. 수요 기도회

‘삼일 기도회’란 명칭으로 한국교회의 기도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초창기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 하였으면 ‘삼일 기도회’라고 명명하고 모였겠는가!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제3영도 교회 수요 기도회는 현재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인들과 주부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고 더 많이 출석코자 함에 있다.

#### 다. 금요 쯏세마네 기도회

한국교회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금요일 밤이면 함께 모여서 철야하며 기도했다. 이 철야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성장비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그 당시 인신매매 및 납치 사건 등 사회 불안 요인으로 심야에 귀가하는 것이 불가하여 많은 교회들이 철야기도 시간을 줄여서 거의 11시경에 귀가하도록 한 것이나 삶의 질의 변화로 인해 철야기도는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몇 년 전부터 쯏세마네 기도회를 금요일 철야 기도회로 대신하고 있다.

223) 김춘환, 특별기도회와 교회성장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7), 146.

성경에 나타난 심야 및 철야기도회를 살펴보면, 예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눅 6:13-17) 뿐만 아니라 겿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하는 문제를 앞에 놓고 밤에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마 26:36-45). 이러한 철야기도를 통해 그들은 능력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문제해결을 받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토레이(R. A. Torrey)는 “하나님께 기도의 밤을 드리면 사람에게 는 능력의 낮이 뒤 따라 온다”<sup>224)</sup>고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철야기도란 말보다 심야 기도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좀더 변화시켜 예수님께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본받아 금요겿세마네기도회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기도회가 교회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를 상기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현재 제3영도교회의 금요 겿세마네 기도회는 밤 9시에 시작하여 10시 30분에 마치고 있다. 내용은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 20분 동안 말씀을 전하며 30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전 교인 대상으로 현재 약 8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찬양은 찬양전문 교역자와 청년 대학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준비하며 임하고 있다. 금요 겿세마네 기도회의 개선점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심도 있는 설교, 전교인 참여토록 하며 성도들의 생활 간증과 함께 기도응답 받은 자들의 감사 간증도 곁들이도록 한다.

## 라. 그룹 기도회

본 교회는 매일 밤 9시 30분 기도회가 있다. 그룹 기도회의 인도자는 평신도와 교역자가 주 단위로 당번을 정하여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화요 기도회와 매주 토요 기도회가 있다. 이러한 기도회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가 많은 영적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그룹 기도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교회의 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 (1) 매일 밤 9시 30분 기도회

2003년 이전에는 ‘매일 밤 10시 기도회’란 명칭으로 매일 밤 10시에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과 밤에 기도하고 하고자

224) R. A. Torrey, 기도의 힘과 평안, 김승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89.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도회다. 이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함으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적지 아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 기도회가 맥을 이어오고 있는 바 수요 기도회 시간이 오후 7시로 당겨짐으로 10시 기도회도 9시 30분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 (2) 화요 기도회

이 기도회의 특징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회에서는 방언과 함께 깊이 있는 기도를 하였다. 그러던 중 인도자가 신학을 하게 되자 자연히 해체가 될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조직하고 집중 기도케 함으로 은사 받은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 함으로 더욱 교회의 분위기는 기도 분위기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화요 기도회는 인도자의 역할이 매우 큼으로 목사의 신임을 받는 영적 인물이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기도 인도자를 양육하고 계속 운영케 함으로 교회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3) 토요 오후 3시 기도회

교회 출입이 힘든 분들이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만든 기도회다. 이미 7-8년을 해오고 있다. 이 기도회의 특징은 여전교회 최고령 80세 이상의 '사라회' 회원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머니들이 교회 성장과 교회 봉사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인 줄 알고 조직하여 기도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 예배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집중 기도한다는 것에 있다. 이런 점을 더욱 부각시켜 기도케 함으로 본인도 교회 성장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교회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최근까지 월 5만원을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10만원으로 하고, 위로와 격려케 하고 가끔씩 기도 요청을 받아서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 졌을 때 감사케 함으로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생각한다.

교회성장을 향하는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목회자의 믿음이다. 둘째는 교인 개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다.<sup>225)</sup> 온 교회가 성장을 향한 믿음이

225) Peter Wagner, 교회성장의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6), 61.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할 때 즉 목회자와 교회가 기도 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 7. 영어 성경 주일학교를 통한 성장 계획

21세기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한 한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많은 사교육비 문제는 국가에서도 해결할 수 없어 서민 경제를 망들리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을 갖게 되고 쉽게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은 자명하다.

사교육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어교육인데, 영어는 선교 초기부터 교회와 무척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 교회가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윤선생 영어, 튼튼 영어, 눈높이 영어, 재능 영어 등에서의 한 학습지 회원만도 186만 명이라는 경이적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교재의 내용의 대부분이 다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반 창조적 내용이다. 더욱이 사주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등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문제를 방관 할 수 없음은 물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3영도교회에서는 이런 문제와 함께 교육의 열풍으로 인해 망들려 가고 있는 가정경제와 청소년 문화를 복음과 기독교 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영어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영어주일학교 도입으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교회에 학생들이 몰려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가. 영어 성경 주일학교의 목적

주일학교의 성장이 적게는 한 교회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귀한 사역이 주일학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교회의 고심은 주일학교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데 있다. 이는 학생들을 교회로 오게 할 방법, 즉 전도의 방법이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의 학생들은 옛날같이 빵 한 개 얻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으며 더구나 신앙이 없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교회학교의 성장과 부흥은, 교회가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라고 볼 때, 사회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과 분석 그리고 그 필요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교육 중 하나가 영어교육이다. 조기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 기러기 아빠가 되어도 아이들이 영어 하나만 배워 올 수 있다면 기꺼이 가족이 떨어져 살아도 감수하겠다는 부모들의 생각을 읽어볼 때 영어교육을 전도의 도구로 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접근을 하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볼 때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면서 전도를 해 나갈 때 매우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 침체되어 가는 주일학교를 다시 부활시키고 교회의 교육임 사회에 이바지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인력을 배양해 낼 수 있는 기초를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제3영도교회 영어주일학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영어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가르쳐 많은 영혼들을 어릴 때부터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있으며, 동시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나. 조직과 운영

영어 주일학교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어교사가 있어야 함이 절대적인 조건인데,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영어주일학교를 실시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영어주일학교를 실시했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단지 영어를 잘한다는 한 명의 교사에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영어주일학교의 승패는 많은 전문적인 영어교육을 받은 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3영도교회에서는 영어주일학교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문적인 교사를 양성해 내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두고 있다. 그래서 제3영도교회에서는 영어 주일학교를 시작하기 수개월 전부터 영어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했고, 그 모집된 교사 중에서 일정한 수의 교사를 다시 선발을 했으며, 그 선발된 교사를 중심으로 주 2회 약 3시간씩 9주 정도<sup>226)</sup>의 강도 높은 교사 교육을 실시하여 통과된 6명의 정예화 된 교사와 부장과 담당교역자와 함께 2002년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그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 영어 주일학교의 목적에 맞게 영어를 매개체로 한 지역 사회의 전도와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양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영어 주일학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3기를 마쳤는데 1기 6명, 2기 8명, 3기에 6명 총 20명의 교사를 배출했으며<sup>227)</sup> 4기부터는 CBS 부산 방송국으로 그 장소를 옮겨서 부산, 경남권 영어 주일학교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3영도교회 영어 주일학교 교사들의 주도 하에 8주 과정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에 대해서는 영어주일학교가 시작될 때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생까지 모집을 해서 6개 반을 운영했으나,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그 폭을 넓혀서 학년에 상관없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초급, 중급, 고급 각 2개 반 총 6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성과에 따라 1년에 2차례 반이 재조정되고 있다. 각반의 학생 수를 제한함으로써 좀 더 세심하게 학생들을 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급당 최대 인원을 12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영어 성경 주일학교의 운영 시간은 주일 오후 1시 15분부터 2시 15분까지 영어 찬양, 성경 메시지, 성경 게임 그리고 반별로 교사와 함께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재<sup>228)</sup>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 1년에 1차례 정도 영어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영어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위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226) 여기에는 영어 회화, 교수법, 영어 노래 및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227) 여기에는 타 교회에서 온 교사들 5명도 포함되어 있다.

228) Y.E.S.S.(Youth English Sunday School) English Book 자체 개발한 영어교재임. 정택진 편.

기회를 부여하고 영어를 활용하여 친교 기회를 가지므로 영어의 능력을 제고하며, 주일 한정된 시간에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Bible Song 부르기 및 게임, 성경인물 집중 탐구, 영어 장기 자랑 등이며 캠프기간동안에는 영어를 사용해야 함이 그 원칙이다.

#### 다. 앞으로의 효과

영어주일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얻어지는 효과를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부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효과라 할 수 있겠다. 먼저 교회 내부에서 발생되어지는 효과는 첫째로, 지금까지 약 2년 정도 영어 주일학교를 통해서 전혀 영어를 모르던 아이들이 영어 주일학교에 꾸준하게 출석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영어 주일학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1년 2차례 정도 영어 주일학교 사역예배를 장년 성도들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장년층에서도 영어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 주일학교 사역예배는 모든 순서가 영어로 진행되어지기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찬송이며, 성경본문, 설교까지도 영어로 하게 되며 영어 주일학교 학생들의 찬양과 소개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어로 진행하게 된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 내지 기대치는 어른들이 영어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영어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기도 했다.

교회 밖에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웃에 있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영어 주일학교가 있음을 알고 아이들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교회로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 보다는 자기들의 아이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교회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더구나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데 대해서 무척이나 호의적이며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어 주일학교에 보내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활용하여 그 부모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서서히 가

정이 변화되리라 확신하며 기도하여 교사들이 힘Tm고 있는데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열매들이 나타나리라 기대가 된다.

셋째는, 제3영도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주일학교를 통해서 지역의 타 교회에서도 영어 주일학교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견학을 오는 교회가 있고, 또한 본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위탁을 문의하는 교회가 있기에 이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 8.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통한 성장 계획

##### 가.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란?

인생의 평균수명을 날(日)로 하면 25,550일인데, 이러한 날들 중 40일을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전교인들로 하여금 목적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그 목적대로 살자는 40일간의 영적 캠페인이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강하게 체험하도록 하여 삶의 목적을 바르게 정립하며 이 캠페인 후에도 이러한 목적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도록 한다. 그러므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란 영적각성과 영성회복 운동이며, 교회의 부흥과 축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나. 이 캠페인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목적 40일의 목적

첫째,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 찾음(인생의 목적 재인식), 둘째, 목적이 이끄는 40일간 삶 실천함(목적대로 살기), 셋째, 이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림(삶의 목적 재인식), 넷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행복체험), 다섯째, 교회의 영적 성숙과 부흥을 도모함(헌신), 여섯째, 변화와 성숙을 통하여 40일 이후에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감(순종)이다.



#### 다.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다섯 가지

첫째, 예배-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둘째, 교제-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셋째, 훈련-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 되었다. 넷째, 사역-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다섯째, 전도-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 라. 이 캠페인의 핵심

첫째, 개인적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읽고 묵상하기, 둘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 공부하고 교제 나누기, 셋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은혜받기, 그리고 삶에 실천하기 등이다.

#### 마. 목적이 이끄는 40일 자료소개

첫째, 캠페인이 진행되는 40일 동안 사람들이 매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40일 동안 매일 개인 경건의 시간을 활용해 읽어나갈 수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도서출판 디모데, 국제제자훈련원)이 준비되어있다. 성도들은 이 책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모임에서 사용될 '성경공부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는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이 교재(총 6과)를 목사님께서 강의한 비디오테이프가 있는데 이것은 소그룹마다 한 개씩 배부된다. 셋째, 매 주간의 목적과 관련된 암송 구절들이 껴어 있는 열쇠고리가 성도들에게 제공된다. 성도들이 외우는 한 구절의 주간 암송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삶으로 강하게 이끌 것이다.

#### 바. '목적이 이끄는 40일' 소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은 캠페인의 꽃으로 어떻게 목적을 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장 탁월한 해답이다.

첫째, 소그룹 모임은? 소그룹은 영적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장이다. 소그룹은 성도들의 삶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다. 소그룹은 말씀 실천의 장이다.

둘째, 왜 소그룹이 중요한가? 소그룹 전략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단 여섯 번의 장소 제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열매가 놀랍도록 풍성하다. 그룹 모임이 가지는 기능상의 특성 때문이다. 캠페인의 자료와 동기부여를 나누는 일차적 통로로서의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바로 소그룹이다. 소그룹이 캠페인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소그룹은 캠페인을 더욱 분산시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 들이는 좋은 전략적 모임이다.

셋째, 소그룹 모임의 목적은 목적의 심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실제적 장을 마련하고 거기서 캠페인이 추구하는 바가 심화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소그룹의 활성화로 기존의 소그룹(구역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를 이끌어 소그룹을 활성화한다. 소그룹의 확장으로 이를 통하여 보다 더 많은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소그룹의 확산 효과를 갖게 된다. 특히 남자반, 직장반, 야간반 소그룹을 확산시키려 한다.

#### 사. 여섯 번의 축복

하나, 소그룹 장소 제공자로 자원해 주세요(6번의 섬김). 하나, 매주 빠짐없이 소그룹에 참여해 주세요(6번의 참여). 하나, 이웃을 소그룹 모임에 초청하세요(6번의 초청).

#### 아. 이 행사가 주는 유익

첫째, 침체된 분위기를 40일 만에 혁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요, 도구요, 사역이요, 해답이다. 둘째, 40일 동안에 확신한 삶의 목적을 가짐으로 인해 배우든지 가

르치든지 훈련받든지 하게 된다. 셋째, 소그룹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창원한빛교회의 체험담은 구역 모임 숫자가 배로 증가 하였고, 소그룹 지도자들도 많이 지원했다고 한다. 넷째, 서로 섬기며, 위로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 소그룹의 기능이 강화된다. 다섯째, 예배가 활성화되고 예배에 헌신하는 모습이 많아졌다고 한다.

제3영도교회는 릭 워렌이 작성해서 시무교회인 미국 새들백교회에서 임상한 결과 너무나 좋아서 세계교회에 나누기 위해 한국에서도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것을 제3영도교회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여서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교회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만 제대로 잘 시행한다면 교회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계속 교회성장을 이루어 간다고 판단한다.

#### 자. 실시 및 준비

일정은 2005년 5월 이고 준비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이다. 대상과 방법은 전교인 상대로 40일 새벽기도회를 실시하여 참여케 한다. 교재와 기타 준비물은 국제제자훈련원과 긴밀히 관계를 갖고 필요시마다 제공 받는다. 조직은 2004년 10월에 할 예정이다.

### 9. 교회부설 산돌 어린이 학교(Livingstone Kid's School)를 통한 성장 계획

제3영도교회는 유아를 통한 전도전략으로 일찍이 1981년 3월 10일 선교원을 개원하여서 지금까지 수백 명을 졸업시켰다. 잘 운영하여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되면 산돌 어린이 학교를 통해서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다.

#### 가. 산돌 어린이 학교의 목적

먼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믿음의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도 선교사 사비엘이 7세까지만 나에게 맡겨달라고 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이 무척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산돌 어린이 학교는 복음 전

파, 즉 교회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세워졌다.

#### 나. 산돌 어린이 학교의 역사

창립은 1981년 3월 10일인데 그 당시 담임목사가 서울서 교육을 받고 내려와서 개원을 하였다. 그 당시 영도에서 유아 교육기관이 흔치 아니한 때에 제3영도교회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의 주역을 길러내기 위해서 기초를 쌓았던 것이다.

#### 다. 산돌 어린이 학교의 미래

지금까지 21년 동안 수료생은 200여명에 이르고, 졸업생은 7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2002년 11월에 산돌어린이 선교원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산돌 어린이 학교로 명칭을 바꿨다.<sup>229)</sup> 영어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은 향후 50년까지는 영어가 국제 통용어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산돌 어린이 학교는 영어 전문 유아 학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길이 산돌 어린이 학교가 생존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으며, 교회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칭을 산돌어린이학교로 개명하여 2005년도 영어 전문 유아 학교로 전환하여 경영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영도의 젊은 엘리트 계층에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 라. 산돌 어린이 학교를 통해 예상되는 효과

2005년 학기부터 영어 전문 유아학원으로 운영이 될 때, 영도의 서민 가정을 위한 무료 유아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영어 전문 유아 학원의 교사를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년주일학교 안에 영어 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영어 예배를 계획하고 있으며 영도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예배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영어예배를 가졌지만 인도자와 설교자의 부재로 인해 결국 의도는 좋았지만 도중하차하고 만 뼈아픈 상처가 있기에 이번에는 충분한 준비를 해

229) 교회요람, 산돌어린이 선교원 1981년 3월 10일 개원으로 나와 있다. 산돌어린이 선교원을 2003년 11월 24일로 산돌어린이학교(Livingstone Kid's School)로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 영어예배를 시도하고자 한다.

산돌어린이 학교 출신이 1,000여명이나 영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기독교의 문화를 알고, 주기도문이나 성경 말씀은 기억하리라 생각한다. 어릴 때 받았던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싹이 트게 될 줄 안다.

## 10. 설교의 활성화

침체된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설교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개혁신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이기 때문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하여 현대인에게 적용되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교에는 흔히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한다. 성경적 선포, 예언자적 선포, 제사장적 선포가 그것이다.<sup>230)</sup>

말씀의 성경적 선포가 교회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이라는 결코 능가할 수 없는 사건에 확고히 뿌리를 박게 하는 것이라면, 말씀의 예언자적 선포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간여하시도록 예배를 열어젖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말씀이 교회의 포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성만찬과 설교는 균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적 선포는 축도를 의미하며, 동시에 회개 행위 뒤에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다. 설교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이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설교의 귀중성을 강조하고 있다.

설교학자 포사이드는 “기독교는 설교와 함께 일어서기도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말을 했다.<sup>231)</sup> 설교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말 걸음의 장소”이다.<sup>232)</sup> 칼 바르트는 ‘설교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뜻의 통로인 설교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만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명하였다. 예배의 행위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경을 띠고 있지만 설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말을 거시는 하향식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설

230) Jean-Jacques von Allmen, 구원의 축제 박근원 역 (서울: 진흥, 1993), 160.

231) 정인교, 설교 살리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12.

232) Ibid., 18.

교는 사람을 모으는 실용적 성경 이전의 문제이다. 설교,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지금 여  
기서의 하나님의 말 곁음이다.<sup>233)</sup>

국제제자훈련원의 진단결과 설교 준비에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정곡을 찌르는 진단이다. 그러므로 우선 매일 성경을 20장 이상 읽는다. 말씀에 충실  
한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읽어야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매일 기도  
를 2시간 이상 한다. 묵상과 명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새벽기도회와  
밤기도회에 모범을 보이며 필요시 기도할 뿐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을 따라 기도의 자세로 평소 설교를 준비한다. 셋째, 현장감 넘치는 설교를 위해서 주  
간에 10가정 이상 심방을 꼭 한다. 성도들과 관계있는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게 만든다. 넷째, 독서하는 목사가 된다. 매주 3권이상의 책, 즉 일년에 150권  
이상 읽는다. 경건서적, 목회와 설교에 관한 책, 교양서적을 통해서 설교의 영감을 얻  
는다. 다섯째, 선배들의 설교를 듣고 설교집을 읽는다. 설교를 개발한다. 좋은 예화를  
발췌하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다. 문화를 익힌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성령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일곱째, 설교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설교하도록 힘쓴다.  
청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설교한다. 여덟째, 설교한 대로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한다. 삶의 실천을 시도한다.

이상과 같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설교에 은혜를 입혀 주시리라 믿는다. “그  
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복음이라는 사실과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며, 설교란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  
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 말을 거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칼 바르트가 말  
한 것을 다시 되새긴다.

성육된 말씀-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성경, 선포된 말씀-설교인데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목사로 불러 주셨다는 소명과 사명감으로, 그리고 말은  
자에게 충성을 구하고, 말은 자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  
령 충만을 구하면서 설교할 때 주 예수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리라 믿  
는다.

233) Ibid., 19.

## 11. 차별화된 예배

교회 성장에 가장 큰 요소는 예배이다. 예배가 살아 있다면 그 건강한 교회요,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이며 자생력을 갖춘 교회이다. 그러나 예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예배가 침체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침체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영도교회는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예배의 특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1부 예배는 부흥회 스타일로 한다. 1부 예배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되는데 참석숫자는 100여명으로 주일학교 교사들(유치, 초등, 중, 고)과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데 말씀 위주의 예배로 이끌고 있는데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2부 예배는 10시에 시작되는 예배로서 이때는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찬양이 뜨거운, 찬양을 많이 하는 소위 구도자적 예배 형태를 가지하고자 한다. 앞으로 스트링과 함께 찬양 요소가 강하도록 하겠다. 3부 예배는 11시 30분에 시작되는 예배인데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인데 구성원이 장년층이 제일 많다. 그러므로 3부 예배는 온전히 고전예배 즉 18세기 스타일의 1960년대 예배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제3영도교회는 장로교종에서도 가장 보수라 할 수 있는 고신측이며, 지역 특성상 섬으로서 보수성이 강하고, 또 지역성 역시 배타적인 성향이 많으므로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임이 매우 늦다. 동시에 제일영도교회의 역사가 110년이나 되고 출옥성도들의 지도자들이 고신 교단의 1950년대 지도자들이 시무하였던 영향을 받아 대단히 보수적 성향이 많으므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림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은사에 따라, 현대의 변화무쌍한 문화에 잘 적응이 되는 예배시간과 예배 형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고자 한다. 예배 모습은 변화여도 예배 요소와 예배 정신은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으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사 예배의 기능은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구제와 돌봄이 일어나고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삶의 향기가 나타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에 예배의 핵심가치를 둔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공간이요 느낌이다. 예배를 통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사명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기쁨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재생산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제3영도교회의 예배의 꿈이다.

### 제 3 절 목사의 리더십 함양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은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제자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진다는 말이 있듯이 리더십도 선천적인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NCD와 국제제자훈련원과 한국교회 성장연구소의 교회진단결과를 각기 참조하면 제3영도교회의 질병중 하나가 리더십 문제도 나타난다. 도표 1에 의하면 목회자와 시스템 그리고 소그룹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바 이것이 목사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10년 넘게 목회를 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목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판단한다. 도표 7에 의하면 자기개발, 설득력, 동원력, 구비 리더십 등이 함양미달로 나오고 있다. 도표8에서는 조직의 조화성 부족이 제일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목사의 지도력 함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도표16에 의하면 NCD에서도 리더십이(40점), 구조(34점), 소그룹(37점)으로 세 가지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진단결과는 리더십의 함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리더십 함양을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한국리더십센터의 도움받기

리더십을 고취시키고 함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리더십 함양을 위한 한국의 대표적 교육훈련원이 바로 한국리더십센터이다. 그래서 한국 리더십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리더십 함양을 하겠다.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Habits,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 TM, 4RL, 성공하는 리더들의 4가지 역할 TM, WMM, 소중한 것 먼저 하기



TM, 등의 과목은 목회자에 필요한 과목이므로 수강하여 부족한 리더십을 더욱 함양하며 존경받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다.

## 2. 발간된 책을 통하여 스스로 리더십 함양

첫째, 많은 책들이 발간되었지만 그중에 몇 권을 택해서 집중하여 스스로 훈련을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 꼭 알맞은 책이 바로 자기개발을 위한 135작전이란 책이다. 그러므로 자기 개발을 위한 135작전을 따라서 꾸준히 노력하겠다.

김양호는 자기개발을 자기의 능력, 가능성의 개발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사전에서도 자기개발 또는 자아개발로 영한사전에서 말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자기 개발은 능력,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리더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자기 개발에 있어서 주체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이며 객체도 자기이다. 즉 자기가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다.<sup>234)</sup>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리더십 함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자기 개발은 평생 교육이라고 정하고 있는바<sup>235)</sup> 계속 배우고 더 강화시켜가야 하겠다.

둘째, 존 맥스웰의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를 숙지하고 훈련하겠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의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자기개발 교과서인데 이 책의 내용은 리더십의 정의는 영향력으로, 리더십의 열쇠는 우선순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전성(通全性), 리더십의 최후의 시금석은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리더십을 인정받는 비결은 문제해결, 리더십의 특별한 정점은 태도, 가장 귀중한 자산의 개발은 사람들, 리더십의 필수자질은 비전, 지도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자기 훈련, 지도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후진양성 등으로 되어있다.<sup>236)</sup> 리더십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다는 것<sup>237)</sup>은 참으로 소망스러운 복음으로 들려진다. 그렇다. 리더십은 개발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맥스웰은 서문에서 “이 책을 읽으라, 그리고 당신의 때를 준비하라”라고 끝맺고

234) 김양호, 자기개발을 위한 135작전 (서울: 비전코리아, 2003), 17-18.

235) Ibid., 26-27.

236) 존 맥스웰,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 1997), 목차.

237) Ibid., 10.

있는데 리더십이 부족한 지도자에게 천금만금 같은 소리이다. 이 책은 각 과마다 복습과 응답이 있고, 질문이 많이 나오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함으로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하는 과정이기에 제3영도교회의 리더십 함양에 꼭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책을 선정한 것이다.

셋째, 주상지가 쓴 “리더십 개발의 12가지 열쇠”를 참고하겠다. 이 책은 저자가 한국인이므로 한국상황이 잘 적용되어 있고, 공감대를 쉽게 형성하고 있다. 주상지는 이 책에서 리더십에 관계되는 중요한 1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과업과 사람들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동기부여를 위한 역동적인 리더십 개발에 필요한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리더를 상황에 맞는 리더십 유형을 채택하고 개발해야 최대한의 효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봉사하도록 동기부여와 위임에 대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인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 등에 대해서 이론적이면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하고 있으므로 이 책을 참고하여 부족한 리더십을 보강하고 지도력을 키우도록 하겠다.

#### 제 4 절 교회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 전략

NCD의 교회진단 결과는 기능적 조직이 34점으로 가장 낮은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제자훈련원의 진단결과도 낮은 수치를 보여줌으로 제3영도교회 활성화에 조직 강화가 최우선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소그룹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시 조직 즉 시스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조직에 대한 결과를 참고하여 성장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 1. 당회

장로교에서 당회는 최종 최고 권력기구인 공동의회 다음으로 실제적인 온갖 교회의 경영과 조직을 관장하는 조직체이다. 당회는 원활한 교회 운영을 위해 직속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당회는 11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예배 위원회, 찬양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태신자 전도위원회, 장학위원회, 건축위원회, 산돌어린이학교 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교회역사편찬위원회, 새 가족 위원회 등이다. 이 중에 교육위원회와 태신자 전도위원회와 새 가족위원회는 교회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각 위원회가 독자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장로로, 담당도우미는 교역자로, 하부조직을 갖도록 되어 있다. 예산도 따로 세워져 있음으로 기존 조직을 잘 움직여 질 수 있도록 한다.

당회원인 장로들에 대한 문제점은 정책결정자로만 존재하지 말고 정책을 결정하였으면 실천자로 앞장서도록 하며, 정기심방과 특별심방 침 교인관리와 돌봄 그리고 가르치며,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모범을 보이는 장로상을 고취시켜 온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교인이 생겨나도록 열매 맺도록 한다.

## 2. 제직회

모든 재정에 대한 봉사과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별히 교회내의 일반적인 관리와 행정 봉사를 맡아 있다. 12부서가 있는데 경조부, 관리부, 구제부, 미화부, 방송영상부, 봉사부, 서무부, 안내부, 재정부, 전도부, 차량관리부, 행사부 등이다. 조직도 지도위원제도를 두어 지도위원은 시무장로로 부장은 안수집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직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2004년부터는 결재권을 제직회 부서에게 맡겨졌다. 그러므로 제직회 부서에서 독자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목회 철학과 목회운영 방침을 따라 목회 목표를 성취하는데 권력도 기울여야 한다. 부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봉사에 보람을 느끼도록 지도한다. 동시에 제직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과 양육을 하며 특별히 연보를 잘하고 또 연보관리를 잘하는 제직으로 만들 것이다.

## 3. 자치 기관

교회의 조직과 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교회는 자치기관을 가

지고 있다. 남녀전도여회와 청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러한 자치기관이 활성화되면 전체 교회가 활성화되고 정체에서 벗어나 성장하게 될 것이다. 몇 가지 지도방침은 첫째, 각 자치기관에 지도위원과 담당교역자를 선정했다. 둘째, 각 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재정정보고를 받는다(목적과 목표). 셋째, 각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기관 연간 계획서를 받는다(사업계획). 넷째, 각 기관의 행사를 취합하여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한다. 다섯째, 교육과 친교가 세대간에 지역간에 일어나도록 한다. 여섯째, 월 1회 모임을 통해 결속을 도모하고 자기 점검을 한다. 동시에 지도위원인 장로의 지도를 받으며, 협의하고 함께 성장을 꾀하도록 한다.

#### 4. 교육기관

현재 각 기관마다 전담 교역자가 있어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시무장로를 지도위원으로, 안수집사들은 각 부서의 부장으로 배치하여 교역자의 교육방침을 적극 돕고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여 교회재정부와 관계를 원활히 하고, 교사와의 관계도 관장토록 한다. 교육기관도 유치부 1·2부, 초등 1·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2부(산돌), 청년1부(스데반)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 2부는 주로 대학생과 그 연령으로(20-24, 남 25세), 청년1부는 결혼 전까지 미혼 남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별첨으로 교육기관의 2004년도 성장계획서가 있다.

#### 5. 심방과 구역조직

##### 가. 심방

한국교회의 큰 장점은 두 가지이며, 이 두 가지가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심방이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심방 목회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970년대의 한국교회는 심방위주의 교회성장을 이루어 왔다. 도시든 시골이든 전국교회가 춘계심방과 추계심방을 통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여 교회 출석케 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현대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익명성과 함께 심방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 생활 패턴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도시에서는 심방의 기능이 감소되고 대신 성경공부나 상담 등으로 전이 된 것 같다.

그러나 현대의 문명이기가 발달하면 할수록 개인은 고독하기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성향을 가진다. 그러므로 현대 문화 속에서 산다고 하여도 인간은 인간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고독한 인생은 더욱 인간적인 면을 요구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3영도교회에서는 심방을 하되 교육 심방을 하도록 하겠다. 교육심방이란 단순히 찾아가서 사람만 만나서 돌아오는 것이 아닌 심방자체가 교육이 되고 상담이 되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심방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정도에 알맞은 신앙교육을 하고, 만날 때마다 단계를 높여서 교육심방을 하도록 하여 상담과 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연중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년 2회 심방이 되도록 하며, 담당교역자는 수시로 심방이 되도록 한다.

#### 나. 구역조직

구역조직이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정교회라 함은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기능을 가진 가정교회를 의미한다. 제3영도교회에서는 교구별 모임이 작은 교회가 되고 구역 모임을 가정교회로 전환시켜 구역이 가장 작은 가정교회 모임으로 모이게 한다. 지금 모이고 있는 구역을 조정하여 정비하고, 예배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서 구역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러한 구역은 아무래도 소그룹이 된다. 그러나 구역이 가정교회가 되어서 세대 간 혹은 직종에 따라 사역에 따라 소그룹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그룹이 구역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그룹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여 소그룹을 분산케 한다.

가정교회와 소그룹을 만들게 되면 자연히 소그룹 지도자가 필요하게 된다. 본 교회는 비전 2222에서 200명의 소그룹 지도자를 양육해야 한다. 이런 지도자를 발굴하고 훈련시켜서 구역지도자로 삼아야 한다. 교회 안에 제자반, 사역자반을 거쳐서 평신도 소그룹 지도자반에서 훈련받음으로 평신도 소그룹지도자가 된다. 이러한 조직의 강화와 조직원의 활동함으로 조직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교회 성장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 제 7 장

## 결 론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교회수의 감소와 교인들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주님의 지상 최대의 소원이요, 교회성장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교회성장은 교회 존재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즉 목회자들은 교회가 성장하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코카콜라의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나의 꿈은 내 세대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말한 것처럼, 솔직히 본인도 영도 모든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며 5대양 6대주에 교회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남강 선생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내가 죽으면 비석에 두 눈도 새겨다오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도 보고 한 눈은 조국의 독립을 보리라”고 한 말처럼 본 연구자도 교회성장을 간절히 염원한다. 앓아도 교회성장, 누워도 교회성장,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지만 뜻대로 쉽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결국 제3영도교회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략대로 행동에 옮김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한다.

제3영도교회에 시무한지 꼭 10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목사인 나 자신을 살피고, 교회를 성찰하고, 그리하여 남은 목회기간 동안만이라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한다. 남은 목회 기간은 18년인데 3차 5개년 계획으로 1차 5년, 2차 5년, 3차 5년 그리고 3년은 후임자와 함께 동시 목회함으로 인수인계 하고자 한다.

1차 5개년 계획은 여러 가지 있지만 모인 수를 보면 5개 년도인 2008년도의 목

표치는 1,600명이며, 최대치는 2,100명이다. 물론 꼭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한 최대치에 접근하고자 하다. 교회성장을 10퍼센트로 잡은 것은 “와그너의 10퍼센트라고 하는 가설”<sup>238)</sup>에서 도움을 받아서 2010까지 성장 목표치를 세우게 되었다.

<표 17> 2010년까지 성장 목표 및 최대치

|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목표치 | 1,100명 | 1,210명 | 1,330명 | 1,460명 | 1,600명 | 1,760명 | 1,936명 |
| 최대치 | 1,100명 | 1,300명 | 1,500명 | 1,800명 | 2,100명 | 2,500명 | 3,000명 |

그리고 2009년도에는 본 교회 60주년이 됨으로 2005년도부터 교회 건축 기성회를 조직하여서 건축 준비에 들어가고 2008년도 8월 7일에 기공식 하여서 2009년 8월 7일에 입당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이 논문의 시작이 목회 10년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더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성장이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숫자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교회성장을 의미하며 그것은 최소한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칼빈의 “교회는 목사만큼 크다”는 말은 정체된 교회의 목사에게는 치명타를 가하는 격이다. 그러나 정체된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침체된 교회의 목사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성경적 원리대로 힘쓴다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교회성장은 양적이냐 실적이냐는 시비를 떠나서 교회성장이란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의미인 것을 본 논문에서 밝혔고, 나아가 교회성장에 대한 평가는 NCD와 국제제자훈련원과 교회 성장연구소의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정체된 요인을 발견하고 계속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체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세운 전략대로 행하면 하나님

238)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112-115.

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리라 사료된다.

서론에서는 한국 교회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개체 교회의 우려라고 보고, 개체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한다면 한국 교회도 건강하게 계속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2장에서는 맥가브란과 와그너의 교회성장 정의를 살펴보고 교회 성장 역사와 성장 원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제3영도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성장형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였다. 3장에서는 제3영도교회의 주변교회가 해양문화와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 보았고, 영도의 역사와 영도지역 교회의 현황을 소개하고 정체상황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해양문화의 독특성과 영도인구의 감소가 교회정체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제3영도교회의 설립동기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간추렸다. 나무에서 성장과정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이테인데 교회도 나이테를 갖고 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이다. 제3영도교회의 역사는 한국교회가 가진 아픔과 기쁨을 함께 가졌다고 본다. 6·25 동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은 오늘 후배들이 이어받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2009년도 예배당 건축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되겠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교회를 이동함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은 10년이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두면 아물지 않는 상처이기에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정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동시에 지역사회의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 경제가 몰락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체들의 이전과 탈 영도로 인해 유명마을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제3영도교회에 영향을 미쳐 현재 교회가 정체하는데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제3영도교회의 설립 동기는 분열이나 교파다툼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인구의 증감에 따라 제1영도교회의 담임목사의 긴 안목과 희생적인 판단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가까운 곳에 교회당을 세우게 함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결단에 의해서 설립 되었으며, 5장에서는 제3영도교회의 정체성의 원인을 내적원인과 외적원인으로 나누어 분석 연구하였고, 이러한 내적, 외적 요인을 더욱 자세히 분석 조사하였는데 NCD와 교회성장연구소와 국제제자훈련원의 진단 질문을 통해서 교회를 진단하고 그 결과도출하였다. 진단결과는 소그룹의 시스템의 열악함, 목회자의 리더십의 부족 그리고 교회조직의 낮은 수치 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물론 교회가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은 고스란히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교인도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님을 밝혀두면서 그러한 목회자와의 갈등이 십수년이 지나도 치료되지 못한 채 뇌리 속에 잠복하여 불쑥 불쑥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교회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소그룹을 강화시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직을 강화함으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질병이지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란 맥가브란의 말은 매우 희망적이다. 무엇보다도 와그너의 견해에 교회임종질병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유령마을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색 또는 지방색이라고 한다. 이러한 와그너의 통찰력은 공간개념을 뛰어넘어 영도지역도 해당됨을 알려준다. 영도의 인구는 해마다 4,000-5,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고, 지방색의 모습이 그 어느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교회임종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6장에서는 제5장의 제3영도교회의 정체원인인 내적요인과 외적요인 그리고 3개 연구소의 진단결과를 가지고 정체성 극복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1절에서는 제3영도교회의 성장비전을 먼저 제시하였고, 2절에서는 성장전략을 소개하였는데 소그룹과 전도운동인 태신자 전도운동, 기존 있는 전도폭발과 여호수아 전도대, 전인가족 연구소, 기도운동, 영어주일학교 등 기존 교회 안에 있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서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다. 성장전략에서 제3영도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것은 없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진단하고 점검하여 보완하고 원리에 더욱 충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단지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은 미국 새들백교회의 것을 세미나에 참석하고 제3영도교회의 문화에 맞게끔 적용하여서 2005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소그룹반 안에 있는 제자반과 사역자반, 평신도 지도자반을 더욱 기도와 연구로 알차게 가르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다. 동시에 전도폭발과 여호수아 전도대도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열정과 간절한 기도로 무장하여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자세로 나아가고, 제3영도교회의 가장 확실한 성장 브랜드가 태신자 운동인데 이것은 10회를 지나면서 점검과 분석을 하여 교회성장의 기둥이 되도록 할 것이며, 전인가족 연구소를 통해 찢기고 분열된 가정과 마음을 치유하고, 비전학교와 혼인예비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반드

시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리라 사료된다.

산돌어린이학교를 통해서 어린이 전도와 불신부모 전도, 그리고 신축교육관을 통한 한글학교와 컴퓨터교실 등으로 인한 교회와의 접촉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교회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특별히 제3영도교회가 차별화하고 있는 영어주일학교는 차세대 지도자를 길러낼 뿐만 아니라 영도지역 엘리트의 복음화에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사료된다. 기도회와 예배의 활성화 및 차별화를 계속 이끌고 가면서 설교 준비와 리더십을 함양하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한다.

NCD와 국제제자훈련원, 한국교회성장연구소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회 연구소로서 본 교회의 진단을 명쾌하게 해 주었다. 그 중에 교회의 조직의 활성화를 지적한 것은 정말 공감을 갖는다. 당회와 직속위원회, 제직회와 제직부서들이 서로 유기체가 되어서 상호 협력하여 교회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끝으로 교회의 구역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전략을 가지고 변화시킬 때 반드시 제3영도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리라 믿는다. 결국 교회성장은 초대교회를 원형으로 모델로 삼고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성장이 부흥이요, 부흥은 자기 갱신이요, 갱신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구역조직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정교회를 모델로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길 원하는 것이 셀목회요, 가정교회요, 구역조직이다.

이제 교회는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목사가 제일 큰 원인자요, 책임자인 것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점에 회개한다. 나아가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와 모든 집사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을,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데도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지 못한 죄를, 교회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청산하고, 죄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 수 십년 동안 거리끼는 것도 다 청산해야 한다. 이제 지나간 모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대열에 서야 한다. 다함께 감격의 찬송과 기쁨의 노래와 함께 환희에 찬 기도로 영도를 복음화시키려 나아가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3영도교회를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는다.

## 부록

## 설문조사

목사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제3영도교회의 정우진 목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논문을 쓰는데 설문조사가 꼭 필요하여서 바쁘신 줄 알면서도 염치없이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①장로      ②감리      ③성결

1-2 장로교일 때 교파는?

- ①합동      ②통합      ③고신      ④기타

2. 귀하의 교회는 해양수산업 종사자(선원, 선박소유 등)는 교인 대비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 ①0-3퍼센트      ②4-5퍼센트      ③6-10퍼센트      ④10퍼센트 이상

3. 귀하의 교인 분포도는 본적이 영도인분과 타지방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 ①10-20퍼센트      ②25퍼센트      ③30퍼센트      ④40퍼센트

4. 귀하의 교인들의 평균 교육수준은?

- ①중졸      ②고졸      ③대졸      ④초대졸

5. 귀하의 교인들의 평균 신앙연령은?

- ①5년 이하      ②5-10년      ③15년 정도      ④15년 이상

6. 귀하의 교인들의 평균연령은?

- ①40-44세      ②45세 정도      ③50세 정도

7. 귀하의 증 고 대학생들의 전체 숫자가 전 교인에 대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①10퍼센트      ②15퍼센트      ③15-20퍼센트      ④20퍼센트

8. 귀하의 교회의 주일학교(영아부, 유치부 - 초등학교까지)의 모임 합계수는 \_\_\_\_명, 주일학교의 수가 전체 모임에 대비하여 몇 퍼센트가 됩니까?

- ①5퍼센트      ②10퍼센트      ③15-20퍼센트      ④20퍼센트

9. 과거 10년 동안 귀 교회의 주일 출석 성도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습니까?

- ①예( )      ②아니오( )

9-1 '예'라고 하셨다면 출석 성도의 증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수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 ①목사의 설교와 목회 지도력      ②평신도들의 적극적 전도  
③건물과 여러 가지 문화혜택      ④좋은 교회라는 소문      ⑤기타

9-2 '아니오'라고 대답하셨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수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 ①교회의 분리(교권 다툼)      ②지역적 특성(해양문화)  
③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사건(금전, 도덕적 사건)      ④목사와 교인들의 갈등  
⑤교역자들의 잦은 이동

10. 귀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목회지도력(리더십)      ②목사의 설교(강단)  
③평신도 훈련과 양육      ④교회당 건축 및 교육관, 문화관 건립  
⑤성령운동(은사)      ⑥교육목회, 계획목회

11. 귀 교회에서는 해마다 새 신자(수평 이동 포함)가 교인대비 몇 퍼센트 정도 등록  
합니까?

- ①5-10퍼센트      ②11-15퍼센트      ③16-20퍼센트      ④20퍼센트  
⑤30퍼센트 이상

12. 영도지역 교회의 교회 정체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주십시오.

- ①영도 인구의 감소와 해양문화( )  
②목사의 지도력과 설교( )  
③평신도 양육, 훈련, 교육, 구제( )  
④당회 혹은 교인들의 불화음( )

13. 귀하의 성도들의 연보에 대한 평가는?

- ①매우 잘한다.      ②잘한다.      ③보통이다.      ④안하는 편이다.

14. 귀 교회는 성경공부, 제자훈련, 양육, 전도훈련을 실시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  
니까?

.성경공부: 크로스웨이( )    베델( )    성경파노라마( )    인물연구( )

          목사님 직접 교안만 들어서( )    기타( )

.전도 : ①전도폭발( )    ②전도대( )    ③기타( )

.양육 : ①일대일( )    ②기타양육( )

.제자훈련 : ①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    ②담임목사 직접 교안( )    ③기타

15. 영도지역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수준을 평가하신다면

- ①아주 적극적이다.( )      ②대체로 열심히 한다.( )  
③보통 이하로 문제가 많다.( )    ④빛과 소금이 안 된다.( )

16 영도지역의 교회연합은?

①잘 된다고 본다.(    )    ②보통이다.(    )    ③안되고 있다.(    )

17. 영도지역에서 정체를 일으키는 교회의 발전 혹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 주십시오.

18. 목사님의 교회의 등록교인은(유치부 포함 전성도) 몇 명이 됩니까? \_\_\_\_\_ 명  
또 출석교인은(유치부 포함)몇 명입니까? \_\_\_\_\_ 명

정말 감사합니다.

꿈, 비전, 행복을 심어주는  
제3영도교회 정우진 목사 올림

## 참고 문헌

## 1. 국내서적

- 곽종윤. 인생 경영 키워드. 서울: 국민일보, 2000.
- 기독교사상 편집부. 한국역사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11명의 전문가가 본 한국의 기독교. 서울: 겹보기, 2001.
- 김광식. "교회성장과 교인활성화를 위한 전도전략." 풀러신학대학원, 1996.
-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울: 규장, 1999.
- 김명혁. 한국교회 장점 진단. 서울: 규장, 1998.
- 김병원. 개혁신학과 교회 제6권 제1집 통권 6호 (1996).
- \_\_\_\_\_. 칼빈주의와 문화적 사명.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0.
-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 김승태. 신사참배거부 항쟁자들의 증언. 서울: 다산글방, 1993.
- \_\_\_\_\_.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서울: 다산글방, 1994.
- 김신국. 교회 성숙의 현장, 그 목회자들. 서울: 신망애출판사, 1997.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_\_\_\_\_.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프리셉트, 2000.
- 김점욱.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 남은우. 영도연구 (2). 부산: 고신대학교영도발전연구소, 2000.
- 맹병관. 메시지 전달 혁명. 서울: 규장문화사, 1999.
- 명성훈. 교회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 \_\_\_\_\_. 교회 성장 에센스. 서울: 크레도, 1999.
- \_\_\_\_\_.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1996.
- \_\_\_\_\_.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목창균. 현대 신학 논쟁. 서울: 두란노, 1995.
-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박건. 멘토링 목회전략. 서울: 나침반, 1999.

- 박동준. 무개척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서울: 성령, 1992.
- 박성민. 리더십 제대로 오르기. 서울: 순 출판사, 2002.
- 박용규. 평양 대 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_\_\_\_\_. 한국교회를 깨운 복음주의 운동. 서울: 두란노, 1998.
- 박희천. 나의 설교는.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 배창돈. 나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 예찬사, 1998.
- 백춘성. 성경에 나타난 장로의 사명. 서울: 교음사, 1993.
-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4.
- 심수명. NCD 실행 이야기: 한밀교회 편. 서울: NCD, 2001.
- 심창섭, 손병호, 이성희. 오늘의 한국 장로교 정치제도 이대로 좋은가?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8.
- 오강남. 예수는 없다. 서울: 현암사, 2001.
- 오광섭.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 풀러신학대학원, 2001.
- 오덕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서울: 규장문화사, 2000.
- 오병세. 하나님 앞에서.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1994.
- 오성택. 교회성장 10가지 원리를 잡아라. 서울: 엘맨, 1999.
- 육성석. "공동화되어 가는 도심지 지역교회에서의 목회전략." 풀러신학대학원, 1996.
- 육한흠 외 19인. IQ목회에서 EQ목회로의 전환.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7.
- \_\_\_\_\_. 외 7인. 제자훈련, 영적 부흥과 갱신의 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9.
- \_\_\_\_\_. 평신도를 깨우라.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 유선호. 예배 갱신 운동의 정체 (1). 서울: 할렐루야서원, 1993.
- 윤태영. "증소도시 교회를 위한 디아코니아 목회전략." 풀러신학대학원, 1995.
- 윤효원. 당신을 성공시키는 7가지 대화비결. 서울: 국민일보, 1999.
- 윤희구. "교회 성장을 위한 평신도 훈련전략." 풀러신학대학원, 1994.
- 이동현, 김화성. CEO 히딩크. 서울: 바다출판사, 2002.
- 이병희. 성경 속 기도의 모범 74가지. 서울: 진흥, 2000.
- 이상개. 영도향토지(영도 향토지 발간 추진 위원회). 부산: 빛남, 1993.
-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 서울: 글마당, 2001.



- 이승미, "개혁 신학과 교회," 고려신학대학원, 2000.
- 이신건, 하나님 나라의 지평 위에 있는 신학과 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1994.
- 이윤근, 누가 장로의 고통을 아는가, 서울: 성광문화사, 2000.
- 이종표 외 10인, 교회 발전을 위한 인격 개발, 서울: 콤란출판사, 1991.
- \_\_\_\_\_ 외 11인, 교회 발전을 위한 의식 개발, 서울: 콤란출판사, 1992.
- \_\_\_\_\_ 외 9인, 교회 발전을 위한 선교 개발, 서울: 콤란출판사, 1993.
- \_\_\_\_\_ 외 14인, 교회 발전을 위한 예배 개발, 서울: 콤란출판사, 1998.
- 이진우, 청소년 살리기, 서울: 국민일보, 1996.
- \_\_\_\_\_,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크리스찬 신문사, 2002.
- 이효상, 한번쯤 가보고 싶은 차세대 목회 현장, 서울: 서로사랑, 2001.
- 임석종,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 2002.
- 임중근,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전략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2.
- 임택진, 장로학, 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1993.
- 전병호, 최태용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83.
- 정문효, "예수교회를 위한 선교와 교회성장의 계획,"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풀러신학대학원, 1994.
- 정석현, 교회성장과 평신도의 역할, 서울: 보문출판사, 1984.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 대계,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 정용섭,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서울: 콤란출판사, 2001.
- 정정규, "한국 권위주의적인 목회자에 관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2.
- 정태영, "교회 부흥을 위한 관계 전도 전략에 관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2.
- 최덕성, .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2000.
-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판, 1998.
- 최준학, "21세기의 건강한 교회를 위한 전략,"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1.

최지원, 미래의 교회는 영성이 충만한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콤란출판사, 2002

추부길, 가정사역 닷 컴,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2

한홍, 거인의 발자국, 서울: 두란노, 2000.

한상용,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서울: 해누리, 2001.

한순진, 텐텐으로 세우는 건강한 교회, 서울: 베드로서원, 2001.

허순길,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 서울: 총회출판국, 1994

현유광, 목사와 갈등,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2001.

홍영기, 한국 초대형 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황원찬, 예배학 총론, 서울: 잠언, 1996.

## 2 번역서적

Adair, John, 성공하는 리더는 혼자 뛰지 않는다, 엄길청 역, 서울: 도서출판 다해, 2000.

Allmen, Jean-Jacques von, 구원의 축제, 박근원 역, 서울: 진흥, 1993.

에글리, Jim, 내적 치유 수양회,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국제터치본부, 신병훈련소 (학생용),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Balswick, Jack O. & Balswick, Judith K., 크리스천 가정,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5.

Barna, George,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탁영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4

\_\_\_\_\_,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한다, 김광점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7.

Beckham Willian A., 자연적 부흥, 이병현, 박경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_\_\_\_\_, 제2의 종교개혁, 임원주 외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Blackaby, Henry T. & Richard, 영적 리더십,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Braoudakis, Pau, ed, 윌로우 크릭 지도자 핸드북, 김양식 역, 서울: 두란노, 1998.

- Coleman, Robert E 외 12인, 오늘의 전도 어떻게 볼 것인가?, 임태순 역,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99.
- Corniskey, Joel 셀 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Corniskey, Joel 지투엘브 이야기 G-12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 Cordeiro, Wayne, 팀으로 이끄는 교회, 김경섭 역, 서울: 프리젠프트, 2001.
- Damazio, Frank yes 부흥, 오현미 역, 서울: 진흥, 2000.
- Dowgiewicz, Mike & susan, 가정사역중심의 새 밀레니엄 교회, 홍원팔 역, 서울: 도서출판 바울, 1999.
- Drucker, Peter F. 변화리더의 조건, 이재규 역, 서울: 청림출판사, 2001.
- Dunnett, Bob, 지금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배응준 역, 서울: 나침반, 1995.
- Eims, LeRoy, 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2000.
- \_\_\_\_\_,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9.
- George, Carl F.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_\_\_\_\_, 다가오는 교회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전의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 \_\_\_\_\_,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박종훈, 정종현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Gilbert, Larry, 팀 전도 전략, 한국목회연구소 역, 서울: 프리젠프트, 1995.
- Gillham, Bill, 자연적 영성, 이상훈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 Graten, Jeffrey E. CEO 마인드, 형선호 역, 서울: 중앙M&B, 2001.
- Gumbel, Nicky, 부흥의 본질, 명성훈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 Heenan, David A & Bennis Warren, 위대한 이인자들, 최경숙 역, 서울: 좋은 책만 듣기, 2000.
- Hocking, David L,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 김원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Hunter, James C. 서번트 리더십, 김광수 역, 서울: 시대의 창, 2002.
- Huntington, Samuel P.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서울: 김영사, 2001.
- Hybels, Bill & Lynne,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 김성응 역, 서울: 두란노, 1997.

- Kaiser, Walter C. 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 홍성훈 역, 서울: 두란노, 1991.
- KaKu, Michio. 비전 2003, 김승욱 역, 서울: 작가정신, 2000.
- Kouzes, James M. & Posner, Barry Z. 리더십 불변의 법칙 5, 송경근, 김진철 역, 서울: 한국언론인 자료간행회, 1999.
- Lahaye, Tim & Beverly. 성령충만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이길상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7.
- Lea, Larry. 기도에 열정을 회복하라, 서홍종 역, 서울: 하늘사다리, 2000.
- Macchia, Stephen 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2000.
- Malphurs, Aubrey. 침체된 교회 부흥 전략, 남성수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0.
- Maxwell, John C.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키우라, 임운택 역, 서울: 두란노, 1997.
- \_\_\_\_\_. 잠재된 당신 안에 리더십을 키우라,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 1997.
- \_\_\_\_\_.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이현수 역, 서울: 두란노, 2000.
- \_\_\_\_\_. 성경에서 배우는 불변의 리더십, 채천석 역, 서울: 청우, 2001.
- Means, James E.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배현석, 김응국 역, 서울: 나침반, 1997.
- Minkin, Barry Howard 미래예측, 구분형감 역, 서울: 해냄출판사, 1997.
- Murphy, Ed 영적 전쟁 핸드북, 노항규 역, 서울: 두란노, 1999.
- Nash, Tom. 마음을 사로잡는 커뮤니케이터, 독고앤 역, 서울: 디모데, 1999.
- Neighbour, Ralph W. 새로운 삶 시리즈 1권 안내,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_\_\_\_\_. 새로운 삶 시리즈 2권 시작,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_\_\_\_\_. 새로운 삶 시리즈 3권 실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_\_\_\_\_. 새로운 삶 시리즈 4권 전도 가이드, 정진우, 김성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_\_\_\_\_. 새로운 삶 시리즈 5권 후원자 가이드, 정진우, 마영례 역, 서울:

- 도서출판 NCD, 2000.
- \_\_\_\_\_,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_\_\_\_\_, 새로운 삶 시리즈 6권 안내 셀 인턴 가이드, 터치코리아사역 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 Parrott III, Les & Lesile Parrott, 결혼,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사랑하라,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 Perkins, Dennis N. T. 새클런의 서바이벌 리더십, 최종욱 역, 서울: 프인돌, 2001.
- Phillips Donald T. 마틴 루터 킹의 리더십, 김광수 역, 서울: 시아출판사, 2001.
- Pratney, Winkie, 균형잡힌 제자의 삶 설계, 조천영 역, 서울: 나침반, 1983.
- Sanders, J. Oswald 영적 성숙, 최혜숙 역, 서울: 나침반, 1984
- \_\_\_\_\_, 충분히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 최혜숙 역, 서울: 나침반, 1990.
- Schwab, Klaus, 세계석학 103명이 제시한 21세기 예측, 장대환 역,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6.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패러다임, 임현주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_\_\_\_\_, & 크리스토퍼 샤크,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Sell, Charles M. 가정사역, 양은순, 송헌복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Stephen, Covey, 원칙 중심의 리더십, 김경섭, 박창규 역, 서울: 김영사, 2001.
- Thiselton, Anthony C. 두 지평, 권성수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 Thompson, Oscar, 관계 중심 전도, 주상지 역, 서울: 나침반, 1991.
- Toffler, Alvin, 미래쇼크, 이규형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7.
- Towns, Elmer L. & Neil Anderson, 부흥의 혁명, 홍용표, 서성식 역, 서울: 서로 사랑, 2000.
- Wills, Garry, 나폴레옹에서 마사 그레이엄까지 시대를 움직인 16인의 리더, 곽동훈 역, 서울: 작가정신, 1999.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6.
- Zemke, Ron & Chip R. Bell, 서비스달인의 비밀 노트3-CEO 편, 구분성 역, 서울: 세

종서적, 2002.

### 3. 외국서적

Donald A. McGarvan and George G. Hunter, Church Growth Strategies that Work, Nashville: Abingdon, 1981.

Van Engen, Charles, God's Missionary People,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3.

VITA OF  
WOO JIN CHUNG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The Third Young-Do Presbyterian Church, Busan,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 November 21, 1952

Birthplace : Busan, Korea

Marital Status : Married to Haeng Sook Ahn in June 13, 1981,  
with two children, Yoo Han and Ju Hye

Home Address : # 46, 2 Ga Nam Hang Dong, Young-Do Ku, Busan City,  
Korea

Phone : 051-403-1108

Denomination : Presbyterian church in Korea(Kosin)

Ordained : January 2, 1987

Education

B. A. :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1981

M.Div. : Korea Theological Seminary, Busan, Korea, 1984

D.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4

Personal Experience

9/1994 to present Senior Pastor of The Third Young-Do Presbyterian  
Church, Busan, Korea

8/1990 to 8/1994 Senior Pastor of Pohang Dae Heung Presbyterian  
Church, Pohang, Korea

5/1987 to 7/1990 Assistant Pastor of First Young-Do Presbyterian  
Church, Busan, Korea